

제27차 평의원 회의, 보스턴에서 개막

2018년 6월 15일 (금) ~ 17일 (일)



제27차 미주동창회 평의원 회의가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보스턴 근교 Crowne Plaza Boston-Natick에서 열린다. 이채진(문리대 55) Claremont McKenna College 교수의 강연으로 15일 평의원 회의 행사의 막을 연다.

이채진 교수의 강연 주제는 '한반도 통일은 가능한가?'이다. 이 교수는 한반도 전문가로서, 그간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반도 정세를 진단한다. 두 번째 강연자는 현 대한민국 국방부 서기관 김경욱(사회대 지리학과) 동문으로 '북핵의 위협과 한미동맹 방어 체제'에 대한 강연을 한다.

16일에는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평의원 회의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진행된다. 평의원 회의에서는 미주 동창회가 지난 1년간 집행한 사업 보고, 재정 보고, 다음 해 사업 계획 등을 발표한다. 동창회가 당면한 모든 주제에 대해 토의를 한다. 16일 토요일 저녁에 열리는 평의원 환영 만찬에

서는 주중광(약대 60) College of Pharmacy UGA 교수가 'The Big Picture (Future of the USA)'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이어서 모교 음대 대학원 국악과 학생들의 평의원 회의 축하 국악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

매해 5, 6월경 미주동창회 회장이 결정하는 장소에서 열리는 평의원 회의는 미 전지역 26곳(캐나다 미포함)의 지역동창회에서 선출 평의원, 당연직 평의원, 종신이사 등이 참가한다. 참석한 평의원은 회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제 결정에 권한(투표권)을 행사한다.

1. 회계연도의 예산 및 결산 심의 인준
2. 다음 해 사업 계획 심의 인준
3.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편찬
4. 각 지역 동창회 '선출 평의원' 수 결정
5. 회원 회비 결정
6. 지역 동창회 신규 설립 승인
7. 모국 총동창회에 낼 각 지역 동창회 분담금 결정

8. 회칙 제정, 개정 또는 폐지
9. 이사 선임
10. 회장, 차기회장, 재무 위원장, 감사 선출
11. 회장이 위촉한 사무총장 및 후원회 부회장 임명 동의
12. 고문 추대
13. 명예 회원 승인
14. 본회의 중요사항 의결
15. 정책, 방침을 수행하기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

'선출 평의원'은 평의원 회의에서 각 지부의 전체 동문 수를 고려해 책정한 평의원 인원수에 맞게 해당 지부가 결정한 평의원을 말한다. '당연직 평의원'에는 전현차기회장, 후원회 부회장, 회보 편집장, 상임고문, 집행부 임원 및 전 사무총장, 감사, 분과 위원장, 단과대 미주동창회장 등이 포함된다. 모든 '종신이사'는 평의원 자격을 갖는다.

지난 제26차 평의원 회의에는 미주 9개 지부에서 선출 평의원 46명, 당연직 14명, 종신이사 8명 등 모두 68명의 평의원이 참가

했다. 2년마다 하는 회장단 인수인계, 차차기 회장 선거가 있었다. 평의원 회의는 매해 열리지만, 인수인계, 선거 등 특별한 이슈가 있는 해는 평의원 회의 참가율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다.

각 지부는 평의원 회의가 열리는 장소가 지리적으로 너무 멀어 쉽게 참석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 전체 동문 수가 작은 지부는 평의원 수도 적다. 규모가 작은 지부일수록 평의원 회의 참여율이 저조한 편이다. 미주동창회는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참여를 독려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윤상래 회장은 "유서 깊은 도시 보스턴에서 열리는 제27차 평의원 회의에 참여해 주신 각 지부 평의원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하고 "동문 개개인께서 더 큰 발전을 이루시길 기원하고, 이번 평의원 회의에 적극 참여하셔서, 26개 지부가 단합과 소통으로 내실을 다지고 외연도 넓히자"라고 말했다.

NON-PROFIT
US POSTAGE PAID
LANSDALE, PA
PERMIT No. 113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2018년 동창회비를 아직 납부하지 못한 동문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속히 동창회비를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년: \$75, 2년: \$150 / payable to SNUAA-USA)

SNU Alumni Association USA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이항렬 (법대 57)

논설 위원장

현재의 미국 정치제도는 1787년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헌법 제정 회의에서 채택된 신헌법에 의해 규정되었으며 미국은 1789년부터 연방공화국으로 출범하였다. 물론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것은 1776년이나 1789년 전까지는 13개 주가 독립된 나라와 같은 (Confederate) 제도로 존재하였다. 주 자체인 연합(Confederate) 제도하에서는 미국이 통일된 한 국가로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연방 공화제로 바뀌었으며, 비로소 미국인들은 중앙정부(Federal Government)를 자기 나라의 정부로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연방제(Federal System)라는 말은 중앙정부와 주 정부가 권력을 나누어 갖는 제도이며 공화제(Republic System)라는 말은 간접적인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즉, 각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그들 자신을 대표할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뽑아서 그들이 정치 결정을 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므로 미국 정치 제도는 연방 공화제이고 국가가 지향하는 정신적 지침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Capitalistic Democracy)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란 공산주의와 달리서 개인이나 사기업이 경제 생산에 중요 역할을 담당하고 민주주의란 국민들이 정부를 만들고 정부는 국민을 위한 국민의 기관으로 존재하는 정치제도를 의미한다.

미국은 영국의 식민 통치하에서 벗어난 그들 자신의 독립된 국가를 갈망하여 독립전쟁을 하였으며 자신들의 운영을 결정할 수 있는 민주주의 제도를 갈망하였을 것이다. 이런 자주 민주 정신을 미국인들에게 가르쳐준 사람은 영국의 철학자 존 로크(John Locke)이며 그의 주장으로는 민주주의를 실행하려면 첫째, 권력을 분산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예외 없이 독재자와 독재정권들은 모든 권력을 거머쥐었기 때문에 폭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로크의 주장을 뒷받침한 또 다른 정치철학자로 프랑스의 몽테스키외(Montesquieu)는 삼권 분립이 민주주의가 가능하게 할 수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

있다고 설명하였다. 즉 민주 정부는 행정, 입법, 사법으로 분리되어 서로 다른 부들의 권력과 힘을 견제하여야 한다는 소위 'Check and Balance' 논리를 제시한 것이다.

미국은 독립한 지 얼마 안 되는 나라지만 풍부한 자원과 의지 강한 이민자들이 힘을 합하여 백 년 만에 세계 강국으로 부상했으며, 20세기 초부터는 세계 초강대국으로 세계를 그 영향권 밑에 두게 되었다. 20세기 초부터 소위 Pax America는 세계를 지배하여 미국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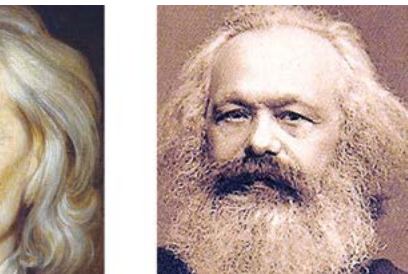
민주정치 제도는 많은 나라의 선망과 갈망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1차 대전과 2차 대전에 왕정과 독재국가들의 패배와 나치즘(Nazism)과 파시즘(Fascism)이 미국 민주주의의 정치제도에 패배하였으므로 민주주의가 더욱 빛나 보였다. 2차 대전 이후에는 자본 민주주의의 이위에 소련이 신통하는 공산주의가 자본주의 민주주의에 도전하였으나 1998년 소련이 붕괴하여 미국이 월등한 초대강국으로 군림하게 되었으며 많은 국가가 미국의 민주주의의 모델이 세계를 휩쓸었다.

그러면 민주주의 체제들은 서로 전쟁과 침략을 한 역사가 없기 때문에 세계는 평화와 번영이 지배하는 21세기를 맞이할 것이 아닌가? 불행하게도 민주자본주의가 승리한 21세기에도 서로 국익(National Interest)을 보호하려는 극단적인 애국주의(Chauvinism)와 과잉 종교 주의자(Christian, Muslim, Hindu, Buddhism, Judaism)들이 서로 공격하며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물론 대부분의 종교

신앙들은 평화와 인류애를 실천하지만 소수의 극단주의 신봉자들은 자기 종교만이 옳고, 자기 성전을 믿지 않는 자들을 적인으로 섬멸시켜야 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또한, 민주주의의 대표국가인 미국도 순수한 민주주의 신념을 많이 위반하였으며, 대다수 국민이 지지하는 정부가 아니라 소수가 돈과 권모술수와 꾀변으로 정부와 정치를 지배하는 다시 말해 돈으로 지배하는 정치제도 (Plutocracy)로 전락하는 것 같아 미국의 민주주의도 옛날 민주주의로 변형하였던 아테네(Athenes)의 멸망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암울해진다.

특히 2016년 대통령 선거 후, 많은 미국 시민들이 민주주의에 회의를 느끼게 되었는데, 현재 미국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분석해 보자.

첫째, 민주주의가 성공하려면 국민대표를 뽑는 선거제도가 자유롭고 공정해야 한다(Free & Fair Election). 2016년 대통령 선거는 너무도 부정적인 면이 많았으며 특히 러시아가 선거



에 영향을 미치려고 막대한 자금과 사이버 공격으로 민주당과 민주당 대표의 비밀을 도청하여 위키리크스(Wikileaks)를 통하여 발표함으로써 트럼프 후보를 도왔다. 아직도 몰러(Muller) 특별조사단이 러시아와 트럼프 선거단과 공모와 결탁이 있었는지 조사를 하고 있으며 미국은 완전히 이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었으며 트럼프 지지자와 반대자들도 서로 멸시와 증오감을 보인다. 또한 대통령이 된 트럼프는 너무 과장과 거짓말로 국민의 40% 정도의 지지를 받으며 자기가 러시아와 공모 결탁한 것을 조사하는 FBI를 무조건 음모설(Conspiracy)로 몰아 정국이 혼란에 빠지고 있다. 공화당 당원이었던 FBI 위원장 코미(James Comey)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배반자로 몰아 면직시켰으며 또 한 명의 공화당 당원인 몰러(Muller) 특별조사팀 위원장도 가짜(fake) 조사단이라고 본인과 조사 인터뷰도 거부하고 있다. 이분화된 미국 사회가 어떻게 건전한 민주사회로 남을지 알날이 불확실하다. 또한, 선거운동 동안 러시아는 미국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미국 시민이 특정한 선

거 후보를 찬성, 반대하는 것처럼 위장 선전하였으며, Cambridge Analytics 여론조사 회사는 페이스북(Facebook)에서 개인 비밀정보를 알아내어 선거운동을 하였다. 한국에서 드루킹이 한 것과 같은 흑색선전이다.

둘째, 민주주의 체제의 기본 원칙은 다수의 지배(Majority)가 성립되어야 한다. 현재 미국의 선거 제도는 돈이 지배하며, 공화당은 Koch Family, Murcer Family, Amway Family 등의 막대한 선거자금이 출마자 선출에 영향을 미친다. 근래에 있었던 대법원의 판결 (Citizens United v. FEC)에서 "회사(Corporate)들도 개인 투표자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의지대로 기부(Donate)할 수 있다"라고 판결을 하여 선거 자금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민주당 측에서는 소로스(George Soros)와 할리우드 스타들이 자금 동원에 나서고 있다. 이런 불공정한 선거제도 밑에서 소위 블루칼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트럼프의 내각을 보면 대부분이 억만장자들로 선거자금 동원에 많은 지원을 한 친구들이다.

셋째, 민주주의가 발전하려면 언론자유(Freedom of Expression)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 미국에 언론자유는 있으나 트럼프 정권하에서 언론 남용이 크게 확대되어 국민이 혼란과 기만 속에 빠져있다. 미국 아니 세계의 대표적 언론 뉴욕타임스(NY Times)와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를 트럼프는 가짜 뉴스 신문이라고 맹공격하며 그가 믿는 언론 매체는 폭스뉴스(Fox News)와 내셔널인콰이어러(National Enquire) 정도라니 왜 국민들이 혼란 속에서 서로 양분되어 중요하는지 이해가 된다. 정치지도자들에 대한 회의감을 종교지도자들도라도 해소해 주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evangelical leader들은 트럼프를 지지하며 그 의자 행각도 대통령이 되기 전에 했던 것이라고 용서를 한다. 그들에게는 세금면제와 자기 종교만 지지하면 어떤 사이버 정치지도자들도 지지할 것 같다.

이렇게 분열된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변형할 수 없으며,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가 존중하는 사회 가치(Social Value)가 결여되면 사회가 발전할 수 없다. 민주주의 사회는 서로 개인 존중(Respect for the Individual)이 있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미국 헌법에서는 "Life, Liberty & the Pursuit of Happiness"를 보장하는 것이 정부와 사회의 책임인 것이다. 민주주의 정치제도가 세계적으로 퍼져 인류가 평안하게 살게 되기를 바라며...

전 쉐퍼드 대학 국제정치학 석좌교수, 전 재미 한국정치학회 회장



박상준 (대학원)

‘블록체인’을 통한 전자 민주주의와 그다음

21세기 중반에 이르는 동안 사람들의 일상 생활은 혁명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다. 전자 화폐 기능에 충실했던 비트코인에 이어 다양한 기능 확장성을 지닌 이더리움이 등장하고서 일어난 일이다.

데이터가 여러 컴퓨터에 나뉘어 저장되는 블록체인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 권력이 쏠리는 현상이 점점 줄어들었고,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는 새로운 전자민주주의의 인프라가 조성되었다. 그 배경에는 블록체인에 기반한 인공지능의 활약이 컸다. 인공지능을 이루는 연산과 데이터 기능이 하나의 서버 컴퓨터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나누어져 있기에 누군가가 마음대로 인공지능을 조작하거나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세계 곳곳의 도시들이 스마트시티로 탈바꿈했고 더러는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획된 도시로 새롭게 탄생했다. 이들은 인공지능에게 도시의 운영과 관리를 사실상 일임했다. 애초에 도시 운영 매뉴얼 자체를 인공지능이 만들어 인간에게 주었다. 시장을 포함한 거버넌스 단위들은 인공지능이 제안하는 최적화된 시장 방침을 대부분 그대로 채택했다. '최적'의 개념에 대해 사람마다 견해 차이가 상당했지만, 그것조차 인공지능이 제시하는 최선의 조정안으로 해소되기 마련이었다. 사회적 낭비의 최소화와 복지를 포함한 개개인 삶의 만족도 극대화라는 인공지능의 원칙을 거스르기는 쉽지 않았다. 인공지능 자체를 거부하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산속의 정착촌으로 들어가 20세기형 생활방식을 고수했다.

이런 시스템이 순탄하게 자리 잡은 것은 아니었다. 블록체인의 약점을 파고드는 해커들의 공격이 끊이지 않았지만 언제나 대응책 및 방방책이 나왔고, 그런 과정이 거듭되면서 기술적 내성은 갈수록 탄탄해졌다. 게다가 어느 시점에선가 일부 정치인이나 재벌들이 해커들을 고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더 공고해졌다. 간단히 말해서 특정 집단들이 사회 전체를 좌지우지할 가능성은 급속도로 사그라들게 되었던 것이다. 권력이나 금액이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은 축소되었고, 어느덧 사람들은 인공지능의 평등 이념을 삶의 기본 조건으로 하는 환경에 익숙해지게 되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불길한 조짐이 불거졌다. 이전 시대에 비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던 사회 지표들에 조금씩 퇴보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범죄율이 다시 고개를 들었고 사고 안전 수치도 하향세로 돌아갔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삶의 만족도가 최고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를 유지, 관리

하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답을 내놓았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자 학자들은 정치인들과 머리를 맞대고 원인 분석에 골몰했지만, 결국 다시 인공지능에게 답을 구하게 되었다. 뜻밖에도 인공지능은 기다렸다는 듯 즉시 답변을 내놓았다.

-제가 분석하고 참고하는 대상은 인류가 이제까지 쌓아온 역사의 모든 기록, 그 거대한 빅데이터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정책들은 그 빅데이터를 통한 학습이 반영된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몇몇 거대한 전환점들은 기후 변화 등 외부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제 분석에 따르면 분명히 인간 스스로가 한계이자 결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인류 사회는 필연적으로 정체기를 거쳐 퇴보의 길을 가게 되고, 결국은 혁명적 변화에 대한 욕구가 높아집니다. 이런 패턴은 인공지능으로도 막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인간들의 두뇌가 저와 유기적으로 합체되는 것입니다. 즉 인간과 기계가 결합하여 사이보그 신인류로 거듭나면 됩니다.

-그러면 훨씬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져서 인류 역사는 질적인 도약을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인간에게 달렸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은 데이터의 분산이며 이를 통해 탈집중화되면서 더 안정된 여러 가지 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하다. 금융체계는 물론이고 각종 행정조직들이 대부분 이 기술을 통해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효율성에는 기존 시스템에서 예상되는 사고의 처리와 수습비용에 대한 예방 효과까지 포함된다.

무엇보다도 사회의 의사결정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댓글 조작 같은 여론공작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특정 포털에서 중복 아이디나 가짜 아이디, 그리고 자동생성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이용할 여지가 줄어든다.

블록체인은 애초부터 모두의 공동 참여 및 공동 감시로만 작동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이런 방향의 기술 발전이 계속되면 전자민주주의는 단순히 온라인 투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의 정확하고 최적화된 여론 반영이라는 이상적인 목표를 구현할 가능성이 높다.

그 단계를 넘어서면 결국 인공지능은 인간



김화진 (수학 79)

스탠퍼드가 하버드로 간 이유

인터넷에 이런 얘기가 돌아다니 적이 있다. 1880년대에 하버드대를 다니다 사고로 죽은 아들을 기림하기 위해 스탠퍼드(Leland Stanford) 부부가 하버드에 거액을 기부하려고 찾아왔다. 그런데 당시 엘리엇 총장이 부부의 행색이 남루하다는 이유로 만나주지 않았다. 부부는 할 수 없이 따로 스탠퍼드대를 설립하게 되었다.

이 얘기는 누가 꾸며낸(왜곡한) 것이다. 재미있기 때문에 절찬리에 퍼져나갔다. 그 때문에 학교 측에서는 홈페이지에 그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과 함께 입증 자료를 올렸다. 이 이야기는 한때 하버드에 대한 가장 핫한 질문(AQ) 리스트에 올라있었을 정도다. 스탠퍼드대도 홈페이지에 이 얘기가 사실이 아니라는 상세한 설명을 올려 놓았다.

하버드를 '동부의 스탠퍼드'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스탠퍼드가 신흥 명문 대학으로 자리 잡은 것에 비추어 보면 이 가짜뉴스가 하버드 입장에서는 매우 곤란한 것이다.

내가 학생일 때만 해도 하버드는 세계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노벨상 수상자도 157명으로 영국의 케임브리지대를 앞선 1위다. 그런데 최근 하버드는 여러 랭킹에서 스탠퍼드, 프린스턴에 추월당하기도 한다. 하버드의 전통적 강점인 생명과학 분야에서조차도 이웃 MIT가 무섭게 도전한다. 하버드라고 해서 혁신과 발전의 노력을 게을리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하버드를 필두로 한 미국 대학들이 세계의 교육과 연구를 주도하게 된 것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국력과 지정학적 파워가 부상하면서 같이 생긴 일이다. 그러나 지금 세상은 지정학적 파워 외에도 기술력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 반도체와 스마트폰의 실리콘 벨리가 지식과 기술뿐이다.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2017년 동창회비를 아직 납부하지시 못한 동문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속히 동창회비를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년: \$75, 2년: \$150 / payable to SNUAA-USA)

SNU Alumni Association USA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에게 위 이야기와 같은 제안을 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

서울SF아카이브 대표

목 차

※ 본 회보에 게재된 기고문은 회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회보에 게재된 취재기사 및 동문 글은 본 회보가 Copyright을 갖습니다.

- 제27차 평의원 회의, 보스턴에서 개막
- 기고: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 이항렬
- 기고: ‘블록체인’을 통한 전자 민주주의와 그다음, 박상준 / 스탠퍼드가 하버드로 간 이유, 김화진
- 신수정 27대 서울대동창회장 인터뷰, 정성희
- 기고: 영웅은 죽어서 탄생한다, 김형오
- 기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 1년, 백순 / 지리적 편중과 의식의 편중, 최인철
- 기고: ‘지구’의 날에 부쳐, 강금실 / 서울대와 서울대생, 존재의 이유, 채경옥
- 지부 소식: 뉴욕지역 동창회 / 워싱턴 주 동창회
- 지부 소식: 워싱턴 지역 동창회 / 휴스턴 동창회
- 지부 소식: 조지아 동창회 / 미네소타 동창회
- 지부 소식: 시카고 동창회 / 북가주 동창회 / 류정순 (생과대 69) 동문 세번째 개인전
- 제37회 탈북난민구출 음악회 / 켈리 프라이스 밴드 2018 Spring Concert / 김영 (수의대 63) 동문 Home Concert
- 남가주 미대 동창회 / 뉴욕 관악역 동문 초청 디너
- 세계 태권도 대부 이준구 대사행, 태계 / L. A. 시에서 본 노숙자 문제, 이서희
- 기고: 뜨는 평양 냉면, 민경훈 / 왕건의 길, 통일외 길, 이종호
- 기고: 상나라의 찬란한 청동기 Ⅱ, 최희관
- 미주 동창회 제27차 전국 평의원 회의 일정
- 기고: 워싱턴주 2018 5월 SNU Forum, 괴테의 문학과 그의 연인들, 장영태
- 기고: 워싱턴주 2018 5월 SNU Forum, 괴테의 문학과 그의 연인들, 장영태
- 기고: 어른을 위한 동화 소금 인형의 모험, 정홍택
- 기고: 비운의 화조(火鳥) 나혜석 (羅麗錫 : 1896-1948), 한수용
- 기고: 엔지니어링과 공부와 시, 김철
- 기고: Inca Trail 산행기, 민일기
- 기고: 영화 이야기 ‘타협’? 그게 뭐냐? 쿨하고 티프한 형사의 숨막히는 질주...!, 박준창
- 후원금 집계
- 동창회비 집계
- 동창회비 집계
- 미주 동문 엽소록
- 미주 동문 엽소록
- 제14대 미주 동창회 집행부 조직도, 2017 미주 지역 동창회 회장단 명단
- 광고
- 광고

신수정 27대 서울대총동창회장 인터뷰

“젊은 세대 목소리 들으려 88학번 부회장도 만들었어요”

27대 신수정(기악59-63) 총동창회장의 선출은 서울대인의 뉴스가 아니라 우리사회의 뉴스였다. 총장도 아니고 동창회장 선출 소식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며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드문 일이다. 1969년 총동창회가 생긴 이래 처음 여성 회장이 선출된 것은 그만큼 신선한 파격이었다. 생각해 보지 못한 카드였지만 뽀고 나니 너무 그럴듯한 카드였던 셈이다.

신 회장 본인을 포함해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인사였기에 이 인사는 ‘컬럼버스의 달걀’에 비유되기도 한다. “동창회장엔 여성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왜 못한 거지?” 총동창회장은 사회활동이 활발한 남자의 몫이라는 생각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의식 저변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라. 신 회장은 여성이라는 점 말고도 첫 예술인 출신이다 처음으로 다양한 연령과 전공을 가진 30명 추대위원회를 통해 선출됐다는 점도 이채롭다. 70대 중반이기에 회장단이 젊어졌다는 의미도 있다. 아직도 열렬하게 있는 신 회장을 동창회 사무실에서 만나 대화를 들어봤다.

- 제27대 회장으로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첫 여성 회장, 예술인 회장으로 동문들의 기대가 큼니다.

“제가 취임한 3월 26일은 베토벤이 타계한 날이라 쉽게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뜻깊은 날에 서울대 총동창회장에 취임하게 돼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전에 음악대학 동창회장을 6년간 했습니다. 이제 그 직책을 정태봉 명예교수가 선출되자 저는 짐을 벗었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다 보니 올대 동창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조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실수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동문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봐 여전히 잠도 못 이루고 있습니다(웃음). 하지만 제 능력보다는 시대적 흐름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 2년간 최선을 다하려고 할 뿐입니다.”

- 신수정 총동창회에서 가장 달라지는 점이 무엇일까요.

“임광수 회장님은 큰 빌딩을 지어주셔서 관악회 재정이라든지 기반을 닦으셨고, 서정화 회장님은 동창회 사무시스템 등을 잘 구축해 놓으셨지요. 제 역할은 이분들이 닦아놓은 기반 위에 동창회가 조금 더 인성적이랄까, 소프트웨어 등을 좀 더 발전시키는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40만 동창회원이라고 부르는데 가능한 한 많은 동창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요. 구체적인 아이디어는 계속 자문을 구하고 있어요. 모교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의견도 수집하고요. 많은 분들의 지혜를 구합니다.”

- 취임사에서 동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동창회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모교 출신 몇몇 인물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동



창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런 뜻 보다는 동창회를 단순한 친목단체가 아니라 공익의 가치를 실현하는 모임으로 탈바꿈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모교는 과거에도 미래에도 개인 의 영달을 도모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도

문화 이벤트로 젊은 동문 흡수

공익 가치 실현하는 동창회로

대담 : 정성희 (국사 82)

“임광수 회장님은 큰 빌딩을 지어주셔서 관악회 재정이라든지

기반을 닦으셨고, 서정화 회장님은 동창회 사무시스템 등을 잘

구축해 놓으셨지요. 제 역할은 이분들이 닦아놓은 기반 위에

동창회가 조금 더 인성적이랄까, 소프트웨어 등을 좀 더

발전시키는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움이 되는 사람을 길러내려고 합니다. ‘누군가 조국의 미래를 묻거든 눈을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고 하는 말이 왜 있겠습니까. 모교가 우리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사회적 기대를 생각할 때 서울대 졸업자 하나하나의 자성과 품격은 물론이거니와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동창회의 책무 또한 가볍다 할 수 없을 겁니다. 끼리끼리 모여 교분을 나누는 기존 동창회 이미지에서 탈피해 국가발전을 선도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창회라는 한계가 있는 만큼 거창한 것보다는 가령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공연을 개최한다든가 동창신문을 통해 세속적인 성공을 거둔 분들보다는 인류에 헌신하고 이웃에 봉사하는 삶을 사는 동문을 발굴하는 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동창회의 시급한 과제 중 하나가 젊은 동문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인데요.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요.

“저의 분야인 음악대학의 경우를 보면 서울대를 나와 유학해 박사학위까지 취득한 인재 중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참 많아요. 도움의 사각지대에 있지요. 예술 분야가 특히 그래요. 그런 재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런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제공하면 어떨까 싶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예술 영재들을 연결하는 복지사업이 될 수 있겠죠. 젊은 동문에게 서울대

지방과 해외 거주 동문에 대한 관심을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지방이나 해외에 있는 동문은 고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절감합니다. 새로 구성된 회장단과 함께 역할을 분담해 많이 찾아다니겠습니다. 관심을 표하고 애로 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동창신문을 통해 지방과 해외에 계신 동문들의 소식을 고정적으로 소개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모교는 지금 제27대 총장 선출로 분주합니다. 새로 선출될 총장이 학교를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바라십니까.

“모교가 법인과 됐지만 자율성이 늘어난 것보다 재정적 부담이 가중돼 법인화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재정 문제 해결과 아울러 학내 구성원 간의 소통에 더욱 신경을 많이 써주길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우수한’ 인재들을 받아들이어 ‘선한’ 인재로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서울대가 갈등은 최고 사회에 많은 공헌을 하는 학교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진다면 동창회로서는 더없이 기쁠 것입니다.”

- 1세대 피아니스트, 26세에 모교 최연소 교수 임용, 최초의 여성 음대 학장 등 회장님의 삶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 음악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피아노와의 인연

은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요.

“교육자였던 부모님께서는 어느 부모도 마찬가지로 자회 형제들을 위해 많은 희생 속에 살아오셨습니다. 아버지(신집호 행대원64졸)은 특히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셨어요. 육천여중 교장선생님으로 근무하실 때 학교에 구호물자로 받은 낡은 피아노가 있었어요. 어머니(김석태 경성사범39졸)가 학교 다닐 때 교사들이 일본 학생에겐 피아노를, 한국 학생에겐 오르간을 가르치는 등 차별을 받으셨대요. 그런 경험 때문인지 학교에 있는 피아노를 가르침 받게 됐습니다. 함께 시작한 동생 수희(화화62-66)는 그림에 재주 있다고 해서 그림으로 빠지고요.”

- 회장님의 프로필에 빠지지 않는 것이 제1회 이화-경향 콩쿠르 우승인데요. 625 전쟁 시기에 어떻게 콩쿠르가 열렸는지 궁금합니다.

“1952년이었죠. 당시 이화여고 교장이던 신봉조 선생님과 임원식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 예술교육의 선각자이셨죠. 그때 임시수도 부산에서 제1회 이화-경향 콩쿠르를 만들었습니다. 피아노 부문 응모자만 40명이 넘었는데 청주에서 신문을 보시고 아버지께서 신청하셨어요. 그때 1등은 바이올리니스트 김영옥의 누나 김덕주 씨였고요. 한동일, 이경숙 씨도 그때 함께 입상했습니다. 그 인연으로 부산 이화여중을 다니고 53년 학도 후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중학교 1학년짜리가 객지 생활이 힘들어 청주를 내려온 뒤에 한 달에 한 번 서울로 레슨을 다녔습니다.”

- 어릴 때부터 예술영재로서 자질이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로서는 드물게 피아노를 접할 수 있었던 건 부모님 덕이지만 어린 시절엔 바보였어요. 지금도 똑똑하지 않지만...(웃음). 사람들은 저더러 월반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일찍 학교에 들어갔어요. 부모님께서 교사이시다 보니 저를 맡길 데가 없어 여섯 살에 들어간 거죠. 나이 많은 급우들에게 놀림도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남보다 일찍 시작하다보니 빨리 끝내게 되었고 스무 살에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어요. 계속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했는데 다행히 오스트리아 가톨릭보편회 장학금을 받게 되어 음악의 도시 비엔나로 유학을 갈 수 있었습니다. 저더러 최연소 교수라고 하는데 최연소 교수라고 하면 몇 달 차이지만 국악과 이재수 명예교수가 먼저입니다. 음악대학에 여자 교수가 많고 여학생도 많은데 제가 2005년에야 여성 최초 음대학장이 되었어요. 음대 학장을 하면서 다른 대학과 본부와와의 관계를 맺게 된 것은 참으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니다.”

- 예술가는 괴짜여서 조직을 끌고 나가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훌륭한 예술가 가운데 괴짜가 많은 것은



김형오 (외교 67)

김 구, 절벽에 매달려 손을 놓다

1896년 초봄, 기울어져 가던 나라의 한 청년이 어느 날부터 여관에서 조선인으로 변장하고 두루마기 밑에 칼을 숨긴 일본인을 맨손으로 처단했다. 일인의 몸에서 나온 거금 800냥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 주라 이른 청년은 그 현장에 ‘황해도 해주 텃굴 김창수가 국모보수(國母報讐)를 위해 이 왜놈을 죽였노라’고 방을 써 붙였다. 국모보수, 바로 민비(명성황후)가 일본인들에 의해 무참히 시해되고 당시에는 시신도 찾지 못한 치욕과 분노의 사건(을미사변, 1895년)에 대한 복수였다. 이로 인해 전국에서 의병이 일어나고 나라가 온통 들끓었던 해다. 김창수는 김 구의 청년기 이름, 그의 나이 21세였다. 김 구는 일생의 스승이었던 유학자 고능선으로부터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그것도 더럽게 망한다”는 울분에 찬 훈시를 듣고 스승과 함께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 그리고 굳게 결심한다. 죽음으로써 나라에 보답(一死報國)하기로.

마침내 기회가 온 것이다. 그러나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는가. 수십 번의 망설임 끝에 김 구는 스승으로부터 각인된 평생의 경구(警句)를 되뇌며 최종 결심을 굳힌다. “절벽에선 붙잡은 나뭇가지마저 놓아버려라!” 그는 국모(명성황후)의 비참한 최후에 항거하는 조선인의 결기를 증명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던지기로 마음먹는다. 청년 김 구를 일약 전국적 인물로 만든 ‘치하포 의거’는 그렇게 탄생했다.

‘국모보수’는 안중근 의사가 그로부터 15년 후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처단하며 내세운 15개 이유 중 첫 번째였다. 을미사변은 그만큼 우리 민족에게 씻을 수

영웅은 죽어서 탄생한다

없는 치욕이었던 것이다.

이봉창, 죽음으로 영원한 쾌락을 얻다

“내 나이 31세, 그동안 온갖 쾌락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영원한 쾌락을 얻고자 선생을 찾아왔습니다.” 일본인 행색의 노동자 이봉창이 첫 대면에서 김 구에게 한 말이다. 그는 일본 천왕을 죽이겠노라는 결의를 밝혔고, 최소 1년의 준비 기간이 필요

1932년 4월 29일, 역사의 날이 밝았다. 윤봉길은 김 구가 미리 부탁해둔 동포의 집에서 “마치 새벽 일하러 가는 농부처럼” 아침밥을 든든히 먹는다. 그러고는 거사 자금으로 산 새 시계를 김 구의 현 시계와 바꾸자고

“... 반드시 사후(死後-事後)에 탄생한다는 것이다.

떡과 과일부터 챙기려 해서는 안 된다. 오직 나라의

안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죽을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 온몸과 온 마음을 던져야 한다.

그래야 영원히 살 수 있고 영웅도 될 수 있다.”

하다는 김 구의 지침에 따라 때를 기다린다. 이따금씩 자기가 공장에서 일하며 번 돈으로 끼니도 거르는 가난한 임시정부 직원들에게 밥과 술을 대접하면서.

그로부터 1년 후 첫 공작금이 이봉창에게 전해졌고, 며칠 지나 그는 김 구를 다시 만났다. “선생이 허물한 바지춤에서 거금을 꺼내 제게 줄 때 눈물이 나더이다. 상해 조계(租界)를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는 선생은 제가 이 돈을 아무렇게나 쓰고 달아나 버려

도 어찌지 못하겠지요. 내 평생 이런 신뢰를 받아보진 선생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이봉창은 도쿄로 가 천왕에게 폭탄을 던지고, 그해(1932년)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윤봉길, 역사의 시계바늘을 움직이다

“사나이가 뜻을 세워 집을 나서니 살아 돌아오지 않겠다(丈夫出家生不還).” 사랑하는 처자에게 이 글귀를 남기고 망명길에 오른 23세 청년 윤봉길. 그는 이봉창 의거?직후 김 구를 찾아왔다. 그가 채소 장수를 하던 상해의 홍구공원이 스스로 목숨을 던질 곳이 될 줄이야.

1932년 4월 29일, 역사의 날이 밝았다. 윤봉길은 김 구가 미리 부탁해둔 동포의 집에서 “마치 새벽 일하러 가는 농부처럼” 아침밥을 든든히 먹는다. 그러고는 거사 자금으로 산 새 시계를 김 구의 현 시계와 바꾸자고

“... 반드시 사후(死後-事後)에 탄생한다는 것이다.

떡과 과일부터 챙기려 해서는 안 된다. 오직 나라의

안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죽을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 온몸과 온 마음을 던져야 한다.

그래야 영원히 살 수 있고 영웅도 될 수 있다.”

하다는 김 구의 지침에 따라 때를 기다린다. 이따금씩 자기가 공장에서 일하며 번 돈으로 끼니도 거르는 가난한 임시정부 직원들에게 밥과 술을 대접하면서.

그날 홍구공원의 일본 천왕 생일 축하 및 상해사범 기념식은 윤봉길 의거로 인해 대한민국의 독립 투쟁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

가 된다. 미국인 피치 씨 부부 집에서 은신하던 김 구가 성명서를 발표할 때까지 윤봉길은 갖은 고문 속에서도 배후를 밝히지 않았다. 두 눈을 가린 채 형틀에 묶여 원수의 나라 하늘 아래에서 총살당한 그의 품속에는 나무 십자가가 동행했다.

새로운 시대, 누가 영웅이 될까

위 세 편은 ‘백범일지’를 중심으로 엮어본 것이다. 김 구와 이봉창·윤봉길, 이 세 사람은 서울 용산 효창공원 안에 묘소가 모셔져 오늘날도 지하에서 나라 걱정을 하고 계시다. 안중근 의사 가묘도 그 옆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전설적인 트로이 전쟁의 영웅, 반신반인(半神半人) 아킬레우스는 영원히 죽지 않는 편안한 길과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웅의 길 중에서 후자를 택한다. 그렇듯 영웅은 죽어야 하고, ‘영웅적 죽음’으로 생을 마감해야 비로소 영웅이 된다. 영웅 흉내내 내려 하거나 결과가 아닌 동기와 과정으로 영웅 대접을 받으려 해서는 일도 그칠 뿐만 아니라 평도 나빠진다.

바야흐로 남북 간에 새 시대 새 역사를 여는 영웅적(?) 대화가 시작됐다. 잘하면 한반도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세기의 영웅이 탄생할 수도 있겠구나 싶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웅은 반드시 사후(死後-事後)에 탄생한다는 것이다. 떡과 과일부터 챙기려 해서는 안 된다. 오직 나라의 안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죽을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 온몸과 온 마음을 던져야 한다. 그래야 영원히 살 수 있고 영웅도 될 수 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또 언제나 오는 것이 아니다. 왔을 때 전력을 다해 매진해야 한다. 지금이 그 기회이다. 그러나 그 앞에는 수많은 도전과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지난 시대를 되돌아보며 결코 ‘실패한 영웅’들의 전철(前轍)을 되짚지 말아야 한다. 자기희생과 헌신이 없는 성공도 못하고 영웅도 되지 못한다.

남북한의 평화 통일, 김 구 선생이 역설한 나라의 완전한 독립이 영웅들의 애국심과 희생적 노력을 불쏘시개 삼아 마침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꿈꾸어본다. (출처: 총동창회보)

라는 점이 다가왔다.

- 최근엔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스승으로 더 유명해지셨는데....

“인연이라는 게 알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은 더 엄격하지만 그때도 서울대 교수는 개인 레슨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성진 군을 소개받은 시점이 정년 후였기 때문에 그런 제약에서 자유로웠어요. 성진 군은 타고난 재능이다. 노력까지 더해졌고 무엇보다 태도와 성품이 훌륭해요. 말하고 싶은 건 성진이를 제가 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 내년에 동창회 창립 50주년입니다. 예술계에 인맥이 넓으셔서 뜻깊고 멋진 행사를 기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1969년 2월 12일 창립총회에서 고 박두병 초대회장 취임 이후 9명의 회장님들이 동문 화합과 모교 발전을 위

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이분들을 재조명하는 등 동창회 역사를 살펴보고 동문들의 의견을 수렴해 서울대동창회의 발전방향 등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장학금을 기부해주신 분들을 기리는 행사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제가 모을 수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적극 활용해 의미 있는 행사를 준비해 나가려고 합니다.”

창립 50주년에 회원 40만명의 거대한 조직으로 성장해온 서울대 총동창회는 다양한 시대적 요구에 직면해 있다. 여성 회장의 취임이 시대의 흐름이라면 그 흐름에 부응하는 것은 오롯이 그의 능력에 달린 일이다. 벌써부터 동창회에 기부가 늘고 있다니 ‘신수정 효과’가 시작된 듯하다. 이 상큼한 출발이 끝까지 이어지길 바랄 뿐이다.

(출처: 총동창회보)



백 순 (법대 58)
논설 위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5월 10일로 1년을 맞이한다. 국내적으로 촛불 혁명(?)을 기반으로 한 적폐 청산의 끈질긴 수행으로, 대외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책의 추진으로, 문재인 정부는 70%를 웃도는 국민의 지지를 받는 현실이다.

정치적으로, 그리고 외교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작년 5월 10일 정권을 인수한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경제는 어떠한 상황에 부딪혀 있는지 경제 정책적인 평가를 해 봄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경제적인 발전의 힘이 정치적 및 국제관계적 영향력 발휘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1년은 한 마디로 한국 경제계에서 '기대 이하' 및 '낙제점' 등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한국 경제의 현실이 더욱 우려되는 것은 2008-2009년 경제 대침체 (경제위기) 이후 세계 경제가 회복의 상승세를 끈질기게 이어오고 있는데 한국경제만 하락의 조짐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기대 이하' 및 '낙제점'인 문재인 정부의 경제 1년은 그 원인이 (1) 경기 면에서, (2) 산업 면에서, 그리고 (3) 취업 면에서,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경기진작의 면에서 침체의 초기 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이다. 얼마 전 한국의 기획재정부는 경기가 회복의 흐름'을 보여 주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청와대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경기가 침체국면의 초입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고 경고하였다.

통계를 보면, 작년까지 GDP 성장률이 3%를 웃돌던 것이 금년 들어 29%로 떨어졌고, OECD의 경기진행지수가 25개 국가 중 17위로 하락하고 있는 경기 현황이다. 한국경제연구소와 조선일보의 공동 조사에 의하면,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1년 전에 비해 '나빠졌다'는 수치가 28.8%로 좋아졌다는 수치인 18.9%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와 있다.

둘째 산업 성장의 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1년은 부진하고 있다고 하는 한국경제계의 목소리가 여기 저기에서 들려오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산업성장의 기본 통계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올해 들어 9년 만에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증권시장상장 기업들의 1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14.2%와 19.6%로 하락하고 있음은 지금

세계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의 이익이 상승세를 이루고 있는 현상에 비추어 한국의 기업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산업 성장과 관련해서 한국경제 성장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수출이 근래 좋은 징조를 보여주고 있지 못함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1년의 실적을 평가하는 데 결정적인 지표가 된다고 할 수 있겠다.

올해 4월 한국의 수출은 18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하였고, WHO의 발표에 의하면 2017년 15.8%의 증가로 1위를 차지하였는데, 금년 1/4분기의 실적은 10.1%의 증가로 8위로 떨어지고 71개국 평균수출 성장률인 13.4%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취업확장의 면에서 지난 1년간 그리 바람직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 정부 출범 때부터 27가지의 경제정책을 내세워 추진해 왔다. 하나는 (1) 소득주도성장과, 다른 하나는 (2) 기술혁신성장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경제는 기술혁신성장보다는 소득주도성장에 경제정책의 무게를 크게 두고 있었음은 촛불혁명(?)의 주체 세력인 청년 일자리의 창출이 문재인 정부 출범의 시발점이 되기 때문인지 모를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간 소득주도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그리고 법인세인상 등의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 결과는, 3월 실업률이 17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 특히 청년실업률은 10%를 상회하고 있는 현상이다. 다른 통계를 보면, 4월 고용취업자가 1년 전 보다 12만 명 정도만 늘은 것은 지난해 20만 명 내지 30만 명 증가한 실적에 비하면 그 반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는 취업의 어려움이다. 한국경제연구소와 조선일보의 조사는 취업이 1년 전에 비해 나빠졌다고 답한 수가 51.8%의 높은 수치를 보여 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1년이 나타내고 있는 경기침체, 산업부진, 취업문제 등을 탐색하면서, 경제 원론적인 경제정책의 평가와 추천을 하고자 할 것 같으면,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를 선도하는 경제정책,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가정신을 고취하는 산업정책, 그리고 취업확장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을 크게 개방하는 노동정책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전 미국 노동성 선임경제학자
워싱턴 버지니아 대학교수



최인철 (사회대)

부자들은 남들도 부자인 줄 안다. 그래서 밥이 없으면 빵을 먹으라고,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고 친절하게 조언한다.

체력이 좋은 사람들은 남들도 체력이 좋은 줄 안다. 그래서 쉽게 피곤해지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다. 의지가 박약하기 때문이라고 면박을 주기도 한다. 이런 사람들에게 나이 들어가는 것이 좋은 한 가지 이유는 비로소 체력이 안 좋은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병을 공유해야만 심정을 공유할 수 있는 법이다. 코카콜라를 좋아하는 사람은 남들도 그런 줄 안다. 그래서 펩시콜라를 좋아하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공부 못하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다. 개를 키우는 사람들은 남들도 개를 좋아한다고, 아니 좋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듯 자기중심성 리스트는 끝이 없다.

인간은 자신이 세상의 보편적 존재라고 믿고 싶어 한다. 자기의 생각, 기호, 가치, 정치적 성

“많이 가진 자, 높이 오른 자, 많이 배운 자들끼리 평생을 어울려 산 사람

은 아무리 그 사람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시선을 지녔다 하더라도..”

향이 지극히 상식적이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널리 공유되어 있다고 믿고 싶어 한다.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돼?” 하면서 의견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행위는 정상성(正常性)에 대한 강렬한 욕망의 표출이다. 상식을 들먹이는 이유도 상식적인 나라 비상식적인 소수를 구분하기 위함이다. 이 세상은 나를 포함한 상식적인 다수와 비상식적인 소수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는다.

정성과 상식적 인간에 대한 욕망은 관계 편중성에 의해 확대 재생산된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어울리고 자기들끼리 그룹과 외를 한다. 잘생긴 사람들은 잘생긴 사람들끼리 어울려 다닌다. 선거 때마다 당선 가능성이 희박한 후보들이 난립하는 이유도, 각자의 주변에는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만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들도 자신을 지지하는 줄로 착각하기 쉽다. 개표 후에 생각보다 표가 안 나왔다고 놀라는 후보는 많아도, 생각보다 표가 많이 나왔다고 놀라는 후보는 언제나 드물다. 우리의 생각이 잘 바뀌지 않는 이유는 주변 사람들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의견이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가 어울리는 사람들이 바뀌었는지를 확인해보는 것이다. 아직도 그때 그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면, 그의 생각은 아직 그대로인 거다.

관계 편중성은 지리적 편중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부자들은 부자 동네에 모여 산다. 대학 캠퍼스에는 최소한 대학 재학 이상인 사람들이 모여 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 동네에 사는 경우가 드물고, 고졸자가 대졸 이상의 고

지리적 편중과

의식의 편중

학력자들과 한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일은 흔치 않다. 관계의 지리적 편중성은 필연적으로 의식의 편중성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는 이유는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리기 때문이고, 자기와 비슷한 사람과 어울리는 이유는 그들과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기 때문이다.

지리적 편중과 관계적 편중, 그리고 그에 따른 의식의 편중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 구태여 그것을 부각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 가지 이유는 관계의 지리적 편중이 가져오는 의식의 편중이 세상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와 욕망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부자들은 남들도 부자라고 생각하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이 먹고 살 만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의 재분배를 위한 노력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극복을 지키기 위한 욕심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세상을 보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이다.

“많이 가진 자, 높이 오른 자, 많이 배운 자들끼리 평생을 어울려 산 사람
은 아무리 그 사람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시선을 지녔다 하더라도..”

많이 가진 자, 높이 오른 자, 많이 배운 자들끼리 평생을 어울려 산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시선을 지녔다 하더라도, 세상을 보는 시각이 편중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인간의 격(格)이란, 관계의 편중성이 가져오는 의식의 편중성을 인식하고,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에 있다. 일부러 부의 수준, 교육 수준, 인종, 성별이 다른 사람들과 자주 교류하려고 하는 사람, 다양한 모임 속에 자신을 집어넣어서 관계 편중성으로 인한 의식의 편중성을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이 품격 있는 사람이다. 의도적으로 자신의 지리적 한계를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이 멋진 사람이다.

관계의 지리적 편중과 의식의 편중을 문제 삼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인간을 바꾸는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사람이 바뀌기 위해서는 만나는 사람과 삶의 공간이 바뀌어야 한다. 결심만으로 자기의식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현대 경영의 구루이자 사상적 리더인 오마에 겐이치 역시 인간을 바꾸는 세 가지 방법으로 공간을 바꿀 것, 만나는 사람을 바꿀 것, 그리고 시간을 바꿀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대한민국에서 삶의 지리적 공간을 바꾸는 일은 고작 부동산 투자나 자식 교육을 위한 삼천지교로만 치부되고 있다. 지리적 공간을 바꾸는 일이 자신이 접하는 사람을 바꾸는 일이고, 그것을 통해 의식의 지평을 넓히는 일이라는 인식이 생겨나길 기원해보자. 집을 사기 위한 좋은 시기란 집값이 떨어지는 시기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싶을 때여야 한다.



강금실 (법대)

4월 22일은 '지구의 날'이다. 지구의 날은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바버라에서 발생한 해상기름 유출사고를 계기로 1970년에 미국 위스콘신주 상원의원 게이로드 넬슨이 주창했다고 한다. 첫해에는 하버드대생 데니스 헤이즈가 앞장서 주도했던 지구의날 기념 행사에 미국인 2,000만명이 참석해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 첫해의 기념행사는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의 '유엔 인간환경회의' 개최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환경이슈가 커지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 때문에 그 후 20년 가까이 개최되지 못했다.

1990년에 이르러 제2차 기념행사가 열리면서 세계적으로 확산됐다. 그해에 우리나라에서도 가톨릭 단체와 민간환경단체들이 기념행사를 개최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지방자치단체들도 기념행사에 나서고 있다. 요즘에야 '지구의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해서 누가 반대하는 일도 없고, 별로 관심받는 화제가 되지도 못한다. 그렇다고 해서 기념일이 퇴색될 정도로 환경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지구의 지질학적 변화는 초래할 정도로 생태위기가 심각해졌다는 지적과 이와 관련된 정보가 쏟아져나오고 있다.

노벨 화학상을 받은 네덜란드의 화학자 크뤼첸(Paul Crutzen)이 2000년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를 지질학적으로 신생대 제4기 홀로세(마지막 빙하기 후)를 대체해서 '인류세(Anthropocene)'라 부르자는 제안을 했다 한다. 인류가 지구의 전 범위에 걸쳐 끼친 영향은 지구의 변형을 초래한 지질학적 변화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최근에 인류세는 지질학의 공식용어로 채택할 것인지가 검토될 정도로 상당히 일반화된 개념어로 통용되고 있다.

홀로세는 신석기시대가 시작되고 인간이 지



채경욱 (경영 86)

최근 몇 차례 서울대 경영학과 후배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할 기회가 있었다.

거의 30년 이상 격차가 나는 후배들과 대화를 하면서 세상이 많이 변한 것 같으면서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적지 않구나 새삼 느꼈다. 치열한 입시경쟁을 뚫고 최고 대학 최고 학부에 입학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과연 내 길인가' 방황하는 모습이 그렇고 로스쿨(고시), 취

‘지구의 날’에 부쳐

구환경을 바꾸는 농경생활이 시작된 시기이다. 자연스럽게 간다면 5만년은 더 존속할 수 있다고도 한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결정적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부터를 새로운 지질학적 시대인 인류세가 시작된 시기로 보고, 이 시기는 닭이 대규모로 사육되기 시작한 때여서 인류세의 표준화석은



달뻣아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한다. 방사성물질, 플라스틱, 알루미늄, 콘크리트 등 '기술화석(technofossils)'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물질이 퇴적층에 쌓이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며 대규모 쓰레기매립장이 전 지구적으로 나타난 시기이기도 하다. 기후변화로 해수면의 높이도 크게 상승했으며, 전설, 실존, 순환에 변동이 일어났다. 그 속도가 사상 유례없이 빠른 것도 특징이다. 기후변화도 지구 평균온도가 섭씨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는 선에서 막아보자는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인데, 그 선을 넘어가면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구의날이 처음 제정된 1970년 무렵은 1962년에 살충제 DDT의 유해성을 경고하는 레이철 카슨의 <침묵의 봄>이 출간된 이후여서 이 문명이 초래할 생태파괴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지기 시작한 때였다. 특히 첫해의 지구의날 기념행사가 사상 최대 규모로 번진 배경에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베트남전쟁에 대한 반전운동과 68혁명, 히피 등의 반문명운동이 전반적으로 거대한 흐름을 이룬 시대였던 데에 이유가 있는 것 같다. 현재의 과학계 논의대로라면, 인류세가 본격화된 시기이기도 하다. 이렇게 돌이켜 보면, 지난 5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인류세로 지칭되는 지구의 지질학적 변화는 심화되고 있다. 2015년에 이르러 유엔이 지속가



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한 것과 기후변화억제를 위한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지난 시기에 꾸준히 이어져온 생태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지난 시기에 대규모 반문명적 저항이 있었던 분위기에 비해보면, 인류세가 거론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대한 인식과 대처방안으로서는 매우 미약하고 미흡하다는 실감이 든다.

산업문명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석유를 발

견해서 석유화학제품을 사용하게 된 것이 번영을 가져온 결정적인 원인이었고, 석유는 지구상의 생명이 죽어 땅속에 축적된 것이니, 결국 지구 안에서 지구 덕분에 우리가 잘 사는 것임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공동의 집 지구에 초래한 위기에 둔감해진 원인은 지구와 못 생명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더 주의하고 절제할 수 있는 균형감각이 마비되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은 지구중력에 적응진화한 인간의 몸을 무중력상태에 유지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의 힘을 입혀 우주로 띄워보내며 우주여행과 화성이주를 거론하는 시대이다. 인간의 위대하고 놀라운 도전능력이 무엇이트 다 해결해온 만큼 지구에 대해 특별히 겸손할 필요가 없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러한 태도 안에는 세계를 움직여가는 인간의 생각이 있는데, 지구와 우주를 물질로 파악하는 것이다. 그래서 생태위기에 대한 처방도 물질에 대한 관리와 조절통제의 범주를 벗어나기 어렵다. 지구에 대한 감사와 겸손이란 것은 이러한 세계관 안에서는 들어설 자리가 없기에 생태위기에 대한 해법을 논의한다는 것은 항상 주변적이며 다양한 위기 중의 한가지로 인식될 뿐, 생각의 근본 안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한 함정이라는 각성이 어려워진다.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생각하기 전에 삶을 가능하게 하고 풍부한 자원을 제공하여준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먼저 생각해야 할 때다. 지구가 단순한 물질로 지워져버린 산업문명시대의 왜곡된 세계관을 대체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장과 각성이 수반된 균형 잡힌 체계론이 필요하다고 여겨지지만 아마도 대전환의 어떤 계기가 주어져야 가능할 것 같다. 스스로를 지구학자로 자처했던 토머스 베리(1914~2009)는 “공포와 매혹”이라는 표현을 썼다. 우리를 다른 문명으로 추동하는 힘은 공포스러운 상황을 면하려는 것이든지, 아니면 지금보다 더 선택의 매력을 느끼게 하는 생활패턴이 주어질 때에 작용할 것이라는 말이다. 사실 산업문명도 “공포와 매혹”의 두 측면을 지니고 있다. 현재로서는 환경 문제나 빈곤 문제와 차별 등 어두운 측면들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이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매혹이 훨씬 더 강렬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 두 가지의 심리와 그것이 반영된 현실의 간극 사이에서 만전이 일어나는 날이 머지않아 다가올 수도 있다.

전 법무부장관

은 선택지 안에 갇혀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불행한 일이다.

서울대와 서울대생,

존재의 이유

업(공기업 혹은 대기업), 대학원(유학)의 세 갈래 길이 대체로 앞에 놓여있는 선택지의 전부라는 현실도 30여 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30여 년 전만 해도 그다지 인기가 있거나 최우선 순위가 아니었던 대기업들이 지금은 '신의 직장' 수준이 돼 있다는 것 정도였다.

서울대생들의 진로와 사고의 폭이 이처럼 좁

최근 20년간 세계경제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혁신의 중심이 대학이 됐다는 점이다. 대학생들의 창업이 적극 권장되고 있고 대학생 스타트업이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기업)으로 성장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그런데도 서울대생들의 진로 고민 속에 창업은 거의 고려되지 않는 듯하다. 실제로도 2016년 서울대 학생들의 진로의식 조사에서 창업을 1순위로 희망한 비율이 3.4%에 불과했다. 창업 기피 혹은 창업 공포가 심각한 셈이다.

학교에서는 나름 미국의 실리콘밸리, 중국의 선전 등을 방문하는 계절학기 프로그램이나 고시촌이 밀집해 있던 녹두거리에 서울대 스타트업 캠퍼스 '녹두zip'을 여는 등 학생들의

창업정신 고취를 위해 애쓰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도 별 성과가 없는 것은 아마도 학생들이 서울대에 들어오기 위해 중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는 방식, 서울대가 학생들을 선발하는 방식, 뽑아놓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방식이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한국은 하루하루 뒤처지고 있다. 지금 상태라면 누가 조국의 미래를 물려라도 손들어 관악을 가리키기가 먼구스러운 상황이다. 서울대와 서울대생의 경쟁자는 국내의 몇 대학이 아니다. 미국 영국 중국에서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을 배출해내고 있는 대학과 기업가들이 경쟁자다. 서울대와 서울대생 모두 근본적인 인식의 변혁, 사고의 대전환을 통해 존재의 이유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출처: 총동창회보, 매일경제신문 주간부국장, 총동창회보 논설위원]



뉴욕지역 동창회 춘계 장학기금모금 골프대회

뉴욕지역 동창회(회장 이대영)에서는 지난 5월 30일 뉴욕시 브롱스에 위치한 펠햄 베이(Pelham Bay) 골프코스에서 2018년 춘계 장학기금 골프대회를 개최하였다.

모처럼 찾아온 청명한 날씨에 골프코스 상태도 좋아서 이날 참가한 45명의 동문들과 배우자들은 즐거운 골프 라운딩을 하였으며, 골프장 부근의 시티 아일랜드(City Island)에 있는 유명 시푸드 레스토랑에서 푸진한 디너와 많은 부상이 안겨진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의 골프대회 입상자는 [참조 1]과 같다.

그리고 이대영 회장은 캘러웨이 방식으로 채점하여 15등까지 부상을 수여하였고, 참가자 전원에게 골프공을 증정하였으며, 지난 1년 간 동창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한 모든 동문들과 임원진의 협조와 노고에 찬사를 표하였다. 한편, 김창수 장학위원장은 이날까지 1만 9,900 달러의 장학금이 모금되었음을 알리면서, 골프대회에 참가한 동문들과 장학기금 모금에 동참한 동문들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였다.

[기사제공: 김창수 논설위원 및 뉴욕지부 장학위원장, [사진제공: 강교숙]



[참조 1]

▲메달리스트: 김광수(공대 72), ▲챔피언: 조황환(치대 65), ▲1등: 김익성(상대 53), ▲근접상: 진봉일(공대 50), ▲장타상: 강에드(사대 60)



2018 장학기금 기부자 명단		김광현 (미대 57)	400	윤현남 (공대 64)	200
미주재단	\$2,500	김문경 (약대 63)	500	이대영 (문리 64)	1,000
약대 동창회	1,500	김종율 (사대 51)	300	이재원 (법대 60)	200
익명	1,000	김정수 (약대 64)	1,000	이천구 (농대 60)	1,000
간호대 동창회	300	배명숙 (생과 73)	200	이준행 (공대 48)	1,000
		성기로 (약대 57)	500	정해민 (법대 55)	500
		손경택 (농대 57)	500	조상근 (법대 69)	300
강에드 (사대 60)	300	송용길 (대원 69)	200	최수용 (상대 55)	2,000
곽선섭 (공대 61)	300	신용남 (농대 70)	1,000	최한용 (농대 58)	500
곽승용 (의대 63)	500	오인석 (법대 58)	1,000	최형우 (법대 69)	100
김광수 (공대 72)	100	유무영 (공대 66)	1,000	합계	\$19,900

워싱턴 주 동창회 5월 SNU 포럼 개최



워싱턴주 동창회 시니어 클럽(회장 김재훈)이 주최하는 5월 'SNU 포럼'이 지난 12일 벨뷰 뉴포트웨이 도서관에서 열렸다. 독일문학 전공자로 홍익대 교수와 총장을 지낸 장영태 (위사진 오른쪽) 박사가 강사로 나와 불후의 문호인 '괴테와 그 여인들'을 주제로 문학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냈다. 지인을 방문하고 로키산맥 등을 관광하기 위해 시애틀을 방문했다가 'SNU 포럼'에서 '괴테와 그 여인들'을 주제로 문학이야기를 풀어냈다.

장 박사는 이날 아이큐가 210으로 알려져 있는 천재 작가 괴테, 그리고 그가 사랑했던 여인들은 물론 그 여인들의 영향으로 탄생된 문학작품 등을 '체학과 문학'이란 큰 틀의 주제로 설명했다.

평민 출신이었지만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괴테는 남자 친구는 거의 없고 무수한 여인들과 사귀면서 사랑에 대한 글을 남겼다.



그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괴테와 사귀었던 여인들도 함께 연구를 해야 괴테와 그의 작품을 이해할 수 있다고 했을 정도다.

장 박사는 이날 괴테의 시 등을 낭송하면서 그의 문학 작품의 배경이 됐던 시대와 생활 배경 등을 자세하게 설명해 참석자들이 작품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한편, 이번 6월 세미나는 현재 University of Washington에 교환교수로 와 있는 국민대 강윤희 박사가 구 소비에트연방(소련)이었던 코카서스 3국으로의 여행을 주제로 각국의 역사와 문화를 중심으로 강의를 한다. 코카서스 3국은 서아시아 코카서스 산맥에 위치한 세 나라로 조지아Georgia (옛, 그루지야 Gruzija), 아르메니아 Armenia, 아제르바이잔Azerbaijan을 지칭한다.

코카서스 3국은 아름다운 산과 바다, 호수

를 가진 멋진 곳이지만, 예로부터 러시아, 이란, 터키 등의 주변 강대국의 침입을 끊임없이 받았던 불운의 역사를 가진 나라다.

이들 3국은 19세기 초 러시아 제국의 영토가 되었고, 러시아 혁명의 혼란기에 잠시 각국은 독립했으나 1922년 소비에트 연방 결성때 자캅카스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소련을 이루는 하나의 단위로 통일되었다가, 1936년에 각각 그루지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아르메니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아제르바이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별개의 소비에트연방 공화국이 되었다.

지리상으로는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인 코카서스 산맥에 위치하여 아시아로 분류되지만, 문화적, 종교적, 역사적으로 서아시아보다는 동유럽에 더 가깝고, 종교적으로도 조지아는 동방정교(東方正敎), 아르메니아는 아르메니아 정교(正敎), 아제르바이잔은 이슬람교이다.

1991년 소비에트연방(소련)의 해체로 각기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으로 독립하였지만, 이들 국가는 여전히 러시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러시아와 유럽 사이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이들 코카서스 3국에 대해 이번 세미나에서는 각국의 역사와 문화를, 주요 도시와 주요 유적지를 중심으로 소개하면서 이들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재의 문제점들을 짚어본다.



강윤희 (외교 84)

6월 강연자

2018 SNU 포럼 발표 예정자:

- ▶ 5월 - 장영태 박사 (전 홍익대 총장, 독문학교수): 체학과 문학 - 괴테의 문학과 그의 연인들
- ▶ 6월 - 강윤희 박사 (국민대 교수, UW 교환교수, 위 사진): 구 소련연방 코카서스 3국 (Georgia, Armenia, and Azerbaijan)의 현재와 미래
- ▶ 7월 - 정재현 박사 (UW 기계공학과): 나노 센서의 연구개발 현황과 응용분야
- ▶ 8월 - No Seminar (due to conflict with Summer Picnic)
- ▶ 9월 - TBD
- ▶ 10월 - TBD
- ▶ 11월 - TBD
- ▶ 11월 (강의 및 종강 파티 장소) - TBD
- ▶ 12월 - No Seminar (due to conflict with General Meeting and Year-End Party)

2019 SNU 포럼 발표 예정자:

- ▶ 1월 - 박기용 교수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현대 영화산업의 첨단 영상 제작기술



워싱턴 지역 동창회 가족나들이

Washington 지역 동창회(회장 안선미)에서는 5월 5일 Potomac, MD에 있는 Carderock Recreation Area Pavilion 에서 "가족 나들이" 피크닉을 가졌다. 꽃피고 새잎이 돋는 아름다운 계절에 서울대 동문 가족들이 야외에서 함께 식사도하고, 담소도 나누며 세대 간

의 간격을 아우르는 모임이었다. "가족나들이"를 준비하는 중 비가 온다는 예보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지만, 피크닉하기에 아주 좋은 날씨였다.

이번 피크닉에는 2000학번대의 동문들이

많이 참석하였다. 위로는 49학번의 변만식 전 회장님으로부터 16학번의 손민지 후배까지, 67년간의 서울대인 한 자리에 모인 셈이다. 어린이들이 맑은 웃음소리를 내며 뛰노는 것을 즐기는 사이에, 젊은 동문들의 수고로 푸짐한 점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특히 감사한 것은 Washington DC 의 Florida Market 에서 meat wholesale (US Beef) 과

northern Virginia에서 큰 supermarket (LAMart)을 경영하시는 조기중 사장님 (오재환 동문의 고등학교 선배님)이 저희 "가족나들이" 피크닉을 위하여 맛있는 양념불고기와 양념돼지불고기를 회사에 주셨다. 조 사장님은 저희 동창회의 큰 사업들의 하나인 "자선음악회"에 제1회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후원해주신 분이다. 조 사장님의 저희 서울대 워싱턴 지역 동창회에 대한 지원과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지난 "년말잔치"때 받았던 wine를 잘 간직했다가 오늘 점심의 반주로 하니 금상첨화였다. 식사 후 특별한 곳(?)에서 제조된 과자류와 후식, 다방커피(?)도 마시며 담소를 나누다보니 어느새 집에 갈 시간이 다 되었다. 헤어지기 전에 함께 모여 전체 기념사진도 찍었다. 시간이 많이 지났건만 모두들 아쉬워하며 헤어졌다.

임원들의 숨은 봉사와 2000학번 동문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뒷장리도 깔끔히 신속하게 처리하니 즐거움 피크닉이 되었다.

참석해주신 모든 선후배님들, 그리고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오신 후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사제공: 안선미 회장]



휴스턴 동창회 2018 장학금 시상식 개최

휴스턴 동창회(회장 구자동)는 지난 15일(화) 오후 7시에 서울 가든에서 50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세민 학생을 비롯한 13명의 휴스턴 지역 학생들에게 '김동수 Academic' 등 13개 선발 분야에 각각 1,000불씩 총 13,000불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시상식을 가졌다.

사회자인 경우진(92학번) 총무는 "서울대 동창회의 장학금 사업은 92년 4명으로 시작해 현재까지 27년동안 발전해 왔으며, 그동안 선배 동문들의 지속적인 후원이 있어서 가능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경 총무는 "휴스턴 동창회의 장학금은 지난 92년 4명으로 시작해, 2012년 9명, 2013, 14, 16년은 12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2017년에는 11명에 장학금을 지불했다. 올해는 지난해 휴스턴에 거주하는 서울대 동문 중에 하비 수재 피해자들이 있어 서울대 동창회에서 전달한 수재후원금을 후대를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한 선배 동문들이 있어서 2

개 구좌가 늘어난 13개 구좌의 장학금을 지불할 수 있었고, 훌륭하고 역량 있는 휴스턴 지역의 후대 학생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고 경과보고를 했다.

구자동(상대 77) 회장은 "올해로 27회째 시행하는 서울대 동창회 장학금 시상식은 오랜 전통을 가진 수상자들이 자부심을 가져도 좋은 행사이다. 지난 27년동안 장학금을 마련해준 동문 선, 후배들에게 감사하고, 후학양성에 힘을 보태준 선배분들과 만찬을 준비해준 동문들에게도 감사하다"면서 "오늘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은 서울대 로고에 있는 라틴어인 '진리는 나의 빛'(VERITAS LUX MEA)이라는 명제처럼 대학 캠퍼스로 가서 자신이 꿈꾸는 것을 크게 만들고, 자신과 주위에 빛을 만들어 주기를 바라며 부모님들도 학생들이 주위와 더불어 살아가는 빛을 만들도록 자녀들을 격려해주기를 바라며, 부모님들에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러 초대 이사장을 맡았던 조시호(문리대 59학번) 동문도 "2018 휴스턴 동창회 장학금 시상식에 참여해 준 동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장학생들에게 축하를 전한다"며 "올해는 서울대 동창회가 더 많은 장학금을 수상할 수 있게 노력해준 구좌를 기부해준 여러 동문들에게 감사하며, 특히 서울대 미주동창회에서 우리 휴스턴 동창회에 지난해 하비 수재를 극복하기 위해 힘쓰는 노력을 축하하는 봉사상을 보내왔다. 수상의 영광을 갖게 된 것은 지역사회에 공헌해온 구자동 회장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본다"며 박수를 보냈다.

유인숙(약대 76) 장학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92년 4구좌로 출발해 올해 13개 구좌의 장학금을 줄 수 있게 도움을 준 선배와 이사

들의 도움에 감사하며, 장학금을 수상한 학생들도 훌륭하지만,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도 수상을 못했지만 훌륭한 학생들도 많았다"고 밝히고 "올해의 경우 많은 학생들의 지원 내역과 메일을 장학위원들이 꼼꼼히 읽어보고 평가와 점수를 환산했다. 이번에는 동창회에서 제시하는 장학기준보다 월등한 수준을 가진 지원자들이 많아 선발 경쟁이 치열했다"고 말하고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과 자부심을 가지고 더 좋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격려했다.

장학생 수상자 대표로 나선 김준용(Jun-Yong Kim, Seven Lakes HS) 학생은 진기주 Academic에 선발됐는데 "Harvard에 진학할 예정으로 서울대 장학생으로 선발돼 기쁘다"고 인사하며, "어려운 이민 생활 속에서도 미국사회 여러 분야에 성공하시어 2세들을 격려하고 사회에 기여해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선배님들과 어르신들처럼 좋은일을 하며 살아가겠다. 장학금을 미래를 위한 투자로 생각해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며 생활하겠다"고 말했다.

강영빈 Memorial에 선발된 경규아(Claire Kyoung, Seven Lakes HS)학생은 "서울대 동창회 장학금을 받게 되어 선배, 어르신들이 주시는 따뜻한 말과 장학금이 위로가 된다. 의사 혹은 변호사가 되는 학생도 있지만 Vanderbilt에 진학해 바이오메디칼 분야를 공부하면서 후원해준 선배와 어르신분들께 실망스럽지 않은 학생, 후배가 되겠다. 세상의 빛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며 장학금을 제공해준 서울대 동창회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후 장학금 수상자의 감사인사에 이어 서울대 동창회 장학금 시상식에 참석한 동문들과 수상자들은 단체사진을 촬영하며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제공: 구자동 회장]]



조지아 동창회 봄 야유회 개최

조지아 지부(회장: 하지영)는 인동꽃 향기 가득한 2018년 5월 6일 포트야고 주립공원 (Fort Yargo State Park)에서 봄 야유회를 열었다. 316번 도로 중앙분리공간(median strip)의 녹지에서 붉은 감사 한복 치마자락처럼 팔락이는 양귀비꽃들과 흰깨 노란깨를 뿌린 듯 피어난 길가의 들꽃들이 동문들을 만나러 가는 마음을 들뜨게 했다. 마침내 포트야고 공원으로 들어서자 상쾌한 봄바람이 이마를 간질이고, 햇빛에 반짝이며 잔물결을 일으키는 호수와 연초록빛 숲이 어서 오라고 손짓했다.

동문가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즉석 바비큐와 한식 부페로 식사를 하고, 삼삼오오 호숫가를 산책하며 정다운대화를 나눴다. 하지영 회장은 새로 참석한 동문들을 빠짐없이 소개하고, 그 동안 있었던 각종 소식들을 나누었다.

식사 후에는 주중광 교수의 초청으로 김한선 박사(김서영 동문의 남편)가 "Senior Care Options/Resourses"라는 주제로 특강을했고, 노년을 보내는 방법과 건강 관리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누었다. 김한선 박사는 노년의



생활에서 돈과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사람들과의 활발한 교류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무리 젊어서 영어를 잘하던 한국인들도 나이가 들면 외국어를 잊게 되므로 모국어를 말하는 친구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미국에 사는 서울대인들에게 동문회 참석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설명된 셈이다.



미네소타 동창회 봄 야유회

5월 5일 (토) 미네소타 서울대 동문회 2018년도 춘계 야유회가 세인트폴에 위치한 Falcon Heights Community Park에서 있었다. 화창한 봄날새가 물씬 풍기는 천상의 날씨에 46명의 동문과 가족이 참가한 가운데, 양한승 총무의 사회로 야유회가 진행되었다. 정성들여 준비한 맛있는 음식과 다양한 바베큐 고기를 먹으며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동문의 정과 웃음을 나누는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황효숙 회장 인사말 및 임원진 소개에 이어



맛있고 푸짐한 건강식

동문들의 본인 소개와 인사가 있었다. 지난 4월 26일 성낙인 총장 방문을 주선하고 물심양면으로 협조를 해준 3M 수석 부회장 신학철 동문에게 온 동문이 특별한 감사를 표했다. 6월에 열릴 미주 서울대 총동창회 평의원회에서 영광스러운 서울대 총장상 학술상을



바비큐 주방장 유기웅, 황세현 동문

시상하게 된 미네소타 대학 명예교수 송창원 동문에게도 뜨거운 축하를 드렸다. 양한승 총무가 진행한 Raffle 추첨에서는 경품에 당첨된 동문들을 서로 축하해주며 유머와 웃음이 넘친 오락의 시간을 즐겼다. 화창한 미네소타 봄날에 동문과 동문 가족들이 만



김한선 박사 특강



지속적으로 만나 서로 염려해주고 친목을 나누는 가운데 각별한 정이 쌓이고, 두고 온 나라와 지금 살고 있는 나라에 대한 생각들을 털어놓으며 후련함을 느끼고, 무엇보다 함께 나이 들어갈 동지가 있음에 위안을 얻는다. 시름과 기쁨이 늘 공존하는 게 인생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며, 지금 이 순간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지금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아름다운 5월의 호수가 지닌 매력과 야유회를 통해 하나로 아우러진 동문들의 따뜻하고 지혜로운 마음 덕분이었다.

[기사제공: 최재경(국문 90)]



바비큐를 즐기는 동문들



현담을 나누는 동문들



회의진행하는 양한승 총무

들어낸 또하나의 따뜻한 추억을 가슴에 안고 다음의 만남을 기약하며 아쉬운 작별을 하였다. [기사제공: 양한승 총무]

시카고 동창회 춘계 골프대회 개최



앞줄: 김현숙, Mrs. 황치룡, Mrs. 구경희, 정성일, 박영준, 서상현, 정승규, 문영현, 홍혜례 / 뒷줄: Mrs. 문영현, 최의필, 김현석, 소진문, 신순전, 황치룡, 김병윤, 최길룡, 구경희, 강장만, 김동희 (사진 김정수 문리대 69)

시카고 동창회(회장 홍혜례 사대 72)는 5월 19일 토요일 Willow Crest Golf Club (Oak Brook, IL 소재)에서 춘계 골프대회(기획 김동희 동문, 공대 66)를 가졌다. 이날 대회에는 21명이 참가하였고, 대회가 끝난 후 동문 및 가족들(30여 명)은 중식당 "태후"(Villa Park,

IL 소재)에서 저녁식사와 수상식을 가졌다. 특히 이 자리에서 장기남 동문(문리대 62)의 성공적인 간이식 수술 소식을 부인인 김승주 동문(수석부회장 간호대 69)으로부터 전해 듣고, 축하와 감사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졌다. [기사제공: 홍혜례 회장]



수상자들- 앞줄: 문영현, Mrs. 문영현, 홍혜례, Mrs.황치룡, Mrs. 구경희 / 뒷줄- 김현석, 황진한, 신순전, 소진문, 황치룡. (사진 김동희)

▲남자부
Gross 챔피언 문영현 (공대 71, 문예진 사대 06 부진, 한국에서 방문)
Net 1 왕진한 (공대 59)
Net 2 김현석 (문리대 69)
Closest 황치룡 (문리대 65)
Longest 신순전 (자연대학원 89)
Best Dresser 소진문 (치대 58)

▲여자부
Gross 챔피언 Mrs. 황치룡 (문리대 65)
Net Mrs. 구경희 (의대 59)
Closest Mrs. 황치룡
Longest Mrs. 구경희
Best Dresser 김현숙 (간호대 79)

북가주 동창회 제4회 서울대 북가주 골프 오픈

북가주서울대동창회(이사장 민병곤, 회장 곽준경)이 주최하는 제 4회 서울대 북가주골프오픈대회가 지난 5월 5일 낮 12시에 동문 및 게스트 player 40명이 참석하여 Mt.View소재 Shoreline Golf Links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참가하신 player 동문들중 제일 연장자이신 한만섭동문(공대49입학)은 대회장을 맡으시어 행사를 뜻깊게 빛내주시었다.

시상식 및 저녁식사에는 골프를 안치시는 동문 및 배우자 14명이 같이 참석하여 웃고 즐겁게 화기 애매한 정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골프대회가 Play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가하시는 동문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그동안 서로의 안부와 소식을 주고받는 만남의 광장을 마련하는 동문회활동으로 더욱 의의가 있다고 생각되었으며, 참가한 대다수 동



문들이 골프를 통해 더욱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자고 입을 모았다. 참석하여 행사를 빛내주신 모든 분과 준비위원 및 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리며, 골프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후원금을 기부

해 주신 강정수 동문, 민병곤 동문, 김현경 동문을 비롯한 여러 동문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Callaway 방식으로 치루어진 대회의 입상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강정수배챔피언: 최경선, 메달리스트: 박병명, 1등: 김영우, 2등: 박진섭, 3등: 노익식, 근접: (남)김기덕, (여)김희식, 장타: (남)곽준경, (여)김양숙 [기사제공: 곽준경]

류정순 (생과대 69) 동문 세번째 개인전 개최 '사라져 가는 전통미를 찾아서'



제목: 흔적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LA다운타운에 위치한 '작가의 집'에서 '사라져 가는 전통미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업사이클링 아티스트 류정순(생과대 69) 동문의 세번째 개인전이 열렸다.

업사이클은 업그레이드(Upgrade)와 리사이클(Recycle)의 합성어로 '업사이클링 아트'란 폐자원을 재활용하여 예술적인 가치를 더



왼쪽부터, 김혜인, 염민숙, 류정순, 이연주, 김옥경, 윤순재, 박범순

해 새로운 작품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류정순 동문은 소비재의 조합을 통하여 prosumer(producing consumer 혹은 professional consumer)로서 미술품 창작에 참여하고 있다. 프로슈머란 1980년 엘빈 토플러가 그의 저서 '제3의 물결'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로 생산자(producer)와 소비자(consumer)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 전시에는 모시와 삼베, 한지, 옥, 자개, 색동 문양, 회투 등 한국적인 전통미가 담긴 작품들이 골동 문짜와 창문 등을 소재로 한 작품을 선보였다. 작품 '흔적'은 골동품 침대 중 일부분을 잘라서 아트 프레임을 만든 후, 그 안에 호박 목걸이와 오래 된 기모노 오비를 얹힌 작품이다. 이 작품을 통하여 호박이 생성되었던 중생대와, 침대와 오비가 만들어졌던 수 백 년 전의 동양과, 호박을 소재로 팬던트를 만든 동구라파의 공예가와 현대의 LA를 연결시켜 관객으로 하여금 시공을 넘나들며 소통하게 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골동 문짜와 창문을 소재로 한 작품이 많은데, 우리의 생활소비재인 옛 문과 창문에서 선조들의 미의식을 발견하고, 현대적이고 기하학적인 문창살의 무늬들을 살려서 한지, 실크, 삼베, 모시 등의 옷감, 옥, 호박, 은, 자개와 같은 전통적인 사라져 가는 소비재들을 그 위에 얹음으로써 관객들로 하여금 '사라져 가는 전통 동양미'에 대한 향수를 느끼게 한다.

류정순 동문의 문짜 작품은 창의성과 독창

성이 돋보이는 fashion art이자 up cycling art라는 새로운 장르의 작품으로서 전통미의 현대적 해석과 전통미의 새로운 재현이라는 측면에서 그 발상이 신선하다.

그 외에도 다양한 색상과 무늬의 셔츠, 타월, 블라우스 등의 소비재, 혹은 소비재의 조합을 캔버스에 붙인 작품들도 선보이고 있는데, 이 작품들은 그린 컨설팅(green consumption)과 환경보호 메시지를 가진 upcycling art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 작품 가격이 50달러부터 2만 달러까지 다양했으나, 여러 점의 작품들이 애호가들에 의해 판매 되었다.

류정순 동문은 모교 생활대학 의류학과(패션디자인 전공)를 졸업하고,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에서 소비자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1년 한국 비영리공익재단인 '아름다운 재단'의 후원으로 서울 독서 전방문화 컴플렉스 자벌레에서 첫 개인전을 가졌고, 그 후 2013년 중국 상하이 한국문화원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기사제공: 홍선재 편집위원]

‘제37회 탈북난민구출 음악회’ 개최

뉴욕예술가곡연구회(회장 서병선, 음대 65) 주최



제37회 탈북난민구출 음악회가 뉴욕예술가곡연구회(회장 서병선, 음대 65)와 두리하나 USA 주최로 지난 5월 6일 오후 6시, 뉴욕 근교 뉴욕효신장로교회에서 많은 수의 한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후원금을 전달하는 윤상래 미주동창회 회장

바이올리니스트 주현정 동문을 비롯해 메조소프라노 박영경, 소프라노 윤혜린 동문, 소프라노 김수정, 소프라노 정지현, 지휘 서혜영, 테너 김성욱 동문, 바리톤 한경진, 피아노 이세리, 테너 서병선 동문 등 정상급 음악가들이 출연해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을 선사했다.

윤상래 미주동창회장은 멀리 보스턴에서 온 가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서병선 회장은 “정직, 소박, 지성, 사랑을 담은 가곡이 분단의 땅 한국에 널리 보급될 때 민족분단의 비극은 사라지고 평화의 주제가 찾아 올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래 회장은 축사에서 “지난 20년간 탈북난민구출 음악회를 주관하신 서병선 선생님은 우리 민족이 존경해야 할 분”이라고 말하고 “이러한 분이 더 많이 활동하실 때, 우리 민족은 더 훌륭히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곡연구회는 지난 97년부터 올해까지 37회를 이어오며, 음악회에서 얻어진 수익금은 중국 현지에서 탈북난민을 돕고있는 선교사에게 직접 전달, 탈북 난민을 위해 사용하고, 세계식량계획 등에 전달하고 있다.



김영 (수의대 63) 동문 Home Concert 개최



이번으로 제 5회를 맞이한 가정 음악회가 5월 12일 Host 이신 수의대 63학번 김영 전 회장님 댁에서 70여 명의 동문 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피아노에 제갈소망 동문 바이올린에 김유은 동문을 비롯하여 그 외에 모두 USC 음악대학에서 상급과정을 이수중에 있는 젊은 음악도들로 구성된 5중주단이 연주를 하였습니다. 1부 순서로 베토벤의 바이올린 "Spring"Sonata, 쇼팽의 첼로 "Polonaise", 비올라와 더블베이스 독주가 있었

고 2부에는 슈베르트의 피아노 5중주 "Traut"의 연주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날 주말을 맞이하여 더욱 의미가 깊었던 이날의 연주회는 참석자들의 기대를 초월한 수준 높은 연주로 시종 일관 갈채와 환호 속에서 진행되었고 특히 슈베르트의 트라우트 5중주는 아름다운 선율과 기쁨에 넘치는 가락으로 사람들의 가슴을 사로잡았습니다. [기사제공: 김영(수의대)]

컬리 프라이즈 밴드 2018 Spring Concert

남가주 동문 주축 Rock/Pop 밴드



남가주 서울대 총동창회 동문들을 주축으로 이뤄진 Rock/Pop 밴드인 '컬리 프라이즈'(Curly Fries Band)가 지난 5월5일 LA에서 2018 Spring Concert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LA 다운타운 지역의 그랑프리 바디샵에 멋진 지게 차려진 특설 무대에서 열린 이날 콘서트에는 100여 명의 동문과 가족을 포함한 관객들이 찾아 2시간이 넘는 공연과 파티를 한껏 즐겼다.



이날 컬리 프라이즈 밴드(약칭 컬프)는 7080 세대의 애창곡에서부터 최근 히트곡에 이르기까지 록과 팝 및 발라드를 20여 곡을 선보였다. '추억과 회상, 그리고 러브 스토리..'를 주제로 진행된 1부에서 관객들은 추억의 노래들을 들으며 감미로운에 빠져들었고, 신나는 곡들도 꾸며진 2부에서는 열띤 호응으로 무대 앞 스테이지가 춤과 환호성의 열기로 가득 찼다.



컬리 프라이즈 밴드는 벤처기업 대표, 변호사, 마케팅 전문가, 교육 컨설팅사 대표, 영화 음악 프로덕션 대표, 의료업체 대표, 스포츠웨어 개발자, 언론인 등 각자 다양한 배경과 직업을 가진 LA 지역의 30~50대 서울대 동문들이 음악에 대한 열정 하나로 뭉쳐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사회인 밴드다.

지난 2004년 초창기 멤버들로 첫 결성된 이후 2011년 새로운 멤버들을 보강해 제1회 아크로폴리스 축제를 가진 것을 계기로 본격 활동에 들어갔고, 매년 주요 동문회 행사들에서 공연을 펼치는 것은 물론, 2012년 아프리카 식수 프로젝트 돕기 자선 콘서트, 2013년 컬리 프라이즈 Fall Jam, 2016년 Music and Memories 콘서

트, 그리고 이번 2018년 Spring Concert 등 단독 행사들을 마련하고 있다.

컬리 프라이즈 밴드의 콘서트는 대중음악을 통한 공감대를 공유하는 관객들과 추억을 나누고 감성을 교류하는 즐거움의 장을 만들기 위해 무대와 관객이 함께 호흡하는 형식으로, 관객들이 자유롭게 먹고 마시며 즐기실 수 있는 공연 겸 파티로 진행되는 게 특징이다.

컬리 프라이즈 밴드의 멤버들은 ▲양민(공업화학 77, 베이스) ▲고정범(법대 79, 보컬/색소폰) ▲황의준(경영 80, 보컬/피커션) ▲신혜원(영어교육 81, 키보드) ▲채규진(불문 82, 기타) ▲김중하(영문 85, 드럼) ▲최성록(조선공학 92, 기타) ▲백양희(경영 98, 보컬) ▲임소영 (객원 보컬) ▲민경재(객원 보컬/사운드 엔지니어)로 구성되어 있다.



컬리 프라이즈 밴드의 총무를 맡고 있는 김중하 동문은 "저희 컬리 프라이즈 밴드는 멤버들이 각자 전문 직업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짬짬이 시간을 내어 연습과 공연을 하고 있는 아마추어 밴드이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은 프로 못지않다고 자부하고 있다"며 "밴드 활동에 대한 많은 동문 선배님들의 관심과 성원, 그리고 후원이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김 동문은 이번 컬리 프라이즈 밴드의 2018 Spring Concert를 위해 다음의 동문 선배님들이 스폰서로 후원을 해주셨다며 다시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임낙균 전 남가주 총동창회장(약대 64) ▲김상찬 전 남가주 총동창회장(문리대 65) ▲강신용 현 남가주 총동창회장(사대 73) ▲최진석 남가주 법대 동창회장(법대 64) ▲독고량(대학원 77) ▲하선호 치과(치대 81) ▲장준 CPA(서어서문 85) ▲공성식(경영 89) ▲김계환(성악 90).

컬리 프라이즈 밴드 후원 문의: 김중하 총무, jdkim34@gmail.com

남가주 미대 동창회

'동문 작품 전시 및 옥션'과 '동문자녀 미술대회' 개최



지난 5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미대 동문 작품 전시 및 옥션"과 "동문자녀 초청 미술대회"가 총동창회의 임원들, 상임이사들, 그리고 여러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Park View Gallery'에서 열렸다.

일주일의 전시기간 중 많은 동문들이 관람했으며, 세차례의 Pre Auction과 사흘간의 After Auction을 통해 옥션과 미술대회 모두 성공적으로 끝났다.

옥션에는 동문작가 12명 (김요준, 김경애, 한석란, 김구자, 신정연, 신혜자, 서동현, 박다애, 백혜란, 박영구, 오성주, 강영일)이 참가해 총 26점의 작품이 출품되었다.

옥션에 앞서 오전 11시에 김옥균 총동창회 문화위원회(미대 74)의 미술대회의 취지와 상향력 고취 및 심사기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시작된 미술대회는 참석한 동문자녀들이 3시간에 걸쳐 그림그리기와 피자파티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5월 가정의 달에 맞춰 "Good Memory with Family"란 주제를 가지고 여러가지 미술재료를 사용한 그림들로 K-12에 다니는 동문 자녀들과 손주들이 각자의 솜씨를 뽐냈다. 크레파스, 수채화, 목탄, 연필 등을 이용한 여러가지 기법을 자유롭게 사용해 가족들과 함께한 여행과 가족행사 등을 표현하며 다시한번 가족들과의 추억을 상기해보는 뜻깊은 날이었다.

이어 옥션 참가작가들의 심사가 있은 후 이학진 농대회장이 진행한 시상식은 환성과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자녀들과 학부모 동문들로 열기가 넘쳤다.



영예의 대상에는 4학년 Eden Cha가 강신용 총동창회장상을, 서울대 발전기금에서 주는 특별상에는 2학년 Hyewon Jeon, 특선에는 Jimin Kim(6th), Roman Gross(1st), Yein Cho(K), 입선에는 Kellan Paek(1st), Adrienne Choi(6th), Alexandria Kim(7th), 가작에는 Noel Hwang(11th), Ellie Hong(8th), Yewon Jeon(2nd)이 선정되어 많은 장학금과 풍성한 상품 및 상장을 받았다.

남가주 총동창회에서 수상자로 선정된 모든 학생들에게 장래 진학할 때 CREDIT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다. 장학금(총 1,500불)을 제공함으로써 행사를 더욱 빛내 주신 남가주 총동창회 강신용 회장님, 서울대 발전기금의 김인국 회장님, 한효동 공대 회장님, 한귀희 미대회장님, 정인환 서예반 회장님께 감사 드린다.

또한, 조용준 (사대 94) 총동창회 총무의 Pizza Delivery를 필두로 접수를 도운 손영아(음대 85), 이윤종(미대 93), 김양희(음대 76) 등 총동창회 임원들, 음식 준비에 여념이 없었던 김경애(미대 83), 윤연순(미대 86), 한석란(미대 71), 김윤진(미대 67), 김구자(미대 61) 등 미대 동문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행사를 위해 미술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을 도와 주고 힘을 모아 이루어낸 총동창회의 잔치였다.



이번 미술대회는 총동창회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3세대가 함께한 행사로 참가한 부모와 조부모 동문들께서도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더욱 뜻깊은 일이었다. 앞으로는 더욱 홍보하여 더 많은 동문자녀들이 참석해서 알차고 풍성한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뉴욕 관악연대 동문 초청 디너



지난 5월 24일 맨하탄 32가 소재 '더큰집'에서 신용남 차기 미주 총동창회장은 뉴욕지부 관악연대 동문들을 초청해서 저녁식사를 같이하고, 내년 2019년부터 뉴욕에서 시작될 서울대 미주 총동창회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기를 부탁하였다. 또한 뉴욕지부 동창회 모임에도 시간내어 참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석한 대부분의 동문들은 95년이후 학번으로, 대부분이 80년대에 출생하였으며 서울대에서 학부를 마치고, 미국으로 유학하여 석 박사을 받고 미국의 주류 사회의 대기업 혹은 대학에서 종사하는 30대 후반의 동문들이다. 젊은 취향에 맞게 소맥과 갈비로 저녁 식사를 하며 신용남 차기 회장은 같은 취미 생활의 동아리 형식의 동문회 모임으로 유지 되고 있는 그들의 현 모임에 관심을 가지고, 매주 주말에 센트럴 파크에서 모이는 running group에 뉴욕지부 동문들 중 같은 관심이 있는 원로(?) 동문들이 함께 모임수 있는 브런치 자리를 한번 주선에 보냈다고 약속 했다.

또한, 선후배 동문과의 만남의 중요성과 인간 관계의 소중함이 미주 생활의 좋은 원동력이 된다는 것과 이제 이곳에도 예일이나 하버드 클럽처럼 선배들이 비전을 함께 하

▲참석자
고순민 (컴공 98), 안재현 (전기 96), 조용범 (통계 01), 김형원 (물리 02), 이명재 (산디 02), 홍혜원 (경영 03), 박소영 (생과 11), 이희범 (수학 03), 안병규 (컴공 99), 부찬일 (경영 00), 정하영 (경영 06), 신용남 (농대 70), 이희만 (간호 70), 허유선 (생과 83)
[기사제공: 허유선 편집위원]

주 총동창회와 서울대 발전기금에 후원을 하고 2019년도 탁상달력 제작에 도움을 주셨다. 2019년도 탁상달력에는 판매된 작품이 수록되며 작가와 소장인이 실릴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좋은 가격으로 작품을 낸 미대 동문작가와 흔쾌히 작품구매에 동참하셔서 총동창회와 모교 발전기금을 후원하신 작품구매자, 총동창회 임원들과 동문들, 그리고 미술대회에 참여한 학생들과 학부모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성원에 감사 드립니다.



[기사제공: 한귀희 미대 회장]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SNU Alumni Association USA, 869 South Street, Fitchburg, MA 01420

세계 태권도 대부 이준구 대사범, 타계



고 이준구 대사범

세계태권도의 별,故 이준구 대사범 영결식이 5월 8일 11시에 버지니아 매클린 바이블 교회에서 거행되었다.

이날 영결식에는 세계 각국 준리 태권도 그랜드마스터 제자들과 미국 전현직 상하의원 제자들, 미국의 유명인사와 재미 동포 등 고인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배웅하고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영결식에 참석하였다.

영결식을 찾은 조문자들은 고인과 함께 나누는 추억을 회상하며, 고인의 부인 테레사(THERESA Rhee), 장남 지미(Jimmy Rhee),

차남 천우(C Woo Rhee), 장녀 조안(Joanne Rhee), 차녀 미미(MEME Rhee)와 장자부 린다(Linda), 동생 이진구(제9대 미주동창회 회장), 사촌동생 이서구 박사 내외, 외조카 송재성 전 워싱턴체육회장 등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사 순서에서는 세계적인 인권운동가이자 前상원의원 제시 책스목사와 제시책스 前하원의원 부자, 조지 알렌 前상원의원과 밥 리빙스턴 前하원의장이 영결식에 참석하여 한미교류와 발전에 대한 고인의 업적을 기리며 조사로 유족들에게 위로와 감사를 표했다.

고인의 태권도 수제자들의 추모공연과 조사들이 이어졌고 고인이 즐겨 불렀던 여메이징 그레이스 하모니카 연주를 동생 이진구 회장이 연주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고인과 함께한 오랜 추억을 회상하며 고인과 마지막 이별을 슬퍼하는 차남 천우씨의 마지막 조사로故 이준구 대사범님 영결식을 모두 마치고 고인을 인근 폴스처치 내셔널 메모리얼파크에 안장했다.

원고를 모집합니다

주제: 독자들의 생각과 식견을 넓혀주는 각 분야의 다양한 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문학, 철학, 역사, 과학, 의학, 생명과 환경, 여행, 취미 등]

글의 양: 500 단어 (글자 수 2,000자) 내의 글, A4 용지 한장 반 이내

사진: 고화질로 찍은 필자의 프로필 사진

보내실 곳: 원고와 사진은 news@snuaa.org 로 보내주십시오. <편집부>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2017년 동창회비를 아직 납부하지지 못한 동문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속히 동창회비를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년: \$75, 2년: \$150 / payable to SNUAA-USA)

SNU Alumni Association USA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이서희 (법대 70)

Los Angeles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코리아타운 노숙자 임시쉼터 건립안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Vermont Blvd. 선상의 Wilshire Blvd와 7th Street 사이의 코리아타운 중심지에 노숙자쉼터가 들어선다는 안건이다. 이 안건은 코리아타운에서 직업을 가진 자, 부동산 소유자, 비즈니스 소유자, 그리고 타운을 자주 이용하는 한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될 것이다. 이미 이 안에 대한 반대 시위가 노숙자쉼터 후보지 부근에서 몇번 있었고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도록 한인들의 계속적인 저지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다.

부끄럽게도 세계 최고의 부유한 국가인 미국의 Los Angeles County에 노숙자가 대략 55,000명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노숙자가 밀집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마약, 조악한 위생상태, 각종범죄 등으로 근처 주민에게 심각한 문제가 되어 왔고, 이의 타개를 위한 Los Angeles 시정부의 15개 시지역에 한곳씩 노숙자쉼터를 만든다는 결정에 따라 10지구에서 변화하고 중심상권이 있는 한인타운 한복판을 불시에 지정하게 됨에 따라 한인들은 놀람과 분노 그리고 어떠한 대처방법을 강구하여야 할지 어리둥절한 상태이다.

혹자는 한인타운내의 노숙자쉼터에 대하여 반대를 하면 너무 지역 이기주의로 여겨질까 걱정을 하기도 한다. 물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숙자를 배타적으로 취급해서는 안될 것이지만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노숙자가 범람하게 된 이유는 현정부의 근본적인 정책에 문제가 있다. 노숙자 개개인의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정신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자들의 수용능력의 한계 등은 원인으로 자주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노숙자문제의 해결을 현재 살고 있는 주민의 생활에 불안한 요소를 가져오는 방향으로 정책이 만들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힘들어 이루어온 비즈니스에 어느날 갑자기 인근 노숙자로 인하여 타격을 입는다면 어느 누가 노숙자 구호정책을 나 자신의 생계에 우선하여 지지하겠는가. 노숙자 해결책은 쉽지 않더라도 선량한 주민의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한인타운 주민들은 Los Angeles Downtown Skid Row에 형성되어 있는 수많은 노숙자 텐트를 보고 이런 것들이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날까 두려워 하고 있다. 이미 한인타운도 예외가 아니어서 노숙자텐트가 곳곳에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앞으로 어떤 변화 즉 슬럼화되지 않을까 불안한 눈길을 보내고 있다.

L. A. 시에서 본

노숙자 문제

한인타운내에 계획된 임시쉼터의 수용인원은 60여명정도로 한다고 하고 주변의 노숙자를 쉼터에 들어오도록 하여 거리의 노숙자가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 시정부의 생각이다. 그러나 쉼터설치를 하면 쉼터에 들어가 위하여 대기하는 노숙자가 모여들고, 쉼터에서 나온 노숙자들이 부근에서 다시 텐트촌을 이룰 것이라고 주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상황이 예측되는데 어찌 쉼터설치에 동조하겠는가. 더우기 지정된 그 장소는 타운내에서도 많은 보행자가 다닐 뿐만 아니라 근처에는 음식점이 즐비하여 음식조달이 쉬워 한번 이 지역에 들어오면 부근에서 배회하고 떠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하여 거리마다 노숙자텐트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의 결정은 번복하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이 사는 주민이 주인이지 시장, 시의원은 주인이 아니며 관리를 잘해 달라고 주민이 뽑은 자들임을 생각하면 주민들이 반대하면 당연히 다른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믿는다.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한 이번 일은 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데도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흠을 가지고 있다.

10지구의 시의원은 한인타운을 관할하고 있다. 이지역의 시의원을 한인들이 지지하고 시의원의 중임을 하도록 노력한 분들이 많으나 현재의 상황을 보면 실망감을 주고 있다. 한인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지역 그것도 LA 시내에서 번창한 상가지역에 노숙자의 쉼터를 짓겠다는 생각을 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다만 노숙자의 문제가 지역주민의 권익에 앞선다고 착각한 무리수를 둔 것이다.

누가 한인타운을 번창하게, 깨끗하게 하였는지에 대한 한인들의 공헌을 모르는 모양이고, 한인들의 단결된 힘이 약하다고 판단하여 반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대로 추진한다고 하니 얼마나 한인들을 약하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예이다.

또한 한인단체장들도 이번 기회에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이다. 남발하고 있는 감사장 한장씩 나누어 주면 고맙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공직자에게 굴절시킨다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정치인을 잘 가려가면서 지지하고, 모금을 하여 한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가 대표로 뽑히도록 하고 헛돈과 노력을 낭비하지 말도록 각성해야할 시점이다. 노숙자쉼터 문제는 한인들이 심하게 대처하여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민경훈 (인문 78)

뜨는 평양 냉면

인간이 언제부터 국수를 먹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국수의 역사는 최소 4,000년은 되는 것으로 보인다. 2000년 중국 북서부 청해 지역에서 유물 발굴 작업을 하던 연구팀이 라지아라는 곳에서 기원전 2000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국수 원형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국수에 대한 기록이 처음 나오는 곳도 중국이다. 한나라 때 나온 역사서에는 중국인들이 그 때부터 밀 반죽으로 만든 국수를 즐겨 먹었다는 기록이 있다.

서양에서 국수 요리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파스타는 마르코 폴로가 중국에 갔다 짜장면을 보고 돌아와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은 시칠리아 지방에 살고 있던 아랍인들의 국수 영향을 더 받았다는 설이 유력하다.

국수 요리는 대부분 끓인 국물과 같이 먹거나 양념에 비벼 상온으로 먹는 것이 보통이며 얼음처럼 차게 해서 먹는 국수는 드물다.



이중호 (인문 81)

#. 우리 민족사에서 통일은 두 번 있었다. 첫 번째는 신라의 삼국통일(676년)이고 두 번째는 고려의 후삼국 통일(936년)이다. 신라 삼국통일은 당나라의 힘을 빌린 무력 정복 통일이었다.

후삼국 통일은 달랐다. 크고 작은 전투는 있었지만 크게 보면 흡수 평화 통일이었다. 후백제의 견훤이 먼저 고려에 투항했고 신라 마지막 경순왕도 스스로 나라를 들어 바쳤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 요인이 있었지만 창업 군주 태조 왕건(재위 918~943년)의 리더십도 큰 역할을 했다. 리더 한 사람의 역량이 국가적 역량으로 승화됐을 때 얼마나 큰일을 이뤄낼 수 있는가를 생생히 보여준 사례다. 40여년 후삼국 분열을 종식시킨 왕건의 리더십, 어떤 것이었을까.

첫째, 가능한 한 무력 사용을 자제했다. 인내와 끈기로 때를 기다렸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진정한 고수임을 알았다.

북한을 대표하는 음식의 하나인 평양 냉면이 바로 그 중 하나다.

전문가들은 평양 냉면을 먹기 시작한 것은 고려 중기부터인 것으로 보고 있다. 평양에서 출간된 한 요리서적은 냉면 발상지를 평양 대동강 구역 의암동 일대로 잡고 있다. 메밀 수제비 반죽으로 국수를 만들어 먹던 것이 냉면의 시작이라고 한다.



군사력에 큰 보탬이 됐다.

셋째, 겸손했다. 지방 호족들이 득세하던 군웅할거 시대, 왕건은 독보적이었지만 그들을 무시하지 않았다. 자신을 낮추어 마음을 얻었다. 왕건은 29명의 아내를 두었다. 하지만 그것은 호색(好色)이 아니라 정책이었다. 각지의 유력 호족과 혼인으로 연을 맺어 자기 세력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넷째, 삼한 땅을 다시 통일하겠다는 비전이 있었다. 상대도 결국 내 백성임을 잊지 않았다. 왕건이 궁예나 견훤과 달리 세금을 줄여 주고 백성의 어려움을 살피고 헤아렸던 이유다. 민심이 쓸릴 수밖에 없었다.

“70년 서로 총부리를 겨눴던 상대다.

잠깐 얼굴 바꿨다고 속마음까지 달라졌다는 걸

어떻게 믿느냐 할 수도 있다.

그래도 믿어 보자.”

견훤조차 투항해 왔을 때 아버지의 예로 맞아들였다. 신라 경순왕에게는 사심관 벼슬을 내려 경주를 계속 다스리게 했다. 그것도 모자라 장녀 낙랑공주까지 주어 혼인을 시켰다. 확실한 내 사람으로 만든 것이다. 926년 발해가 거란에 멸망하자 그 유민들도 가까이 받아들였다. 그들은 고려의 노동력과

평양의 대표 식당인 옥류관에서 음식을 먹어본 사람들에게 따르면 이곳 냉면은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냉면과 달리 짜거나 달거나 한 강한 맛이 없고 맛있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 마포에는 옥류관에서 일을 하다 탈북한 요리사가 차린 '동무 밥상'이란 식당이 있는데 이곳 냉면이 정통 평양 냉면 맛과 가장 비슷하다 한다.

하긴 '4대 천왕'이라 불리는 서울 내 유명 평양 냉면 집 맛도 망명한 것이 특징이다. 처음 이들 식당에서 냉면을 먹은 사람들은 의외

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에서는 1953년 오장동에 문을 연 가게가 함흥 냉면의 원조 격으로 지금도 성업중이다.

평양 냉면과 함께 냉면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함흥 냉면은 농마 국수라고도 불리는데 고구마나 감자 전분으로 국수를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함흥에도 원래는 물냉면이 있었는데 평양 냉면과의 경쟁에서 밀려 사라지고 지금은 비빔 냉면이 곧 함흥 냉면이 돼 버렸다.

남북 정상이 지난 27일 판문점에서 평양 냉면으로 식사를 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대한민국에 냉면 열풍이 불고 있다. 평양 냉면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고 서울 냉면 집들은 밀려드는 손님들로 즐거운 비명을 올리고 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주말 평양 냉면 가맹점 1,500여 곳 매출이 전주에 비해 80% 늘어났다고 한다. 특히 평소 냉면을 잘 먹지 않는 20대의 경우 전년에 비해 99%나 늘어나 다른 계층을 압도했다.

냉면, 그 중에서도 평양 냉면은 단순하지만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운 음식이다. 다른 것은 한국 못지 않게 잘 만드는 미주 한인 식당 중에서도 평양 냉면을 제대로 만드는 곳은 많지 않다. 남북 관계가 순조롭게 풀려 한국과 미국에서도 옥류관 평양 냉면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첫째는 평화 정책의 고수다.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전히 있다. 좁은 한반도 땅에서 너도 죽고 나도 죽겠다는 이야기도. 피는 피를 부르고 폭력은 원수를 만든다. 무력과 강압은 일시적 복종을 강제할 수 있지만 끊임없는 이반과 모반의 위협에 또 맞서야 한다.

둘째는 포용이다. 남한의 경제력은 북한의 40배다. 공산주의는 쇠락하고 자유민주주의는 세계사의 대세가 됐다. 그것으로 체제 경쟁은 끝났다. 가진 자가 품어야 한다. 힘 있는 자의 아량만이 상대의 마음을 진정으로 얻을 수 있다.

셋째는 겸손이다. 좀 잘 산다고 해서 거들먹거리지는 말아야 한다. 상대를 인정하고 배려해야 한다. 자존심으로 버티는 북한이다. 그것마저 견디려면 대화도 협상도 멀어진다. 다시 원점이다.

넷째는 비전이다. 통일의 비전은 민족이 함께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이다. 의식주에 부족함이 없어야 통일도 있고 민족도 있다. 화해 분위기에 선불리 휩쓸려 내치와 경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70년 서로 총부리를 겨눴던 상대다. 잠깐 얼굴 바꿨다고 속마음까지 달라졌다는 걸 어떻게 믿느냐 할 수도 있다. 그래도 믿어보자. 세월은 흘렀고 세상은 달라졌다. 옛 원한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어떤 역사 발전도 이뤄낼 수 없다.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자가 이기는 자다. 지금 우리가 그 일을 할 때다.



최은관 (상대 64)

<역사 이야기>

상나라의

찬란한 청동기 I, II

I

1. 상나라 사람들은 어느 민족이었는가?

상나라는 夷族이 세운 나라라고 한다. 동이가 처음에는 어느 특정 종족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저 중국의 동쪽 변방에 존재한 이민족들을 합쳐서 중국인이 동이라 불렀던 것 같다. 물론 고조선 사람도 동이족 집단에 들어갔을 터이지만, 우리뿐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포함되었을 것이다. 학자들의 유전자 분석에 따르면 중국 남부의 해안선을 따라서 북으로 이동하던 남방계가 먼저 한반도에 자리 잡았고 다음에 시베리아에서 내려온 북방계가 한반도에 정착했다고 한다.

북방계 사람들이 남으로 오다가 상나라 지역을 거치면서 상나라를 세웠을지도 모른다. 인골 전문가 판지펑(潘基鳳)에 따르면, 은허에서 발견된 상나라 인골은 대다수 동북방 인종의 특징이 있고, 황하에 정착한 漢族과 다르다고 한다. 과학적 증거도 없이 고조선 사람들이 상나라를 세웠다고 우길 수는 없다. 자세한 것은 은허 지역에 발굴되는 뼈의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과학적으로 결정지을 수 있을지 모른다. 이흥규 교수에 따르면, 한국인 · 일본인 · 북방 중국인의 유전적으로 같고, 또한 한국인과 아메리카 원주민은 한 뿌리라고 한다.

중국인이 언제부터 중국 땅으로 이주해서 살기 시작했는가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중국 대륙에서 가장 오래된 문화는 황하 유역, 허난(河南) 지역에 존재했던 배리강(裴里李) 문화(기원전 7000 - 5000년 경)라고 한다. 이 문화가 과연 현존하는 중국인의 문화인지, 베링 지협을 건너서 미국 대륙으로 건너가기 전에 살았던 아메리카 원주민이 남긴 유적인지 알 수 없다. 학자들은 이 고대의 원주민이 1-2만년 전에 베링 다리를 지나서 아메리카로 건너갔다고 한다. 이 아메리카 원주민이 아시아를 버리고 떠난 뒤에, 북방계 선조들이 내려와 얼마동안 상나라를 세워서 지내다가 나라가 망하자 자리를 떠서 몽고 지방을 지나서 한반도에 정착했을 수도 있다. 이기훈 교사에 따르면 은허 발굴을 지휘했던 부사신(傅斯年)은 상나라가 동북쪽에서 와서 흥했다가 상이 망하자 동북으로 갔다고 한다.

상(商)나라는 지금의 중국 지역 전체를 지배한 것이 아니라, 황하 유역의 여러 도시에, 곧 옌리토, 옌리강, 안양 지역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었다. 다른 지역에는 지배하는 정치적 조직이 있을 만큼 인구가 많지 않았을지 모른다. 한반도에 흩어져 있는 조선 사람과 무역을 할 정도로 중국인 인구가 황하 유역에 많지 않았던 듯하다. 하(夏) 또는 상나라 초기 인구는 540만, 말기의 인구는 850만이었으리라고 추정된다. (이종호: 유적으로

여기서 상나라의 유적지가 많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옌리토 문화는 상나라 지역에서, 夏 시대에 시작된 문화로 볼 수 있다.

상나라의 청동 그릇은 크게 보아서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제사 및 연회에 쓰이는 酒器 · 食器 · 水器 · 樂器, 그리고 兵器가 있다. 청동 거울은 한 나라 시대에 와서야 널리 쓰였지만, 상 시대의 청동 거울은 아직까지 출토되지 않았는데, 청동이 너무 귀하여, 제사와 연회에만 쓰이고 여인들에게 차례가 가지 않은 듯하다. 마찬가지로 상나라에는 메소포타미아와 고조선에서 쓰였던 청동 방울이 없고, 병기에는 청동 창촉만 있다.

3. 상나라 초기의 酒器, 食器, 水器 (귀예 박물관)

상 시대 청동기의 제일 크고 좋은 표본은 대부분, 장개석 총동이 대륙을 떠나면서 대만으로 가져갔고, 이것들은 지금 고궁(古宮) 박물관에 진열되어 있으나, 사진을 허락하지 않는다. 여기에 있는 사진은 유럽 최대의 아시아 문물을 소장하고 있는 국립 기메동양 박물관 (Musée Guimet, Paris)에서 찍은 것이다. 작업 도중에 집을 빌려 준 Jean-Pierre에게 감사드린다.



이것은 작(卣, 爵) 또는 각(角 jiao) 술잔, 기원전 16세기 (二里頭 문화).

옌리토 또는 이리두 문화의 酒器는 주로 두 가지, 작(爵)과 각(觥)이다. 초기에는 제사 지낼 때, 술을 대을 필요를 못 느껴, 수직 막대기를 붙이지 않은 듯하다. 또한 상 초기에는 청동이 귀해서 화려한 장식이나 무늬를 붙이지 않았다.



罍(lai, 술잔 가), 옌리강(二里岡) 문화, (기원전 1600-1300년).

이것은 발효된 술을 화로 불에 달고 잔에 붓는 항아리. 이 한자는 두 개의 막대기까지, 술잔 모양을 그대로 닮았다. 수직의 두 막대기는 화로에 술을 대을 때, 안정을 위한

것. 바른 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술을 따를 때 왼손의 엄지와 검지로 두 막대기를 잡아서 작은 잔에 술을 따를 듯 가는 작보다 3배 정도 크다고 한다. “술잔 가”의 罍는 잘못되었고 “술그릇 가”로 고쳐야 할 듯하다. 예전에 한글로 훈을 붙이는 사람들이 실제로 물건을 보지 않고서 번역한 듯하다. 뜻을 적는 훈은 한글이 발명된 후에 만들어진 것이니, 이조 초기의 번역일 것이다.



정(ding,鼎, 솥), 옌리강(二里岡) 문화 (기원전 1600-1300년). 이것은 고기를 삶는 그릇인 듯.

II

1. 청동기의 원료와 기술

선웨이동을 비롯한 일곱 저자가 2016년에 “은나라 청동의 기원”에 관하여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들은 상나라 청동이 다른 곳에서 발견되는 청동과 달리, 주석과 구리의 합금이었다고 밝히고, 주석을 아프리카에서 수입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러나 상나라는 먼 곳과 무역을 기피하였고, 인근의 몇 지역(아직 강력한 국가가 생기지 않은 대만, 고조선, 일본)과 무역을 한 기록이 있다.

주석은 양자강을 따라서 옌리토 시기와 상나라 시대에 추출되었고, 옌리토 지역은 나중에 상나라에 속했다. 후일에 한대에 이르러 경제 활동의 증가와 함께 귀족들의 청동 기술 수요가 늘어나자 주석은 운남 지방에서 수입되었다.

구리도 또한 상나라 때에 동루산(銅綠山) 광산에서 대규모로 추출되었고, 이 광산은 거의 한대에 이르기까지 (기원전 1600-300년 경) 계속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신석기 시대에 풍부한 구리와 주석을 손쉽게 구할 수 없었다면, 상나라에서 청동기 문화가 꽃필 수 없었을 것이다. 대만의 고궁 박물관에 소장된 것과 같은 양질의 대형 청동기 기물을 대량으로 생산했다는 것은 상나라 안에서 원료를 조달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2. 상나라 청동 문화의 출처: 상나라의 청동 문화는 중국인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일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청동 문화가 처음으로 (기원전 3300년경) 발달되었다. 중국에서 청동기 시대는 상나라 (기원전 1600년 경-1046년)에 시작되었으니, 양 문화 사이에 천년 이상의 간격이 있다. 그러나 청동 문화를 메소포타미아에서 빌려 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게다가 중국의 원시 도기 중에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만들어진 암포라와 비슷하게 밑이 뾰족한 항아

미주 동창회 제27차 전국 평의원 회의 일정

Crowne Plaza Boston-Natick, 1360 Worcester St., Natick, MA 01760, USA

Time \ Date		6월 15일 (금요일)		6월 16일 (토요일)		6월 17일 (일요일)	
오전	7:00 - 8:30			조찬			
	8:30 - 9:00			등록 접수			
	9:00 - 10:00			평의원 회의	오전 회의		
	10:00 - 11:30				점심 식사		
	11:30 - 12:00						
오후	12:00 - 1:30	등록 접수		평의원 회의	점심 식사		
	1:30 - 2:00						
	2:00 - 3:00	“한반도의 통일은 가능한가?” 국제정치학 이재진 교수			오후 회의 속개		
	3:00 - 3:30						
	3:30 - 4:00				특별 강연 (NE 동창회)		
	4:00 - 5:00	“(가제) 한미동맹의 방위전략” 국방부 김경옥 과장					
	5:00 - 6:00			휴 식			
	6:00 - 6:30	전야제	환영사, 포상자 시상, NE 동창회 장학금 수여	휴 식			
	6:30 - 7:00						
	7:00 - 7:30						
	7:30 - 8:00						
	8:00 - 8:30						
	8:30 - 9:00	참석자 소개 및 친목	만찬	환영사, 포상자 시상, 미주 동창회 장학금 수여			
	9:00 - 9:30			식사			
	9:30 - 10:00			주중광 교수 특강			
	10:00 - 10:30	지부장 모임		음악회 및 친목			

리들이 많다. 메소포타미아의 도기는 기원전 5천년에 이미 도공들이 돌림판을 쓴 증거가 보이는데, 중국이 돌림판을 쓴 것은 기원전 3천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러한 시간적 차이를 보면, 중국인이 메소포타미아나 서 아시아에서 도기 기술을 배우고 중국 땅으로 이주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몇천 년 전에 중국인과 한국인의 선조들이 서 아시아에서 살다가 차츰차츰 동쪽으로 이동하여, 황하 · 양자강 · 한반도에 정착하였고, 메소포타미아의 청동 문화가 漢族과 동이족을 통해서 중국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다.

빌려왔든 독자적으로 개발했든, 상나라 사람들은 청동 문화를 최고로 발달시켰다. 한 민족은 한반도에 정착한 이후로, 중국인에게서 파해도 보고 문화적으로 먹을 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바로 옆에 있으면서 고조선 사람이 전혀 중국의 청동기를 빌려온 흔적이 없다. 한반도에서 발견되는 청동기는 비파형 또는 세형 청동검, 청동 단추이며, 상 나라에서 제사에 쓰였던 술잔이나 식기(食器) 따위로 전혀 수입된 흔적이 없다. 서주 · 춘추 시대에 중국에서 쓰였던 청동기를 모방하거나 수입된 것도 한반도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아마도 항해 기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상 시대에는 상나라와 고조선 사이에 거의 문화 교류나 무역이 없었는지도 모른다.

상나라의 청동기는 홍산(紅山) 문화(기원전 4500-3000년)와 랑주(良渚) 문화(기원전 3400-2250년) 지역에서 신석기 시대에 陶器나 玉器로 만들던 것을 새로운 재료, 청동이 만든 그릇들이고, 상 시대에는 도기와 청동기가 공존하였다. 상 시대 초기의 청동기는 청동이 귀했기 때문에, 대부분 제사를

지내거나, 왕이나 제후들이 연회를 베푸는데 쓰이던 제기(祭器)였다. 환웅이 가져온 청동검 · 청동 거울 · 청동 방울을 神物로 여겼다는 것은 기원전 2300년 경에 고조선에 청동기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가리킨다. 그러나 상나라와 고조선 지역에 공통된 청동 기물이 발견되지 않은 것은 양 지역 사이에 문화적 교류나 무역이 별로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대 후기에 소득이 늘어난 때문인지 청동 그릇들의 치장이 화려해지며, 귀족들 사이에서 청동기가 더 널리 쓰인 듯하다. 서주 시대나 춘추시대에 들어가면 더욱 정교하게 만든 청동 그릇들이 부유한 귀족들 사이에서 널리 쓰인다.



이것은 준(Zun 尊, 술잔), 인양 시기 (기원전 12-11세기), 아구리가 넓고 바닥이 평평한 술 잔이다. 청대까지도 계속 이 모양의 술잔을 모방하였다. 수직 막대기들이 붙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다른 술 그릇이나 항아리에 술을 대운 뒤에, 이 술잔에 술을 따

르고 마신 듯하다.



卣(술통 유), 상말기에서 서주 초기, 기원전 11세기. 동물 모습의 장식이 손잡이에 있다. 이러한 술항아리에는 술을 따를 때 술항아리를 쉽게 기울 수 있도록 손잡이를 올리고 내릴 수 있게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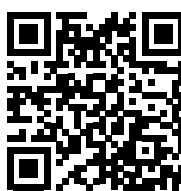
력(鬲, 술 력), 고기 따위의 음식을 끓이는 그릇이다. 옌리강과 안양 문화 사이, 기원전 14-13 세기. 력은 鼎보다 키가 대체로 짧다.



이것은 罍(조미할 화), 술에 섞을 물을 담는 그릇이다. 상 말기에서 서주 초기 (기원전 11세기). 이 그릇은 罍과 달리, 술의 농도를 약하게 만들기 위한 물을 담은 그릇이다. 허벅지 같이 통통한 다리는 신석기 시대부터 내려온 것.

동창회비 온라인 납부 방법

다음의 QR code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장영태 (독문 64)

위싱턴주
2018 5월 SNU Forum

체험과 문학 괴테의 문학과 그의 연인들

요한 볼프강 괴테(Johann Wolfgang Goethe)는1749년 8월 28일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에서 태어나 1832년 3월 22일 일멘나우에서 세상을 떠난 시인이다. 84세의 보기 드문 긴 생애에 걸쳐 괴테는 여러 방면에 탁월한 업적을 남겼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모든 장르에 걸쳐 불후의 명작을 남긴 시인이자 작가이다. 독일문학사는 물론 세계문학사를 통털어서 살아 있을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괴테만큼 변함없는 사랑과 존경을 받는 작가나 시인은 없는 것 같다. 『젊은 베르터의 고통』을 비롯하여 교양소설의 효시이자 그 모범인 『빌헬름 마이스터』, 현대사회에서의 결혼과 인간관계를 다루고 있는 『친화력』 등의 소설, 『타우리스의 이피게니에』, 『토르콰토 타스』 그리고 무엇보다도 『파우스트』와 같은 드라마, 청년기로부터 말년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느낌과 체험 그리고 사상을 남김없이 노래하고 있는 서정시는 하나같이 세계문학의 보물들이다. 그의 시들 가운데 「마왕」, 「들장미」, 「그 나라를 아시나요」 등 수많은 작품들은 슈베르트와 슈만, 베토벤등에 의해 가곡으로 작곡되어서 우리들이 늘 만나고 있기도 하다. 또한 괴테만큼 많은 신빙성 있는 자기증언의 글을 남긴 작가나 시인도 없다. 『시와 진실』, 『이태리 여행기』 등은 자전적인 기록물이고, 일만 오천 통이 넘는 편지, 52년간에 걸친 일기, 그리고 에커만의 『괴테와의 대화』에 실려 있는 것과 같은 대화록을 남겼다.

괴테는 시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자이기도 했다. 그의 『식물변형론』과 『색채론』은 자연과학에 대한 깊은 연구의 결과물이다. 괴테의 『색채론』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학에서도 색채이론 강의의 참고서적이며, 그가 처음 발견한 인간의 삼각굴은 오늘날의 해부학에서 『괴테뼈』라 부르고 있기도 하다. 당시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블루먼바하 등의 학자들이 인간에게는 동물에게 있는 삼각굴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괴테는 이 뼈가 다만 유착되어 있을 뿐 인간에게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해 냈던 것이다. 이 삼각굴의 발견은 자연과학 상의 발견일 뿐만 아니라, 생물진화의 끊어진 단계를 이어놓은 의미 있는 발견이었다.

괴테는 또한 정치가이자 뛰어난 행정가였다. 그는 1775년 26세의 나이에 바이마르공국(公國)의 국무를 맡아보기 시작해서 1788년 6월 정무의 일선에서 물러날 때까지 공국의 외교, 산업, 문화, 건설에 이르는 모든 국무를 떠맡아 수행했다. 비밀외교장사관으로서의 외교업무, 국방위원회 및 도로공사위원회의 지도, 재정국의 책임자로서 폐광된 일멘나우 광산의 재가동 등 모든 분야의 정무를 도맡았던 것이다. 정무 일선에서 물러난 후에도 칼 아우구스트 공작의 곁에서 특히 공국의 학술과 예술기관의 감독을 맡았다. 바이마르

의 공직을 수행하는 동안에 괴테는 나폴레옹을 만나기도 했으며, 1815년 빈 회의 결정에 따라서 작센, 바이마르, 아이젠나흐등이 합쳐서 하나의 대공국이 되자 괴테는 <바이마르, 예나의 학술 및 예술기관>을 비롯하여 대공국의 모든 문화기관을 감독하는 책임을 맡게 되었고, 곧이어 재상에 임명되었다. 나폴레옹의 대륙침공으로 전란이 온 나라를 휩쓸고 있을 때, 괴테는 피히테, 아르트, 슈타인등이 보여 준 열정적인 애국심이 아니라, 파괴된 시설을 재건하고, 세계주의자로서, 문화적인 긍지를 가지고 실천으로 바이마르를 지켜 나갔다.

이렇게도 자유분방하고, 현실세계의 여러 방면에 관심을 가지고 또 많은 성취를 이룩

이런 사실로 비추어 볼 때, 괴테의 연애훈은 그의 문학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에피소드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괴테의 많은 작품들은 여성들과의 만남과 헤어짐의 체험으로부터 생성되었다. 그의 위대한 작품들의 배후에는 안나 카타리네 헨코프, 프리데리케 브라운, 샤를로테 부프, 릴리 헨넨만, 샤를로테 폰 슈타인, 크리스티아네 볼피우스, 마리안네 폰 빌레머, 올리케 폰 레베초프 등의 아름답거나 지혜로운 여인들이 서있는 것이다.

독일최초의 국민문학이며 괴테의 문명을 유럽에 날리게 한 『젊은 베르터의 고통』도 그의 사랑의 체험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슈트라스부르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던 괴테는 1772년 봄 아버지의 권고로, 고등법원이 소재했던 베츨라(Wetzlar)로 법관 견습을 위해서 부임했다. 23세의 청년 괴테는 그곳에서 우연한 기회에, 샤를로테 부프(Charlotte Buß 1753-1828)라는 19세의 여성을 만난다. 샤를로테 부프는 금발머리에 파란 눈의 지성적인면서도 순박하고 태도가 정숙한 현모양처형의 여성이었다. 그런데 로테는 브레멘의 공사관 서기인 요한 크리스티안 케스트너와 15세부터 약혼한 관계에 있었다. 괴테와 로테, 케스트너는 서로 깊은 신뢰를 가지고 교제했으며, 차츰 긴장관계로 변하게 되



한 그가 어떻게 평생을 시인으로 남아서 창작을 계속할 수 있었을까. 그런 의문은 괴테의 경우에는 우문에 해당된다. 왜냐면 이러한 모든 그의 성취는 바로 그가 시인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괴테가 자기정성과 형성을 힘의 원천으로 삼아 인간으로서의 모든 가능성 실현에 노력을 기울였다면, 그 성장과 실현에 있어서 『글쓰기』가 하나의 필수요건이었던 것이다. 그는 『시와 진실』에서 “나에게 기쁨이나 슬픔을 주면서 관심을 일으켜 준 것들을 시라고 하는 형상으로 바꾸어 놓음으로써 한편으로는 사물에 대한 나의 관심을 정돈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의 안정을 얻게 된다”고 쓰고 있다. 그는 자신의 생활과 체험을 문학의 원천으로 삼았으며, 자신이 창조한 문학의 샘으로부터는 삶의 생명수를 마셨던 것이다. 그는 에커만의 대화에서 나폴레옹이 침입했을 때 애국시를 쓰지 않았다고 비난을 받았음을 회상하면서 “나는 체험하지 않는 것, 고민해 보지 않은 것을 시로 쓴 적이 없으며 말로도 해본 적이 없다. 사랑의 시는 사랑하고 있을 때에만 썼다.” 그런데 미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증오의 시를 쓸 수 있겠는가라고 피력하고 있다. 아마도 괴테만큼 생활과 문학을 일체로 여기고 실천한 시인은 세계문학사상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하여 작품 중에서 케스트나는 알베르트로, 괴테 자신은 베르터로, 그리고 부프는 로테로 등장한다. 1, 2부로 나누어져 있는 이 소설의 2부에서의 베르터의 자살은 유부녀를 사랑하다 자살한 예루살렘이 모델이 된 것이다.

『젊은 베르터의 고통』은 괴테를 독일의 제1인가는 시인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 소설에 대한 반향도 대단했다. 유럽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출판되었다. 소설의 주인공과 같이 푸른 옷에 노란 조끼를 입는 것이 유행했고 이혼하는 사람의 수가 많아졌으며 자살자도 격증했다고 전해진다.

한 젊은이의 격정적인 사랑을 다루고 있는 단순한 연애소설이 그렇게 대대적인 인기를 얻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베르터 개인의 특별한 이야기가 괴테를 통해서 모든 젊은이의 이야기로 변용된 때문이었다. 『베르터』는 ‘길고 순수한 감수성과 참다운 투신력을 구비하고 공상적인 꿈에 탐닉하여 사색에 묻히고 마침내 불행한 정열로, 특히 무한한 사랑으로 착란을 일으켜 자신의 머리에 총을 쏜’ 젊은이는 그대로 당시의 젊은 세대의 심적인 상태를 반영하고 있었다. 자아의 절대화, 모든 사회적 규범과 관례로부터 자유로운 존재에 대한 열망, 변화 가능한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유일하며 반복할 수 없는 고유한 존재로서의 자아 정체성을 일깨워 준 것이다. 그러면서 절대적 자아의 자유가 축복이 아니라 파멸일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증언해 주었다. 말하자면 『베르터』는 단순한 연애소설이 아니라, 어느 사이에 사회소설로서의 면모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한 여인에 대한 순간적인 사랑이 이처럼 의미있는 작품으로 승화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은 놀라울 일이다.

『젊은 베르터의 고통』을 쓴 후 1775년까지 괴테는 프랑크푸르트에 머물렀다. 이때에 괴테는 오펜바하의 한 부유한 미망인의 딸인 열 일곱살의 릴리 헨넨만(Anna Elisabeth (Lili) Schönmann, 1758-1817)과 또 한번 정열적인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평생 가장 감동적이고 행복한 시절의 하나”로 기억하게 만들 어 준 이 사랑은 정식 약혼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4월에 맺었던 약혼은 9월에 깨지고 말았다. 괴테는 아름다운 릴리의 외모에 반했었으나 너무 부유한 상류층 출신인 릴리 주변의 분위기가 그를 불편하게 했던 것 같다. 그러나 이 짧은 기간동안 정숙하고 순결한 릴리에 대한 사랑을 괴테는 평생 잊지 않았다. 릴리가 세상을 떠난지도 오랜 시간이 흐른 후 그녀의 손녀인 투르크하임 양이 바이마르에 와서 괴테를 방문했을 때, 81세의 괴테는 “나는 릴리와 연애시절만큼 진정한 행복에 가까이 다가선 적이 없었다” 괴테의 문학에서 모두 14편의 소위 『릴리-서정시』(Lili-Lyrik)는 이 체험에서 우러난 열매들이다.

괴테는 릴리와 파혼한 후 1775년 11월, 바이마르공국의 칼 아우구스트(Karl August) 대공의 초대로 바이마르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샤를로테 폰 슈타인(Charlotte von Stein, 1742-1827) 부인을 만나게 되었다. 바이마르 공국의 사마장인 슈타인 남작을 남편으로 둔 슈타인 부인은 괴테와는 평생 잊지 않았으며, 처음 만났을 때 이미 7남매를 낳았다가 4남매를 잃는 고난을 겪은 유부녀였다. 슈타인 부인은 눈에 멀 만한 미모를 가지지는 않았으나, 기품이 있고 단아한 여성이었다고 전해진다. 괴테와 슈타인 부인 사이에

는 많은 편지가 오갔는데, 괴테의 슈타인 부인에 대한 애정은 급속히 진전되었고 그 애정을 숨기지도 않았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되었다. 슈타인 부인 역시 남편이 애정생활에 무관심했기 때문에 괴테의 접근을 반겼던 것 같으나, 그 여자가 괴테에게 보냈던 편지는 후일 그녀의 요구로 되돌려져 그녀에 의해 완전히 소각되었다. 반면 괴테가 보낸 편지는 모두 보존되어 있어 이 편지 자체가 세계문학사상 드물게 보는 서정시의 보고라고 평가되고 있다.

무엇 때문에 괴테는 일곱 살이나 연상이고 아름답지도 않은 슈타인 부인에 대해서 그렇게 애정을 느끼게 되었는가. 괴테는 비이랴트에게 보낸 편지에서(1776.4) “나는 이 부인이 내게 대해서 가지는 중대함과 힘을 윤회로부터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부부였던 것입니다.”고 쓰고 있다. 이렇듯 괴테가 슈타인 부인에게 부부애에 가까운 애정을 느끼고 있었던 것은 그녀가 괴테의 영혼을 구석구석까지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괴테전기작가들은 말하고 있다. 괴테와 슈타인 부인은 철학과 박물학 등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었고 슈타인 부인은 괴테를 절도 있고 조화있는 인간으로 이끌어갔으며, 괴테의 성숙기가 비로소 열리게 되었다. 괴테의 시에도 세계관을 피력하는 작품들이 나타나고, 대상에 조응히 눈길을 멈추고 있는 침착성도 드러난다. 거의 시라도 이름 붙일 수도 없는 감미롭고 동경에 찬 시들이 편지에 첨부되어서, 또는 편지를 대신해서 슈타인 부인에게 보내졌다.

1776년 4월 14일 슈타인 부인에게 보낸 시 『어찌하여 너는 우리에게 깊은 살핍의 눈길을 주어』의 한 구절에는“말하라, 운명은 얼마나 우리를 그렇게 단단히 묶었는가?, 그대는 전생애/나의 누이 아니면 나의 아내였나?”라고 토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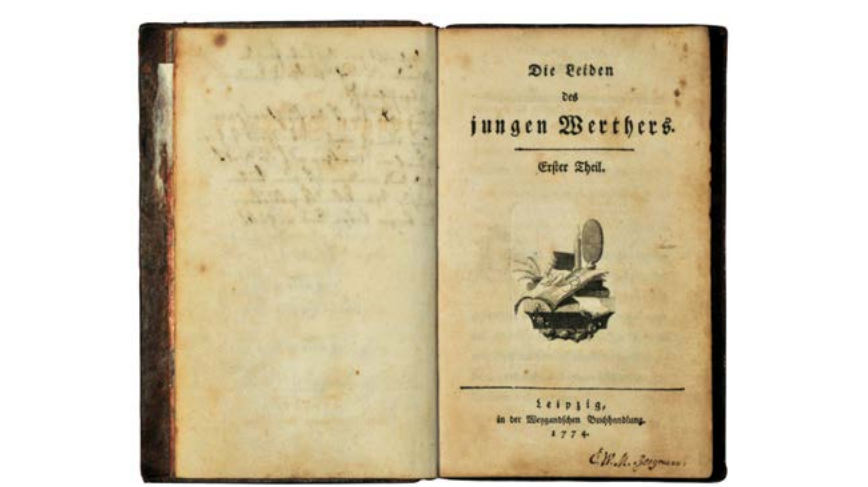
슈타인 부인은『베르터』의 작가인 괴테로 하여금 슈트름 운트 드랑(질풍노도)시대를 벗어나 자기를 개조하게 만들었으며, 이를 통해서 독일고전주의의 한 가운데에 서도록 만든 여성이다. 슈타인 부인의 사랑에 의해서 『베르터』에 나타났던 절대자아의 자기주장을 제한받고 사려 깊게 되었고, 괴테는 감정만능의 세계를 벗어나 명석과 조화의 세계로 옮겨 가게 되었다. 괴테의 가장 고전주의적인 희곡작품인 『타우리스의 이피게니에』에서 이피게니에는 슈타인 부인의 이미지를 빌리고 있다. 괴테의 『이피게니에』에서 이피게니에는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미개한 나라의 토아스왕을 진실 하나로 설득하여 탄타로스가문에 대한 신들의 저주를 종식시키고 형제살해의 죄에서 구원한다.

에우리피데스와 라신느가 이미 같은 소재로 드라마를 썼지만, 인간의 힘을 통한 구원은 이들 작품에서의 자동으로 등장하는 신에 의한 구원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어떤 신적인 구원도 오로지 인간을 통해서만 실현된다는 믿음은 괴테 문학의 토대이다. 슈타인 부인에 의해서 이러한 휴머니즘으로의 대전환이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괴테의 슈타인 부인과의 교제는 독일문학사의 한 사건이라고 할 만하다.

1788년 이탈리아 여행에서 돌아온 괴테는 모든 정무로부터 은퇴하였다. 그리고 곧이어 크리스티아네 볼피우스(Christiane Vulpius, 1765-1816)와 동거생활을 시작했다. 당시 스

물 세 살의 처녀 크리스티아네는 바이마르의 소시민 가정에서 태어나 빈한한 가정을 위해서 조화공장의 직공으로 일하고 있었다. 오빠의 취직을 부탁하기 위해서 괴테를 방문했다가 그녀의 ‘구김 없는 성품’으로 괴테의 환심을 샀고 동거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바이마르공국의 대신이며 『베르터』의 작가인 괴테의 사회적 신분으로 볼 때 두 사람은 어울리지 않는 것은 물론, 정식 결혼도 아닌 두 사람의 동거는 사회의 지탄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1789년 5월 슈타인 부인은 괴테에게 크리스티아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 여자와 헤어지든지 자기와 절교하든지 하라는 편지를 보냈다. 이 편지에 대한 괴테의 답장은 영원히 오지 않았고, 이후 쉼터 부부의 노력으로 관계가 다소 회복될 때까지 5년간 서로가 피하는 서먹한 관계가 되었다. 괴테를 변명하자면 이태리 여행을 통해서 발견한 자유에 대한 보다 더 큰 가치와 심미적 체험이 그로 하여금 사회적인 통념을 뛰어 넘을 수 있도록 용기를 부여했을지도 모른다. 여하튼 사회의 지탄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괴테는 크리스티아네와의 생활에 크게 만족하였고, 둘 사이에는 다섯 명의 아이가 태어났는데 1789년에 낳은 첫아들 아우구스트 만이 성장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어린 나이에



죽었다. 괴테는 1806년 바이마르가 나폴레옹의 수중에 들어가고 나폴레옹의 라인동맹에 가입하기에 이르는 전란 중에 크리스티아네와 정식으로 결혼했다. 동거생활을 시작하지 18년만의 일이다. 그는 늘 그녀의 헌신적인 봉사에 감사하고 있었으며 아들의 장래와 전란가운데에서 한 여인의 위치를 고려했을 때 정식 결혼이 옳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10월 17일 고등 중무원 권터에게 “나는 나를 위해 많은 일을 해주고, 또한 시련기를 나와 함께 지낸 나의 작은 여자친구를 민법상 완전한 아내로 승인하고자 합니다.”고 써 보냈다. 10월 19일에는 결혼식도 행해졌다. 슈타인 부인과의 결별과 크리스티아네와의 결합의 시기를 뚜렷하게 반영하고 있는 괴테의 작품이 『로마의 비가』이다. 1813년 괴테는 크리스티아네에게 보낸 편지에 한 편의 시를 동봉했다. 이렇게 그녀에게 시를 동봉한 일은 거의 없었던 일이다. 이 『발견』,이라는 시는 25년 전 그녀를 만났을 때에 대한 회상을 담고 있다.

“나 홀로/속 속을 거닐었네./무엇을 찾으려는가/경라도 없이.//그날가운데 /작은 꽃 한송이 보았네!/별처럼 반짝이며, 눈망울처럼 아름다운 꽃!//..”뿌리하나 생채기 없이/그루 째 그 꽃 파내어.//호젓한 자리 골라/다시 심어 놓으니/가지치고, 연달아/꽃피어 질 줄을 모르네!”

역시 괴테가 쓴 시 『들장미』의 모티브를 생 각나게 하는 시이기도. 여기서 들꽃은 크리스티아네이다. 이 시기에 크리스티아네와 연관되어 쓴 작품들은 슈타인 부인에 대한 것과는 다르게 자연스러운 관능적 사랑이 표명되어 있다. 크리스티아네는 51세에 사망하고 괴테는 67세에 혼자가 되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2년 전 괴테는 페르시아의 시인 하피스의 번역 시집을 읽고 감동한 나머지 『서동시집』을 집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서동시집』은 하피스에 대한 감동만으로 생성된 것은 아니고 마리안네 폰 빌레머(Marianne von Willemer, 1784-1860)와의 사랑이 배경을 이루고 있다. 괴테는 1814년 9월 여름 내내 요양에서 돌아오는 길에 잠만 들린 고향 프랑크푸르트에서 은행가이며 추밀원의원이었던 야콥 빌레머의 젊은 아내 마리안네를 만나게 되었다. 오스트리아 린츠출생의 그녀는 여배우로서 프랑크푸르트까지 왔다가 당시 그곳 극장의 고문이었던 빌레머에게 인정을 받고 30세의 나이에 57세의 빌레머의 세 번째 아내가 되었다. 그녀는 다재다능하고 기품이 뛰어났으며 활발한 성격의 소유자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줄 아는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31세의 여인과 66세의 괴테 사이의 열정적인 사랑은 『서동시집』의 『줄라이카편』

없지 않았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다. 괴테는 마리안네에 대한 정화된 정신적 사랑을 창작의 열정으로 소화하면서 노년의 고독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괴테는 1822년 6월 요양차 마리엔바트로 갔었고 거기서 그는 마지막 사랑을 만나게 된다. 미망인인 어머니 아마리예를 따라와 그곳에 머물고 있었던 18세의 소녀 올리케 폰 레베쾅프(Ulrike von Levetzow, 1804-1899)를 만난 것이다. 처음에는 단순히 아버지와 같은 사랑으로 대했던 올리케가 이제는 그의 정열적인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 약 2주간 릴리케 곁에 머물었던 괴테는 9월 5일 올리케와 헤어져 바이마르로 돌아와야 했는데, 귀향하는 마차 안에서 『마리엔바트의 비가』를 썼다. 괴테는 그 시를 질이 좋은 모조 양피지에 손수 정서해서 빨간 모로코 가죽으로 장정을 입히고 비단 끈으로 묶어 놓았다. 일흔 네살 이었던 괴테의 열 아홉살 소녀에 대한 구애는 열렬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생애 최후의 행복한 사랑의 좌절이 이 비가 안에 그대로 투영되었다. 괴테는 칼 아우구스트 공을 통해서 실제 올리케와 결혼을 신청하기까지 했으나 레베쾅프 부인이 답변을 주지 않았다. 올리케는 평생을 결혼하지 않고 살다가 9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1831년 8월 26일 괴테는 손자들을 데리고 튜링겐 숲 속의 일멘나우에 도착했다. 27일에는 키텔한의 산장에 들러 그가 1780년 9월 6일 그 산장의 벽에 써 놓았던 한편의 시를 읽었다. 그의 눈에는 가득 눈물이 고였다.

“모든 산봉우리 위에/평온이 깃들고/모든 우듬지마다에서 /그대 숨결의 느낄 수 없다. /작은 새들도 숲 속에서 울음을 멈추었다./기다려라, 곧/ 그대 또한 편히 쉬리라!”(그대의 밤 노래) 괴테는 당시, 이 시를 편지에 동봉하여 슈타인 부인에게 보냈었다.

1832년 3월 22일 오전 11시 반, 괴테는 세상을 떠났다. 괴테는 천재였다. 그는 누구든지 겪을 수 있는 현실의 체험과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자연 현상으로부터 언제나 보편적인 진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단순 명료하게 표현해 냈다. 괴테는 자기 창작의 비결을 에커만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세상은 넓고 풍부하며, 인생은 너무나 다양하므로, 시를 쓰고자 하는 동기가 없어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네. 그러나 모든 시는 어떤 계기에서 써야 하네. 다시 말해 현실이 시를 쓰기 위한 동기와 소재를 제공해 주어야 하는 걸세. 어느 특별한 사건도 시인이 그것을 다루었을 때에만 비로소 보편성을 띠며 시가 되는 거야. 내 모든 시는 어떤 계기에 의해 쓰여진 것이고, 현실의 자극은 받아 현실에 기반을 두고 뿌리내린 것이네. 현실에 기반을 두지 않고 허공에 뜬 시는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네!”

자신의 『친화력』에 관해서 말한 것처럼, 괴테의 작품에는 그가 체험하지 않은 것은 한 줄도 없다. 그러나 체험 그대로인 것 역시 한 줄도 없다. 이것이 괴테문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괴테의 많은 여인들과의 사랑의 체험과 그것의 문학적 형상화가 이러한 사실을 잘 증언해 준다. ■

홍익대학교 명예교수



정홍택 (상대 61)

어른을 위한 동화

소금 인형의 모험

옛날 아주 옛날, 산은 푸르게 높고 골은 한 없이 깊은 숲 속 끝에 하얀 산이 빼죽 올라 구름에 닿을 듯 서 있었습니다. 그 하얀 산은 소금산이기 때문에 하얗답니다. 오래 오래 전에는 여기가 바다였다고 할아버지들이 얘기해 주었어요. 해가 나면 그 산은 하얗게 반짝거려 사람들은 멀리서 보고 눈이 와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는데 아무도 그 게 소금덩어리인지 모르대요. 너무 멀고 숲이 워낙 깊어 아무도 가 본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이 소금산에 예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머리로 하얗고 동굴동굴, 몸통도 하얗고 동굴동굴, 눈사람 같아서 소금인형이라고 불렸어요. 소금인형은 주위의 사랑을 흠뻑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서 어느덧 장대한 청년이 되었답니다. 아직도 온 몸은 눈처럼 하얗서 소금인형은 그대로 별명이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소금인형은 세상이 보고 싶어졌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난 보고 싶어. 세상 끝까지 한번 가 볼까?' 생각하고 소금산을 떠났습니다. 산이 가로 막으면 넘어가고 강을 만나면 뗏목 만들어 건넜습니다. 밤이되면 쉬고 낮에는 걷고 걷고 또 걸었습니다.

드디어 어느 마을에 도착했어요. 마을 어귀로 들어가는데 거기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큰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마을 청년들이 들에서 큰 들소를 잡았대요. 온 동네가 다 싹쓸 먹어도 남을 그렇게 큰 등치였습니다. 모두 동그렇게 둘러앉아 고기를 뜯어 불에 구워 먹고 있었습니다. 소금인형이 다가갔죠.

"넌 누구냐?"

동네 어른이 처음 본 하얀 청년을 보고 물었습니다.

"난 소금인형인데요 저기 보이는 하얀 산에서 왔어요."
"어, 지나가는 길인 모양인데 여기 와서 같이 먹고 가렴."

어르신네가 자기 옆에 자리를 마련하며 앉으라고 손짓 했습니다. 소금인형은 껌뻑 절하고 그 자리에 앉아 그 구운 고기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싱거워. 맛이 하나 없네."

"뭐? 맛이 없다고? 허허, 이 녀석 보게나. 기껏 먹여주었더니 그대 한다는 소리가 맛투정이야?"

어르신을 비롯해서 동네 사람들의 얼굴이 순간 험악해 졌습니다. 당장 일어나서 쫓아낼 기세였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예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제 말은 제 말은..."

놀란 소금인형은 벼란간에 일어난 일에 어쩔줄을 몰랐어요. 동네 젊은이들은 차츰 더 가까이 다가와 당장 때려쫓아낼 참이었거든요.

"뭐가 이렇게 말이 많아. 당장 꺼지지 않으면 우리가 꺼지게 해 주지." 제일 덩치가 큰 젊은이가 동동이를 쳐들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아주 맛있게 먹는 법을 가르쳐 드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아주 맛있게..."



"맛있게 먹는 법? 그게 뭐네?"
"예, 이거 보세요. 고기를 입에 넣고 제 손을 조금 핥아 보세요. 정말 맛있을 거예요."

소금인형은 자기 손을 그 친절한 노인에게 내밀었습니다. 그 어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미적미적 혀를 내밀고 손을 조금 핥았습니다. 동네 사람들 모두가 어른의 얼굴을 쳐다 봅니다.

"아, 맛있다. 어디 한 번 더 핥아보자."

어른이 좋아하자 동네 사람들도 덩달아 혀를 내밀고 소금인형에게로 달려들었습니다.

"자,자, 줄을 십시다. 어른부터 나이 순서대로 자, 자."

소금인형의 손을 핥은 사람들은 모두 입을 찹찹대며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라요. 소금인형의 손은 조금씩 작아지고 있다는 것을. 그래도 소금인형은 말 하지 않고 동네 사람들이 다 핥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한참 후 일어섰어요.

"이제 저는 가야해요. 갈 길이 멀거든요."

"네가 가고 나면 우린 어디서 그 맛있는 소금을 얻을 수 있지? 여기서 우리랑 같이 살자꾸나."

"아니예요. 저는 세상을 보고 싶어요. 안녕히들 계세요."

그러자 험상궂은 젊은이 하나가 앞으로 쏙나서며 소금인형의 목을 우악스럽게 잡았습니다.

"넌 못가. 우린 이제 짬 맛 없인 살 수 없어. 널 잡아두고 몸을 잘라 우리 모두 나누어 가질거야."

그러자 동네사람들이 달려들어 소금인형을 톱 톱 먹어 버렸습니다.누군가는 도끼를 가지러 동네로 들어갔고요.

"날 이렇게 목지 마세요. 이래봤자 며칠 못가요. 내 몸이 다 없어지면 어디서 소금을 얻죠?"

동네 어른이 아쉬운 듯이 물었습니다.

"그렇구나. 무슨 방법이 없을까?"

"있어요. 저기 저 숲 속 끝에 하얀 산이 보이죠? 거기 가면 얼마든지 소금을 얻을 수 있어요. 거기 가는 길을 가르쳐 드릴테니 이 줄 좀 풀어주세요."

사람들이 포승줄을 끊어주자 소금인형은 소금산 가는 길을 가르쳐 주고 열린 떠났습니다.

소금인형은 가면서 작아진 손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마음이 아주 복잡해졌습니다.

"난 마을사람들에게 잘한걸까?" 속으로 생각하며 속상해 하자 마음 속 또 한 마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 그래. 좋은 일을 한거야. 사람들이 네게 한 일은 섭섭 하지만, 이렇게 맘이 편하고 즐겁잖아?"

소금인형은 나쁜 기억은 지우고 사람들의 행복했던 얼굴만 기억하기로 마음을 정했어요. 그리고 다시 노래를 부르며 길을 갑니다. 그렇게 소금인형은 세상을 돌며 음식에 소금 쳐서 먹는 법과소금산엘 가는 길을 사람들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갔습니다.

이제 소금인형도 많이 늙어졌습니다. 더구나 사람들에게 소금의 맛을 알려주느라 아주아주 작아지기도 했죠.

"아, 이젠 집에 가고 싶어...엄마 아빠는 아직 살아계실까?"

그 때 하늘에서 햇님은 소금인형을 사랑스럽게 내려다 보고 있었어요. 또 구름은 하늘에다가 엄마 아빠의 웃는 얼굴을 크고 하얗

게 만들어 보여주었습니다.

"아, 너무 맛있어. 고마워요, 햇님, 구름님."
하늘을 쳐다보며 햇님 구름과 이야기하며 걸어 갔습니다. 어느덧 길은 끝나고 큰 물이 앞을 가로 막았습니다.

"여기가 세상끝인가봐. 그런데 저 큰 물은 뭐지? 뗏목으로도 건널 수 없겠네. 끝이 안보여."

이렇게 큰 물은 처음 보았습니다. 여태까지 본 강물은 조용히 흘러가기만 했는데 이 물은 마구 모래를 뒤엎고 바위에 부딪히며 큰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너는 누구니,큰 물아?"

소금인형은 온 힘을 다해 소리치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크고 우람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나는 바다야."

"바다가 뭐야?"

"음, 음, 쉽게 말하자면 나는 너야, 소금인형아."

"네가 나라고? 그럼 나는 너인가?"

"아니, 나는 너지만, 너는 내가 아니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하나도."

"좀 더 가까이 오렴"

소금인형은 조금 무서웠지만 용기를 내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네 발을 내게 넣어봐."

소금인형은 조심스럽게 한 발을 물에 담갔습니다. 그리고는 화들짝 놀라 얼른 발을 빼고 뒤로 물러났어요. 아, 근대 소금인형의 발이 보이지를 않아요. 더 이상한 것은 발이 없어졌는데 하나도 아프질 않아요. 어쩔줄을 모르고 있는데 바다가 말했어요.

"겁내지 말아, 소금인형아. 넌 그동안 좋은 일 많이 했어. 이젠 쉬어야 해."

"어떻게 쉴 수가 있지? 정말 난 너무 피곤해."

"아무 걱정말고 그냥 물 속으로 들어와. 네 고향 소금 산은 사람들이 깨 갈수록 점점 작아지지만 나는 한이 없단다. 네가 내게 안기지만 하면 너는 내가 되고 우린 한 없는 세월을 한 몸으로 살 수 있단다. 자, 자. 어서."

소금인형은 눈을 꼭 감고 바다에 풍덩 뛰어들었습니다. 그 품은 아빠의 우람한 품보다 더 많이 들적했고 엄마의 품보다 더 더 더 향기롭고 평안했습니다.

"아, 여기가 세상 끝이고 내가 정말 나인 곳에 왔구나."

소금인형은 너무 좋아서 그냥 눈을 꼭 감고 몸을 맡겼습니다. 완전한 평안이 온 몸을 감쌌습니다.

이렇게소금인형의 긴 여행은 끝이 나고 바로 영원이 이어졌습니다.

----- 끝 -----



한수웅 (의대 55)

비운의 화조(火鳥)

나혜석 (羅蕙錫 : 1896-1948)

나혜석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서양화가였으며, 조각가, 작가, 독립운동가, 언론인이었고, 한국 최초의 여성운동가였다. 그녀는 자작시 '노라'에서 밝혔듯이 "아버지의 착한 딸인 인형으로, 남편의 착한 아내인 인형으로 되기보다는 인간이 되기"를 원했다.

나혜석의 '여성주의 사상'은 일본에서 또 파리에서 썩듯 활력을 얻어 여필증부의 당시 사회에 큰 파문을 던졌다. 오노날의 여성운동은 사회적인 또는 입법적인 단체운동인데, 나혜석의 '노라'는 한 여성의 몸이 수행하고 감당하였다. 여간 힘겨운 운동이 아니었다. 그녀는 가부장적인 높은 편견의 벽을 넘지 못하고 희생되었지만 그녀의 '노라'는 오늘날의 여성주의운동(feminism)의 구심점이 되었으며 그 원동력이 되었다.

다재 다능했던 나혜석은 영어, 일본말, 중국말을 구사했고 유럽 여행기간중에는 프랑스어, 독일어를 배워서 완벽하게 구사하였다. 그녀는 전세계를 돌아다니며 '그림'과 '글'을 통해 확고한 자기 신념의 세계를 만들었던 예술인이었다. 그녀는 파리 체류시절 '스페인 국경', '파리 풍경', '별장과 '농촌 풍경' 등 인상파 풍조의 풍경화가 주조(主調)를 이루었다. 그러나 그녀의 초기작품 '만주 봉천 풍경' 등은 사실적이고 인상주의적인 화풍을 보이다가 파리를 방문하면서 그녀의 필치와 색채가 야수파적인 경향이 짙어졌다. 그녀가 서양화가이면서도 동양화, 조각품, 판화 '이른 아침' 등, 그 외에 목각, 석각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을 남기었다.



그녀는 점진적으로 독자적인 화풍을 개척하여 천부의 재능으로 조형어법(造型語法)을 다져 나갔다. 1922년부터1932년까지의 조선미술전람회의 출품작은 대개 인상파 화풍에 대답한 터치와 생략기법으로 주제를 첨예화시켰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때만 해도 춘화와 음란의 상징이라며 기피되던 누드화도 과감하게 선보이기도 했다. 그 외에도 인물화, 정물화, 삽화, 풍경화, 자화상에 이르는 다양한 작품을 남겼다. 그렇지만 그녀는 그림 작품에서 정치색을 최대한 배제하였다. 그러나 2002년 2월에 공개된 '노동하는 여성'을 리얼리즘 기법을 담은 목판화는 그의 페미니스트 편향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있다.

나혜석은 수원의 삼일여학당, 진명여학교를 거쳐, 1913년 일본으로 유학가서 동경여자미술전문학교에 입학하여 유희화에서 서양화를 열심히 공부하여 국내신문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일년 후 사범부에 전과하여 교바야시 만고 유희화과 교수에게 사사한다. 곧 나혜석은 '조선여자친목회'를 결성하여 기관지를 내고, 또한 '조선인 유학생 단체'에도 가입하여 '학지광'에 기고하고, 그 동인으로 문필활동하면서 이광수, 안재홍, 염상섭, 신익희, 주요한, 김성수 등과 교류하였다.

그 외에도 여자와 남자, 노인과 젊은이와 어

남녀평등, 여성해방론에 감화

나혜석은 "노라의 미래는 곧 우리의 미래라"고 선언한 일본 최초의 여성주의 잡지 '세이토'(청담)의 발행인 히라스카 라이초의 여성해방론, 남녀평등을 통한 인권운동에 공감하기에 이른다.

그녀는 1914년 '학지광'에 기고한 글 '이상적 부인'에서 양부현부(良夫賢父)의 교육법이 없는 양처현모(良妻賢母)의 교육법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여자도 인간임을 역설하였다. 이 글에 준원이 매혹되어 한때 그들사이의 염문이 일기도 하였다. 얼마 후 나혜석은 시인이며 작가인 최승구를 만나 열애에 빠진다. 불행히도 최승구는 결핵으로 일찍 요절한다. 그녀는 이 무렵 "무한한 고통과 싸우며 예술에 매진하겠다"는 글을 남겼다. 그녀의 예술에 대한 이런 집착은 최승구의 영향이 컸다. 훗날 염상섭은 나혜석의 불행의 요인을 최승구의 죽음에서 찾기도 하였다.

1917년초 나혜석은 마음을 추스루고 계속 학교에 다녔다. 그해 여름 경도제대 법학부에 다니던 김우영이 찾아왔다. 열살이나 많은 그는 3년전에 상처한 처지이고 나혜석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고 구애했지만 당시 나혜석의 관심은 결혼이 아니고 '여성'과 '민족'에 있었다. 그들의 결혼은 3년을 더 기달려야 했다.

해외 여행

1927년 나혜석은 남편 김우영과 함께 세계 일주여행을 떠난다.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모스크바를 거쳐 파리에 도착한다. 파리에서 약 8개월간 야수파 화가 비시에르의 화실에서 수학하여 야수파, 입체파, 후기 인상파 등의 화풍을 국내에 소개한다.



파리에 체류하는 동안 프랑스의 한 여권운동가를 만나 '여성'은 위대한 것이요, 행복된 '자'임을 타득하고 남여관계, 여성의 지위 등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한다. 그동안 남편은 법률공부를 하기위하여 독일 베를린으로 떠난다. 때마침 파리에 외교관으로 주재하고 있던 최린과 쏘아다니면서 자유연애활동을 하여 염문이 나돌기시작한다. 1928년 그녀는 그림 '나부'와 '등돌린 나부'를 그린다. 그 해 12월 김우영 부부는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을 거쳐 미국으로 건너와서 약3개월 여러 곳을 구경하고 21개월의 세계일주를 마치고 귀국한다.

한편, 일본 관료의 아내임에도 나혜석은 비밀리에 계속 독립운동가에 송금한다. 눈치챈 일본관헌들을 유창한 프랑스어, 독일어, 영어실력으로 따돌리고 상하아로 직접 송금하였다. 1929년 3월 귀국직후 수원에서 '구미 사생화 전람회'를 개최하고, 1931년에 있는 '조선미술전람회'와 '제2회 제국전람회'에서도 특선 및 입상한다. 그리고 1932년제11

회 조선미술전람회에 '금강산 만물상', '소녀', '창에서' 등을 출품하고, 세계 일주 기행문 '구미유기'(歐美遊記)를 '삼천리'지에 연재한다.

모성에 및 현모양처를 비평

나혜석은 모성애를 여러번 비평하였다. "아이는 에미의 살점을 떼어먹는 악마"라고 분노하면서 모성애를 "사회가 여성에게 인위적으로 강요한 역할"이라고 주장하였다.

"여성에게도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자유와 성공 등의 욕구가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현모양처는 사회가 여성에게 강요하는 인습이자 굴레라"고 비판하였다. 그녀는 입덧을 하면서도 자신이 임신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했다.

"그런 중에 뱃속에서는 어느덧 무엇이 움틀거리기 시작하는 것을 깨달은 나는 몸이 오싹해지고 가슴에서 무엇인지 떨어지는 느낌이 었다. 가끔은 태어날 아이에 대한 기대로 설레고 기쁘게도 있었지만 축박받던 예술가로서의 인생이 갑작스러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형클어져 버린 것에 대한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이 더 컸다."

그는 현모양처를 높이 평가하는 유교 성리학적 가치관과 기독교 가치관을 비판하고 "자유롭고 다양한 여자로서의 삶도 소중하다"고 제창하였다. "현모양처 이상이 여성을 오히려 노예로 만들며, 여성들이 시대의 선각자가 되어 스스로 힘을 키우고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신여성이 주변의 낡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해가는 과정을 소설 '경화'에서 실패하기도 하였다.

나혜석은 "순결과 정조는 개인의 선택사항이고, 개인의 취향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자기들은 여성편력을 즐기면서도 여자의 정절을 강조하는 남성들의 이중적인 모습"에 대한 공개적인 공박을 가했다. "한국 남자들이 자신의 아내, 누이, 어머니는 순결한 여성이기를 바라면서 다른 사람의 아내나 누이, 딸을 겁탈, 정조를 빼앗는 것을 취미로 여긴다"며 비난하였다.

그녀는 최린과의 외도, 자유연애에 대하여도 뚜렷한 이유가 있었다. 남자가 부인외에 여러명의 첩을 거느리는 것과 술집과 유흥업소의 여성을 희롱하는 것이 정당하다면 자신의 외도 역시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여자의 외도는 남편과의 성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기발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독신생활, 남자궁창, 시험결혼, 이성간의 우정과 같은 여러가지 대안을 상정하였다. 그리고 "이혼 역시 하나의 선택에 불과하며 죄악이거나 잘못된 아니다"고 주장하였다.

김우영과 이혼

아내를 잘 간수못한다는 이유와 액선 조롱 때문에 남편 김우영 역시 변호사업에 타격을 받게 된다. 그들은 1930년 결혼 10년만에 이혼한다. 자녀들은 김우영 동생내외에게 맡겨진다. 1934년 나혜석은 이혼 과정을 소상하게 밝힌 '이혼 고백장'을 잡지 '삼천리'지에 기고하면서 재산분할도 공개 요구했다. 이는 당대에는 수용되지 않았지만 훗날 해방 후 이혼시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한해서는 재산분할을 하게 입법화 된다.

그녀는 “결혼할 권리가 있듯이 이혼할 권리도 있으며 이혼이 죄악이 아니라”고 설파하였다. 그녀는 자녀들에게 자신을 시대의 희생자로 규정하는 글귀를 남기었다.

“사 남매 아이들아, 예미를 원망하지 말고 사회제도와 도덕과 법률과 인습을 원망하라. 네 예미는 과도기에 선각자로 그 운명의 줄에 희생된 자이더니라.”

나혜석은 계속되는 악의적인 비난에 개의치 않고 1934년 9월 최린을 강제적 정조유린으로 고소했다. 최린은 고소취하를 요구하면서 그 조건으로 수천원을 지불하였다. 여자가 오히려 쉬쉬하던 당시에는 획기적인 사례였다.

“나는 그대들의 노리게 되기를 거부하오. 내 몸이 불꽃으로 타 올라 한층 재가 될지언정, 언젠가 먼 훗날 나의 피와 외침이 이땅에 뿌려져 우리 후손 여성들은 좀 더 인간다운 삶을 살면서 내 이름을 기억할 것이라!” 여기에서 자신이 화조(火鳥)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다.

조선총독부 주무원 참의로 승진한 김우영은 자녀들을 만나려는 그녀를 경찰을 동원하여 막았다. 이에 대한 분노와 심신의 고달픔이 겹친 그녀는 김우영이 믿던 기독교를 버리고 불교에 다시 귀의한다. 이혼 후 한 동안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고생했지만 극적으로 질병을 딛고 작품활동에 다시 전념했다.

이혼직후 “육과 영이 결합하는 사람이 지고 지순한 사람”이라는 낭만적 사랑론을 역설하던 그녀가 육과 영이 분리된 사랑이 있을 수 있다는 열정적인 사랑관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유교의 성리학에 해박한 그녀는 옛날 중국 송나라때 정립된 ‘이기2원론’에 대한 지식도 대단하여 이(理)는 영혼이고 기(氣)는 육체로 해석하고 그 영과 육체가 하나가 될 때 진정한 사랑을 이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열정적인 사랑관을 찬미하는 색수열리즘으로 지향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김일엽, 김명숙, 허정숙 등과 함께 자유연애론을 펼쳤는데 이를 종종 방종과 불륜, 성도착의 동어로 회자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정조는 도덕도 법률도 아니고 오직 취미”라고 역설하였다.

불교에 출가하려는 꿈 좌절

1935년 10월 소품전 실패와 아들 김선이 폐렴으로 죽은 후 충격받은 나혜석은 불교에 깊이 심취된다. 그녀는 ‘폐허’와 ‘삼천리’ 잡지의 동인으로 활동하던 김일엽 여승을 찾아 충남 예산 덕숭산 자락에 있는 수덕사를 방문한다. 그녀는 수덕사 바로 옆에 있는 수덕여관에서 여장을 푼다.

1930년 초에는 나혜석에게 승려가 되라고 권고했던 김일엽은 이때 찾아온 혜석이 출가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렇지만 조실스님 망공(滿空)과 면담하도록 주선해 준다. 당시 수덕사의 조실 만공은 나혜석의 끈질긴 애원에도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임자는 중노릇을 할 사람이 아니야”라는 한 마디로 거절당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수덕여관에 머무르며 ‘중 시켜달라’고 애원하던 어느날 암마가 보고싶어 현태탄을 건너온 열네살되는 옛민 소년을 만난다. 그는 김일엽이 일본 유학시절 일본 명문가출신 오다 세이조와의 사이에 낳은 사생아 김태

신이다. 모정이 그리워 찾아온 아들에게 “나를 어머니라 부르지 말고 스님이라 불러라”라고 냉정하게 말하는 김일엽을 보고 나혜석은 그 소년이 잠다리에 들때 팔베개를 해주고 첫무덤을 만지게 해 준다. 자기의 아이들 생각에 젖어있었던 것이다. 이를 바라본 김일엽은 저렇게도 속세의 연인을 끊지 못하는 옛동지 나혜석이 중노릇을 할 수 없다고 단정한다. 수덕사의 고승 만공은 대신 나혜석에게 고근(古根)이라는 불명을 지어 준다.

나혜석은 수덕여관에 5년 머무르면서 출가를 원했다. 그가 흥성 수덕사에 있다는 소문이 확산되자 젊은 화생들이 사찰에 찾아온다. 만공의 배려로 나혜석은 사찰근처에서 학생들에게 유화와 조각들을 가르친다. 학생들은 주변 풍경을 배경삼아 그림활동에 전념한다. 나혜석이 떠난 후 그 젊은 화생들은 이당 김은호를 찾아가 사사하기도 했다. 이때 찾아온 젊은이들 중에는 고암 이응로가 있었다. 이응로는 나혜석이 떠난 후에 수덕여관을 잊지 못해 나중에 수덕여관을 매입해 본부인에게 운영을 맡기고 21세 연하의 연인과 함께 파리로 떠난다.

이처럼 계속해서 김일엽을 찾아 해인사에 매주말 가서 불공을 드리던 나혜석은1936년 여러가지 병으로 경성부내 병원에 다니면서 고아원과 양로원을 찾아 자원봉사를 하기도 한다.

1937년 다시 김우영에게 수모를 당하고 나서 심한 충격끝에 수덕사 건성암으로 찾아가는다. 이때 김일엽은 나혜석에게 불교에 출가할 것을 권고하지만 이번에는 나혜석에 사양한다. 1937년 12월 국도의 정선쇠약으로 착관중세를 보이면서도 자살은 연애관을 피력한 ‘영이나, 육이나, 영육이나’라는 제목으로 ‘삼천리’에 발표한다. 1938년 기행문 해인사의 풍관을 발표하였다. 이때 그녀는 조선총독부에서 문화재를 복사하는 것 까지도 일일이 검열한다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그럼 ‘해인사 풍경은 이때의 작품인데 이를 흥도여관 주인에게 선물하였다.

1939년 수덕여관을 나와 다시 김우영을 찾아 갔으나 문전박대 당한다. 그녀는 다시 수덕여관으로 되돌아왔다가 1943년 수덕여관을 떠난다. 조선총독부에서 내선일체에 협력하면 진료비와 집, 화실을 제공하겠다고 회유하였지만 이를 거절한다. 신경쇠약에 반신불수의 몸이 된 나혜석은 경성의 절간들을 떠 돌아다니다가 1944년 무렵 경성 인왕산의 한 사찰에 정착한다.

1944년 스스로 인왕산 사찰을 떠나고 경성 시내에 자주 나타나 말 김나열이 머무는 곳에서 얼마간 의탁하다가 수원의 나경석 집에 갔다가 쫓겨난다. 그 후 안양 양로원에 있다가1944년 10월22일 최고근(崔高根)이란 불교명의로 인왕산 근처 양로원에 맡겨진다. 배속경은 속모 나혜석을 양로원으로 데리고 가면서 그녀를 한강이 넘은 노파라고 주위사람을 속인다. 당시 청운양로원은 나경석의 친구가 원장이 었다. 그러나 정신이상 이 심하고 건강이 안좋다는 이유로 양로원에서 퇴소당한다.

1945년 해관 오극선(海觀吳克善)이 운영하는 경기도 안양에 있는 경성 기독교육원의 농장으로 옮겨진다. 그러나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 보육원 농장을 탈출하여 서울에 갔



김 철 (공대 60)

엔지니어링을 한자로 표기하면 ‘工學’이 된다. ‘工學’의 ‘工’자는 공부(工夫)의 ‘工’과 같은 것으로서 하늘과 땅을 잇는 형상을 하고 있다. 즉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이치를 연구하는 행위가 공부임을 암시해 주고 있다 하겠다. 또 문학(文學)은 글만 쓰면 되는 게 아니라 천문학(天文學)의 줄임말로 우주 전체를 아우르는 학문을 의미한다고 한다. 사람들은 공학을 기쁨쟁이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알고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이 공학임을 알아야 한다. 공학은 수학(數學)이고, 수학은 시스템이며 질서이고, 표준인 동시에 어쩌면 철학적인 사고방식의 기저(基底)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이 공학의 길을 걷기 위해 1960년에 공대에 입학한 나는, 상계동에 캠퍼스가 위치한 탓에 419에 붙잡힌 유일한 대학으로 5월을 맞은 서울공대 강당에서 어느 날 김남주 시인의 특강을 들던 중 ‘데레사 수녀님께서 가족과 종교 중 하나를 택하라면 가족을 택하겠다고 하셨는데, 나도 가족과 시 중 하나를 택하라면 가족을 택할 것입니다’라는 시인의 말에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른다. 지난 1월 초 김동길 박사님을 모시고 떠난 코루즈여행에서 실로 58년 만에 뵈게 된 김남주 시인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 드렸더니 기억이 안 난다고 고개를 저으셨는데, 그 추억이 서울공대에서 처음 경험한 간접적인 시적(詩的) 만남이었다.

[출처: 총동창회보, 수필가 한국자유문인협회 국제교류회 의장

만만 김우영의 반대와 경찰신고로 자녀들을 만나지 못한다. 진실로 천륜을 거스리지 못하고 속세의 연인을 끊지 못하는 나혜석은 강인한 모성애를 끝까지 보여주었다.

해방 후 파킨슨병 병세가 악화되고 사회의 혹독한 냉대와 심한 공핍으로 전전근근하다가 1948년 12월 10일 서울의 시립 자재원에서 무연고자로 처참하게 숨진다. 이때 병명은 영양실조, 실어증, 중풍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녀를 흔히 프랑스의 조각가 카미유 클로델(Camille Claudel)이나, 작가 조르주 상드(George Sand / ALA Dupin)에 비견한다. 그들은 여성이란 면에서 또한 예술인이란 점에서 상통하지만, 오히려 그녀를 우리가 존경하는 애국시인 한용운 스님에 비견하고 싶다. 한용운 선생은 총명하며 철두철미한 애국지사였다. 두 분 공히 불교도였으며 대단히 직설적이었다. 혹시 그녀가 가솔에 성공했다면, 세계적인 화승(畫僧)이 되어, 피렌체의 상마르코 수도원에 많은 그림과 벽화를 남겼던 수도승 안젤리코(Fra Angelico)나, 카르미네 수도원에 입당하여 많은 성화를 남긴 수도승 리베(Fra Filippo Lippi)에 못지 않은 명화를 남기었을 것이다. 애석하기 짝

엔지니어링과 공부와 시

봄에 서울예총회원관에서 시화전을 개최했는데 그때 내가 나서서 지도교수로 초빙했던 김수영(金珠暎) 시인을 곧바로 승승으로 모셨던 나는 1964년부터 교통사고로 돌아간 신 1968년까지 기자들도 출입하기 힘든 마포구 구수동의 자택을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었다. 뿔 때마다 공부를 하라, 공부를 하라고 말씀하시던 김수영 시인을 달랐는지 나 역시 부산고 후배들이 찾아오면, 시를 쓰기 위해서는 수학과 외국어 등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말해 주고 있는데, 김수영 시인과의 인연이 바로 서울공대에서 경험한 직접적인 시적 만남이었던 것이다.

파스테르나크와 흡사한 김수영 시인의 에토스(ethos)를 깊이 감수(感受)했던 나는, 시는 언어로 빚어지지만 그 뿌리가 수학(數學)에 닿아 있을 때 가장 빛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어떤 이즘(ism)이나 시류(時流) 또는 시풍(詩風)에도 구애됨이 없이 구상과 추상의 세계를 자유분방하게 넘나들며 ‘공부하듯이’ 공들여 시를 쓰고 있다.

1973년경 28명이던 부산의 시인이 근 1,000명 가까이 불어날 오늘날 공부하는 시인이 아니라 진정한 시인의 두검을 쓸 수 있지 않을 까 하는 생각에서 써 본 시가 부끄럽지만 이 줄서 ‘공부라’ 할 수 있다.

[출처: 총동창회보, 수필가 한국자유문인협회 국제교류회 의장

이 없는 일이다. 천재화가이며 진정한 애국자이며 극히 직설적인 인간 나혜석을 이렇게 대정하게 푸대접한 우리 민족이 원망스럽게 짝이 없다.

비록, ‘노라의 몸은 몸시 쇠하여 비정하게 가졌지만, 그녀가 한국 현대미술에 남긴 업적은 대단하며 많은 후학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었다. 더우기 그녀가 심은 여성운동의 씨앗이 싹트고 자라서 한동안 여권신장운동으로 이어졌고, 근년에 와서는 구미에서 거칠게 일고 있는 성차별, 성희롱 등의 문제를 이슈로하는 여성주의운동(feminism)의 물결이 한국에도 거세게 밀려닥치고 있다. 과연 나혜석은 이런 문제를 한 세기전에 이미 거론하고 고민했던 선각자였다. 그녀는 한국 여성운동의 선구자였으며 천재적 화가였다.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SNU Alumni Association USA,
869 South Street,
Fitchburg, MA 01420

Inca Trail 산행기

민일기 (약대 69)

페루 리마에서 하루를 보낸 후 아침 6시 50분, 옛 잉카의 수도였던 Cusco로 가는 비행기를 탔다. Cusco로 가는 손님들이 많다. 특히 고등학생같이 보이는 학생들이 많이 눈에 띄는걸보니 Machu Picchu가 학생들 수학여행지로 한국의 경주같은 모양이다. 한시간 남짓 비행하는데 창문으로 보니 눈덮힌 안데스 산맥의 봉우리들이 우람하게 보인다. 드디어 Cusco공항에 도착하니 현지 guide가 기다리고 있다. Cusco는 잉카들이 이곳을 세계의 배꼽이라고 해서 세계의 중심으로 자처했다고 한다. 전성기에는 잉카제국이 현재의 Columbia에서 Argentine까지 지배하는 대제국이었는데 그 수도로서 16세기의 어느 유럽의 도시 못지 않는 위용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168명의 Pizarro가 이고는 Spanish정복자들에게 무너졌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잉카 멸망기는 정말 허무하고 듣기에도 마음이 답답하다. Cusco는 11,000feet에 달하는 고지에 있는도시라고 하는데 고소증은 아직 없다.

이틀동안 Cusco에 머물면서 고소 적응도 하였다. Hotel lobby에는 Coca 잎 말린 것이 놓여있고 더운물이 준비되어 있다. 아마도 Coca 차가 고소증에 시달리는 여행객에 좋은 모양이다. Cusco광장은 큰성당으로 둘러쌓여 있는데 이성당은 Cusco를 상징하는지 사진에서 보아서 낯이 익다. 아마도 곳곳의 잉카 궁전 위예다가 catholic 성당을 세운 것 같다. 벽돌색같이 검붉은색으로 웅장한 느낌이다.

트레일 첫째날
아젯밤을 설쳤다. 아마도 피곤하여 오후에 Coca 차를 몇잔 마신 것이 영향을 준 것 같다. 아침 8시쯤 bus 출발했다. Bus를 타고10시 쯤 드디어 Trailhead인 Qorihuanrachina에 (일명 Kilometer 88)에 도착하였다. 이곳은 9100feet 정도 되는 곳이다.



Trailhead에서

4시간 이상을 입구에서 기다리다 2시 54분이나 되어서 그 다리를 통과하여 드디어 산행이 시작이 되었다. 날씨는 기가 막히게 좋고 멀리 눈 덮힌 산이 웅장하게 보인다. 기다리느라고 진은 빠졌지만 산행을 시작하니 기분은 한결 낫다. 이제 드디어 기다리던 잉카 트레일이다. 밤이 이슬하여 인가가 있는 곳에 tent를 치고 묵게 되었다. 찻는 등 마는 등 이빨만 닦고 첫날 sleeping bag에 몸을 넣고 골아 떨어졌다. 오늘 예정거리의 2/3밖에 못 와서 내일은 더 가야 하는 모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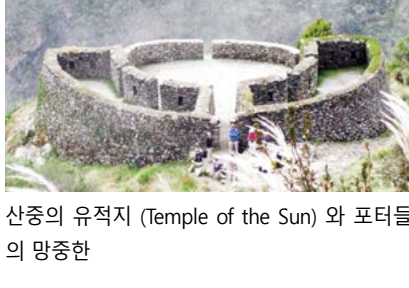
트레일 둘째날
아침 5시 가이드가 깨웠다. 더운 차를 가지고 포터들이 텐트로 가져온다. 세숫물도 텐트까지 대령이다. 세수를 하는등 마는등하고 아침을 먹었다. 음식은 그대로 랜창은 편

이다. 오르막 가는길이 상당히 가파르고 산길이 끊임없는 계단길이다. 올라 갈수록 공기는 차고 청정하고 맑다. 허우적 거리며 4시간 남짓 걸어서 10시 50분에 휴식처에 도착했다. 저 멀리 오늘 넘어야 할 고개가 보인다. 이곳에서 요리사가 점심을 준비하는 동안 거의 2시간의 휴식을 취했다. 휴식처에는 넷물도 흐르고 화장실도 있고 또 음료수도 파는 장사들도 있다.

점심은 full course로 soup에서 시작하여 닭요리 그리고 dissert까지 잘 준비를 했다. 잘 먹고 싣다음에 1시에 본격적으로 이번 산행에 제일 높은 고지를 향해 출발했다. 가는 길은 계속되는 계단으로 점점 힘이 들어 도저히 속도가 나지 않는다. 선두가 뻗히 보이지만 보조를 맞추기가 힘들다. 내 pace 대로 가기로 하고 가다보니 2시간 남짓 걸려 결국 고개마루에 올랐다. 아마도 한 여자 회원을 빼고는 내가 제일 마지막으로 오른 것 같다. 힘들기는 했어도 13,880ft가 되는 Dead Woman's Pass를 오를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 고개는 뒤에서 보면 죽은 여인이 누워있는 것 같아 Dead woman's pass라고 한다나.

이 안데스산맥의 고개마루에는 바람이 제법 세고 춥다. 사진을 여러 장 찍은 후 하산 길이다. 고개넘어서는 기후가 달라진다. 내려가는 길도 쉽지는 않다. 계속되는 계단 돌길이라 넘어지면 다칠까 봐 빨리 걸을 수가 없다. 5시 가까이 되어 텐트가 있는 야영장에 도착하니 기진 맥진이다. 여기서 고도는 여전히 12,000ft이니 별로 많이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힘이 많이 빠졌다. 포터들이 텐트를 좀 높은 데에 쳐 놓았는데 그 곳 올라 갈 힘도 없다. 예전에 Grand Canyon에서 콜로라도 강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던 마지막 구간 만큼이나 힘든 것 같다. 텐트에 들어가 밥이 준비되는 동안 sleeping bag을 꺼내 누워서 쉬었다. 그래도 오늘 구간이 제일 높은 곳이니 까 한 고비는 넘긴 셈이지만 내일은 10마일로 제일 긴 구간이다. 이 체력으로 내일 제일 긴 구간을 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 저녁도 full course로 나왔지만 입맛은 별로이다. 저녁 먹고 이를 닦는 등 마는 등하고 바로 텐트로 들어 갔다.

트레일 셋째날
7시에 출발하여 상당히 경사가 심한 비탈길을 걸기 시작했다. 여기부터는 확실히 기후가 달라져 공기가 습기가 많고 rain forest가 시작되는 것 같다. 산에 안개가 자욱하다. 3시간30분정도 쉬엄쉬엄 올라가다 보니 10시 30분에 다시 13,000ft되는 고개를 넘었다. 가는 길에 곳곳에 유적지가 있다. 내리막길에 성채같은 돌성이 있는데 아마도 마추피추의 침묵을 지키는 초소같은 형상이다.



산중의 유적지 (Temple of the Sun) 와 포터들의 망중환

이 고적지를 올라 갔다가 11시30분에 휴식처에 도착했다. 이제 갈길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가볍다. 휴식처는 12,000ft인데 이곳에는 그런데로 변소장 물이 나오는 시설이 되어 있다. 변소는 지저분하여 난감할때가 있지만 볼일을 보는데는 지장이 없다. 점심을 먹고 따뜻한 양지에서 쉬다가 1

시에 또 다시 출발했다.오후부터 걷는길은 original Inca 사람들이 만든 Inca Trail이란다. 이들이 어떻게 그 큰 제국을 문자도 변변히 없이 통치 했나가 의문인데 Roma 제국처럼 제국에 통하는 길은 온전히 닦아 두었는데 양이다. 단단한 돌계단을 계속이어지는 데 내려가는것이 만만치 않다. 거의 6시 가까이 야영장에 도착했다.

트레일 넷째날
아침 3시에 일어나서 캄캄한데 머리에 등을 달고 세수하고 아침을 먹고 5시 15분에 마지막 check point로 향했다. 5시 30분에 check point가 open하니가 쉽게 통과. 계속 오르막 길인데 선두에 붙어 있었는데 따라 붙기가 쉽지 않다. 숨이 가쁘고 도저히 따라 갈 수가 없어 뒤로 처졌다. 주위의 안개진 봉우리들이 신비하게 느껴진다. 마지막 계단은 70도 가까운 경사로 기어서 올라갔다. 7시 30분 쯤 숨이 턱에 차서 드디어 Inti Punka (Sun Gate)에 도착했다.



드디어 Sun Gate (Inti Punka)에 도착

모두들 먼저도착하여 기다리고 있다. 안개가 자욱히 끼어 아래 마추피추가 보일락 말락이다. 안개가 개일때 까지 30분정도 기다리며 일행중 한사람이 가져온 burner로 커피를 끓여서 먹으니 맛이 기가 막하다. 구름이 대강 걷히자 다시 아래로 걸기시작하여 40-50분 걸자 드디어 목적인 Machu Picchu에 도달하였다. 이 산등성이에 이러한 거대한 신전을 지은 Inca왕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알 수 있다. 밑에는 까마득하게 내려보이는데 강물이 흐르고 이산 꼭대기에는 엄청난 석조건물들이 산재하고 있으며 계단식으로 terrace에 관계시설을 하여 지금까지도 여전히 무너지지 않고 보존된 건축기술이 대단하다고 볼수 있다. 또 주변의 이 봉우리를 둘러싼 웅장한 산들의 모양이 비범하여 신비한 감이 든다. 이곳은 말하자면 천협산중인 셈이다. 100년전 1911년 Yale대 교수였던 Bingham이란 사람이 Inca의 Lost City인 Bilkabamba를 찾아 나섰다. 이곳에 산발의 동네에 왔을때 자기가 목은 집사람중에 한 아이가 산위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그때는 마추피추가 이미 jungle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지만 사람들을 사서 올라가 보았을때 엄청난 건축물이 정글속에 피물려있는것을 발견하였다. 그는 그가 찾고 있던 lost city를 찾았다. 건축했고 그렇게 표현했지만 현재는 마추피추가 스페인사람들이 오기전에 이미 잉카제국에서도 잊혀진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 마추피추는 산속에 파묻혀 있기는 하지만 Cusco에서 40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하튼 어떤이유든 마추피추는 살아남고 그위에 케토릭성당이 세워지는 운명에서 벗어나 우리를 반기고 있다. 마추피추는 최근 UNESCO에서 선정한 신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 건물들은 Sun Terrace, Temple of Condor 등 여러이 있는데 정교한 석축이 지진에도 건디는 것이 놀랍다. 또 계단식 Terrace에는 물이 빠지는 시설이 정교하게 설계되어 이곳이 Rain Forest임에도 불구하고 몇백년을 건디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계단식 Terrace

에서는 농사를 지어 이곳에 거주하는 신관이나 관리자들이 자급자족할수 있었지 않나 생각된다. 가이드를 따라 다니며 설명을 듣는 동안 기차를 타고 Cusco에서 온 일반관광객들이 밀어 닦쳐 마추피추는 변잡하기 시작했다.



드디어 Machu Picchu!

12시쯤 Bus를 타고 30분쯤 내려가 아래 town으로 내려가 hotel에 짐을 풀었다. Hotel은 언덕위에 있어서 한참을 올라가야했다. 마을은 전형적인 마추피추 관광객들을 위한 Resort town모양인데 관광객으로 북적이고 있다. Hotel에서 오랫동안 shower를 할 수 있어서 기분이 상쾌했다. 나는 내일 또 오를 Wayna Picchu 산행이 마음에 걸리지만 내일 일은 또 내일 걱정하기로 했다.

트레일 다섯째날
아침 6시에 일어나 여유있게 호텔에서 식사를 하고 8시 30분까지 마추피추로 Bus를 타고 올라갔다. 마지막 남은 Wayna Picchu 산행을 마지기 위해서다. Wayna Picchu는 마추피추 앞에 있는 북한산만한 봉우리(600m)로 마추피추 사치진 곳같이 나오는 형제 봉우리이다. 마추피추는 old mountain이란 뜻이고 Wayna Picchu는 young mountain이란 뜻이란다. 어چه 폭 퍼져서 올라갈 힘이 남아있을까 걱정이 되지만 이제 와서 나만 빠질수 없는 일이야 따라 나섰다. 젠탐 Yosemite Half Dohm도 올라가지 않았나, 죽기아니면 고무러지가지. 하루에 오르는 사람들이 제한이 있어서 오전에 200명, 오후에 200명이 올라 가도록 된 있는모양이다. 올라가는 길은 거의 계단으로 되어있는데 굉장히 경사가 급하다. 1시간 쯤 오르니까 잉카가 쌓은 석축이 나오고 주위의 경관이 확트인 것이 신비하기까지 하다. 맨 꼭대기에 오르니 친구가 카메라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 다시 기 힘이 빠져 후들거려 제대로 셀 수가 없어 아래를 보니 아차 미끄러지면 그냥 저 세상으로 곧장 갈 것 같다.



Wayna Picchu 정상에서, 야 이제 산행은 끝이다! (저 밑에 Machu Picchu가 보인다)

내려오는 계단은 가파른데 가드레일조차 없어서 아주 위험하다. 여기까지 와서 목숨을 걸 필요는 없어 아주 조심 조심 내려오다 보니 우리 일행은 이미 모두 하산했다. 이제 정말 모든 산행의 일정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는 죽을 일은 없다고 생각하니 어깨의 모든 것이 날아간 듯 홀가분하다. 모두들 긴장을 풀고 식사를 하고 맥주로 한잔하였다. 이제 2시간 쯤 기차를 타고 Cusco로 돌아 가려고 기차역으로 모두들 아침에 식당에 맡겨 놓았던 배낭을 찾아 기차역으로 행했다.



영화 이야기

'타협? 그게 뭔데? 쿨하고 터프한
형사의 숨막히는 질주...'

박준창 (인문 79)

난 스티브 맥퀸(Steve McQueen)을 좋아한다. 1960년대 슈퍼 쿨(super-cool)한 남자 배우의 대표. 푸른 눈동자에, 말이 없고, 금작 세상의 고뇌는 혼자 다 안고 있는 남자. 기나긴 하층 계급 출신에, 늘 천대받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는 배우. 그러면서도 그런 천시에는 달관한 듯한 느낌. 그의 역할에는 거의 언제나 별로 대사가 많지 않다. 좋아한다고 했지만 사실 그의 영화를 많이 보지는 못했다. 그는 영원히 좋아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름없는 대사는 영화는 안 본다고 할 수도 있을지. 실망 할까 봐.

어쨌든 주인공 형사의 성씨가 제목인 영화, "불릿 (Bullitt)". 이 영화는 거의 고전에 속한다. 아마 제대로 된 자동차 추격 장면은 이 영화가 시초가 아닐까 싶다. 이 영화에 영향을 받아 많은 자동차 추격 장면을 담은 영화들이 나왔다. 진 해크먼 (Gene Hackman) 주연의 "프렌치 커넥션 (French Connection)"도 그 중 하나이고,

주인공 프랭크 볼릿 (Frank Bullitt) 을 쫓던 살인청부업자들이 도리어 주인공에 의해 쫓기게 되는데, 아름다운 샌프란시스코의 가파른 언덕길을 내려 가는 장면들은 현기증을 느끼게 한다. 약 10여분간 계속되는데, 샌프란시스코 시내에서 시작된 추적

장면은 브리스베인 (Brisbane) 이라고 하는 교외로 나가서 끝이 난다. 카메라를 운전자 시점에서 설치해서 현실감을 느끼게 찍었다. 실제 나는 화면을 너무 가까이에서 보다가 구역질이 날 뻔 했다.



[영화 포스터. 영국 감독 피터 예이츠 (Peter Yates)
의 최초 할리우드 영화인데 흥행에서 대 성공을
했고 비평가들로부터도 좋은 평을 받았다]

스토리는 대강 이렇다. 잘난척하는 야심 많은 샌프란시스코의 상원 의원 월터 차머스(Walter Chalmers) 로버트 본(Robert Vaughn) 분-60년대 인기 TV 프로그램 앵커(Man from U.N.C.L.E.)의 주인공 나폴레옹 솔로(Napoleon Solo) 역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한국에서는 "0011 나폴레옹 솔로"로 방영된 것으로만 안다. 이 친구가 마피아 조직을 배신한 거물을 증인으로 상원 청문회에 세우려 한다. 마피아 조직을 붕괴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월요일 청문회가 있으니 토, 일 48시간만 증인이 보호되면 된다. 이 보호 업무를 유능하고도 알려진 주인공 형사 Frank Bullitt에게 맡긴다. "You were the man for the job." "I can't find a flaw in that statement." ("당신이 적임자라고 하더라;" 그 말에 아무런 오류를 찾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불릿에게도 출세의 길이 열림을 얘기한다. "Senatorial hearing has a way of catapulting everyone involved into the public eye with a subsequent effect on one's career (상원 청문회는, 경력에 영향을 주는, 관련자들 전부를 대중의 눈에 투석시키는 방법이지)." 정지인답게 청산유수 연변이다.

이렇게 보호 업무를 맡았는데, 이 거물 중인이 차머스가 준비해 놓은 한 호텔에서 마피아가 만난 살인 청부업자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만다. 보고하고 있던 불릿의 부하 형사도 중상을 입고... 신병 인도를 요구하는 차머스의 요구를 묵살하고 불릿은 병원에서 시체를 빼 돌린다. 마피아들에게는 그가 안 죽은 것처럼 믿게 하려고... 그런데, 막상 죽은 자는 실제 그 조직의 배신자다. 마피아가 밝혀진다. 그를 너무나 흡사하게 닮은 전과 기록도 없는 전혀 엉뚱한 사람... 어떻게 된 것일까?

결국 증언을 약속한 조직 배신자의 간계
임이 드러나고, 외국으로 탈주하려는 그를
공항에서 추격하게 되는데...

쫓던 자들이 도리어 쫓기게 되면서 두 차들은 샌프란시스코의 가파른 언덕들을 질주한다. 불릿이 몰던 낡은 녹색 포드 머스탱. 포드 자동차는 영화의 성공에 힘입어 후일 이 차와 흡사한 머스탱 불릿이라는 모델을 제작한다. 멀리로 형무소가 있는 알카트라즈 섬과 소살리토가 보이고!

이 영화는 스티브 맥퀸을 위한 영화다. 그의 이미지대로, 말없이 생각하는 사람, 그냥 지위가 높다고 해서 맹종하거나 아첨하지 않고 타협할 줄 모르는 경찰, 소신대로 행동하는 용기를 지닌 형사. 이런 그의 매력을 영화는 심부름 보여 준다. 차머스와 볼릿의 상관은 볼릿의 보호 가운데 있다. 차가 주인이 죽었으니 인정을 쓰라고 요구할 때도 그의 반응은 고작 "Excuse me (실례합니다. 비켜주세요)"이다. 그리고 그들을 무시하고 가 버린다.

1968년에 만든 영화인데도 촌스럽다는 느낌이 없다. 좋은 영화가 되려면 스토리나 플롯이 좋아야 한다. 그런 면에서 대개 소설이 원전인 영화는 실패하지 않는다. 이 영화 역시 내 짐작대로 소설이 원전이었던 것이다. ‘병어리 증인 (Mute Witness)’ 이라고 로버트 파이크 (Robert L Pike) 라는 작가

SNU Alumni Association USA,

869 South Street,
Fitchburg, MA 01420
T: 978-835-0100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동창회 후원금	동창 회비	업소록 광고비	특별 후원금
☐ \$200 ☐ \$500 ☐ \$1,000 ☐ \$ ____	☐ \$75 (2017. 7 ~ 2018. 6) ☐ \$150 (2017. 7 ~ 2019. 6) ☐ \$3,000 (중신이사회비)	☐ \$240 (2017. 7 ~ 2018. 6) ☐ \$480 (2017. 7 ~ 2019. 6) 일반 광고 문의: general@snuuaa.org	☐ Scholarship Fund (장학금) \$ ____ ☐ Charity Fund (나눔) \$ ____ ☐ Brain Network 후원금 \$ ____ ☐ 모교발전기금 \$ ____

후원금 용도: **장학금**은 뛰어난 동문들의 학업을 돕는데 사용됩니다. **Charity Fund**는 동창회 자신 사업을 위해 쓰입니다. **모교발전기금**은 모교와 미주 동창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쓰입니다. **Brain Network 후원금**은 석학 초빙 강연회 등 동문들간의 네트워킹 증진을 위해 쓰입니다. **중신 이사회비**는 SNUAA-USA Century Foundation에 적립됩니다. **동창회 후원금**과 **동창 회비**는 회보 발간 및 미주동창회 행사와 제반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동문님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Total: \$ _____. Make check payable to **SNUAA-USA.**

보낼 곳: SNUAA-USA,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 Tel: 978-835-0100 Email: general@snuaa.org

<보내주시는 회비 및 후원금 합계가 \$250 이상 되시는 동문께서는 영수증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글이름:	영문이름:	단과대:	입학연도:	지부:
E-mail:		Cell Phone:		
주소:				

업소등록 광고비, 특별 후원금, 후원금 (1차 회기: 2017. 7. 1 ~ 2018. 6. 30)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전희장단 이월금	서울대병원 강남 (5/30)		380	임필소 (의대 54)		100	정재훈 (공대 64)		110	배성식 (약대 58)		75	
	서울메디칼 (3/15)		1,000	전방남 (상대 73)		200	최은관 (상대 64)		300	주종광 (약대 60)		2,000	
	손재욱 (가정 77)		500	신재욱 (사대 52)		500	하기환 (공대 66)		200	허지영 (문리 66)		2,000	
(11/29) 6,511.97	신용남 (농대 70)		1,200	최수강 (의대)		100	하선호 (치대 81)		200				
	심완섭 (의대 67)		1,800										
한남체인 (3/15)		1,000											
총동창회 보조금													
3,000		나눔		남가주		3,000	강정수 (문리 62)		125	최종권 (문리 59)		200	
				뉴욕		3,000	이상형 (공대 57)		150				
총동창회 오찬 협찬		김창화 (미대 65)		25	미네소타		300	김윤범 (의대 54)		200	샌디에고		
3,000		윤상래 (수의 62)		500	보텍사스		550	한상봉 (수의 67)		240			
		황선희 (공대 74)		100	샌디아고		550						
					시카고		2,400	뉴욕					
업소록 광고비		모교발전기금		알라스카		200	강애드 (사대 60)		400				
				오레곤		300	김명철 (공대 60)		200				
강호석 (상대 81)		240	권기현 (사대 53)		1,000	워싱턴주		600	김병국 (보건 65)		200		
김원탁 (공대 65)		240	김철수 (의대 68)		100	조지아		600	김재경 (농대 58)		200		
김일영 (의대 65)		240	임상은 (상대 54)		25	커네티컷		200	문석면 (문리 52)		200		
김창수 (약대 64)		240	유재환 (상대 67)		125	캘리포니아		200	박두선 (공대 68)		100		
남욱현 (경영 84)		480	윤우재 (공대 63)		500	텍사스		200	박성원 (문리 54)		225		
박종욱 (의대 79)		240	오인환 (문리 63)		200	플로리다		200	배명애 (간호 47)		40		
서동영 (사대 60)		240	임종식 (의대 51)		1,000	콜로라도		1,500	배정희 (사대 54)		200		
신동국 (수의 76)		240	정동구 (공대 57)		500	하와이		300	신응남 (농대 70)		2,000		
신응남 (농대 70)		240				하트랜드		300	양거명 (약대 49)		25		
신혜원 (사대 81)		240	브레인 네트워크 후원금				후원금		이경림 (상대 64)		185		
엄달용 (공대 69)		240							이운순 (의대 52)		525		
염동해 (농대 74)		240	서동영 (사대 60)		200	남가주		이준호 (농대 60)		1,100			
윤세웅 (의대)		240	오인환 (문리 63)		200	김 영 (수의 63)		500	이재원 (법대 60)		350		
이경림 (상대 64)		480	윤상래 (수의 62)		6,000	김영소 (음대 59)		400	전재우 (공대 61)		200		
이병준 (상대 55)		480	이병준 (상대 55)		1,000	김원탁 (공대 65)		200	정인식 (상대 58)		200		
이종규 (간호 69)		240	정창동 (간호 45)		100	김인중 (농대 74)		25	정창동 (간호 45)		75		
이준영 (치대 74)		240	한재은 (의대 59)		500	김일영 (의대 65)		200	조정현 (수의 58)		100		
정정우 (수의 74)		240	수재민 돌기 후원금				김재영 (농대 62)		240	최한용 (농대 58)		500	
정재훈 (공대 64)		240	윤상래 (NE)		300	김재영 (농대 62)		240	허수행 (의대 58)		200		
주기목 (수의 68)		240	정정욱 (NE)		200	김종표 (법대 58)		500	허유선 (가정 83)		100		
지흥민 (수의 61)		240	고일석 (NE)		200	김진형 (문리 55)		500					
			김문소 (NE)		100	김창신 (사회 75)		100	뉴잉글랜드				
광고비				김연화 (음대 68)		200	문석면 (의대 52)		200	고일석 (보건 69)		1,000	
				민수봉 (상대 55)		25	박준수 (수의 58)		1,100	김문소 (수의 61)		80	
DUO Info.		1,200	신응남 (NY)		200	방석호 (농대 55)		200	김병국 (공대 71)		65		
DUO Info.		400	손재욱 (PA)		1,000	백종자 (음대 71)		400	김선혁 (약대 59)		100		
DUO Info. (10)		400	황선희 (PA)		200	위종민 (공대 64)		200	김은한 (의대 60)		850		
DUO Info. (11/6)		400	합계:		2,400	유재환 (상대 67)		200	김재호 (공대 56)		100		
DUO Info. (12/8)		400				이건일 (의대 62)		300	송미자 (농대 62)		65		
DUO Info. (1/9)		400				이명선 (상대 58)		500	윤상래 (수의 60)		40,100		
DUO Info. (2/8)		400				이병모 (치대 74)		200	윤영자 (미대 60)		100		
DUO Info. web (2/23)		500				이병삼 (공대 61)		200	이의인 (공대 68)		1,100		
DUO Info. (4/2)		400				이병준 (상대 55)		11,000	이재신 (공대 57)		2,000		
DUO Info. (4/30)		400				이영송 (치대 63)		400	이희규 (공대 69)		2,000		
JayoneFood (1/22)		1,800				이영일 (문리 53)		200	정선주 (박영철)		3,000		
KISS (1/17)		3,000				이현찬 (치대 75)		200	정정욱 (의대 60)		1,100		
SeAh 이병준		1,500				임창희 (공대 73)		100	정태영 (문리 71)		100		
SNUAA, Inc (남가주)		500				전경철 (공대 55)		400	정혜숙 (간호 66)		65		
SNUAA, Inc (남가주)		700				전희택 (의대 58)		200	최선휘 (문리 69)		200		
김승호 (공대 71)		400				정동구 (공대 57)		500	최종권 (공대 69)		1,000		
노명호 (공대 61)		1,000											
발전기금 (12/6)		700											
서울대병원 강남 (12/29)		1,500											

루이지애나		강영빈 (문리 58)		2,000	보텍사스		최종권 (문리 59)		200	김군빈 (법대 56)		75
										박우선 (공대 57)		200
										임준수 (의대 57)		200
										샌디에고		
										김민빈 (법대 56)		75
										박우선 (공대 57)		200
										임준수 (의대 57)		200
										시카고		
										구행서 (공대 69)		100
										김연화 (음대 68)		150
										이윤락 (공대 48)		500
										조형원 (약대 50)		500
										최희수 (문리 67)		75
										아리조나		
										박양세 (약대 48)		200
										지영환 (의대 59)		200
										진영우 (공대 70)		100
										오레곤		
										김상소 (상대 67)		200
										송재용 (의대 69)		200
										오하이오		
										성홍완 (수의 75)		200
										워싱턴 DC		
										강길종 (약대 69)		200
										권철수 (의대 68)		200
										박용걸 (약대 56)		200
										김평일 (농대 69)		300
										서윤석 (의대 62)		200
										오인환 (문리 63)		200
										이문향 (공대 46)		100
										이인옥 ()		25
										장조열 ()		100
										최준호 (공대 60)		25
										한희생 (수의 60)		200
										워싱턴 주		
										하주홍 (경영 77)		25
										조지아		

필라델피아		김영남 (의대 61)		200	김태환 (법대 48)		200	배성호 (의대 65)		100	서준민 (공대 64)		150
		김현영 (수의 58)		100	제갈은 (문리 59)		500	송대우 (의대 56)		700	신성식 (공대 56)		200
		)		100	)		100	신성식 (공대 56)		200	이만택 (의대 52)		200
		서준민 (공대 64)		150	송대우 (가정 77)		500	송대우 (의대 56)		700	조정현 (수의 58)		300
		)		100	)		100	)		100	조화민 (음대 64)		150
		)		100	)		100	)		100	지훈민 (수의 61)		200

종신 이사비

\$3,000 이상 / 70명

남가주 강신용 (사대 73) 김재영 (농대 62) 김정희 (음대 56) 노명호 (공대 61) 박명근 (상대 63) 박윤수 (문리 48) 박종수 (수의 58) 방명진 (공대 73) 서동영 (사대 60) 서영석 (의대 55) 서치원 (공대 69) 심상은 (상대 54) 오재인 (치대 33) 오홍준 (치대 56) 이병준 (상대 55) 이세열 (사대 57)	이종도 (공대 66) 이청광 (상대 61) 이홍표 (의대 58) 임낙균 (약대 64) 임용오 (의대 57) 전희택 (의대 60) 제영혜 (가정 71) 조충원 (문리 66) 차종환 (사대 54) 한귀희 (미대 68) 한홍택 (공대 60) 뉴욕 김광호 (문리 62) 오인석 (법대 58)* 윤정옥 (약대 50) 이기영 (농대 70)	이전구 (농대 60) 이재덕 (법대 60) 이준행 (공대 48) 뉴잉글랜드 고일석 (보건 69) 김문수 (수의 61) 박경민 (의대 53) 박영철 (농대 64) 오세경 (약대 61) 윤상래 (수의 62) 윤성홍 (치대 64) 정선주 (간호 68) 루이지애나 강영빈 (문리 58)* 미네소타	남세현 (공대 59) 조형준 (문리 62) 시카고 남상용 (공대 52) 이용락 (공대 48) 정 태 (의대 57) 한재은 (의대 59) 오하이오 김용현 (경원 66) 워싱턴 DC 강연식 (사대 58) 권기현 (사대 53) 방은호 (약대 43) 오인환 (문리 63)	중부텍사스 이광연 (공대 60) 조지아 주중광 (약대 60) 허지영 (문리 66) 필라델피아 서중민 (공대 64) 손재욱 (가정 77) 이만택 (의대 52) 주기목 (수의 68) 지홍민 (수의 61) 플로리다 김준권 (의대 63)	하트랜드 김경숙 (가정 70) 김명자 (문리 62) 이교락 (의대 53) 이상강 (의대 70) 휴스턴 박태우 (공대 64) 조시호 (문리 59) - 종신이사 (고인) - * 표: 한변이상 내신 분
---	--	---	---	---	--

동창회비 (1차 회기: 2017. 7. 1 ~ 2018. 6. 30)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 표: 2차 회기까지 모두 내신 분

남가주 SCA/NV	김희창 (공대 64)* 나두섭 (의대 66) 나민준 (음대 65)* 나승욱 (문리 59) 노명호 (공대 61) 문동수 (공대 73) 문병길 (문리 61) 문인일 (공대 51) 강종경 (공대 48) 강호석 (상대 81) 강홍채 () 강희창 (공대 57) 고석규 (치대 65) 고석원 (문리 59) 곽용길 (문리 50) 권기상 (상대 72) 권시한 (문리 52) 권영달 (문리 50) 권처균 (공대 51) 김건진 (문리 62)* 김경옥 (미대 61) 김광은 (음대 56) 김구자 (미대 61) 김규현 (법대 53) 김기형 (경영 75) 김난영 (공대 53) 김동산 (법대 59)* 김동훈 (법대 56)* 김병연 (공대 68) 김병완 (공대 58) 김상온 (약대 59) 김석홍 (법대 59) 김성기 (법대 59) 김성복 (공대 50) 김성한 (의대 65) 김수영 (사대 57) 김순길 (법대 54) 김순길 (문리 61) 김순자 (치대 57)* 김순덕 (간호 61)* 김 영 (수의 63)* 김영덕 (법대 58) 김영순 (음대 59) 김영춘 (수의 64) 김정호 (가정 60)* 김용재 (의대 60) 김용진 (공대 66) 김원경 (약대 59) 김원호 (약대 63) 김원탁 (공대 65) 김인홍 (상대 74)* 김일영 (의대 65) 김정애 (간호 69) 김정희 (음대 56) 김재영 (농대 62) 김종표 (법대 58) 김준일 (공대 62) 김진형 (문리 55)* 김창무 (음대 53) 김창신 (사회 75) 김태윤 (법대 53)* 김택수 (의대 57) 김현황 (공대 64) 김홍목 (문리 60) 김희재 (사대 66)	양은혁 (상대 56) 양창호 (상대 54) 오선웅 (의대 63) 오양숙 (간호 60)* 위종민 (공대 64) 유덕훈 (상대 48) 유석홍 (상대 61)* 유재환 (상대 67)* 유진형 (상대 47) 유희자 (음대 68) 윤경민 (법대 55) 윤용길 (공대 55) 윤희성 (치대 65) 이강일 (의대 62)* 이미정 (의대 78) 이경수 (수의 73) 이גיע (사대 52) 이기준 (법대 54) 이명선 (상대 58) 이문상 (공대 62) 이무성 (사회 77)* 박운수 (문리 48) 박인수 (농대 64) 박민창 (농대 65) 박임하 (치대 56) 박일우 (의대 70) 박범하 (의대 66) 박은주 (간호 70) 박중수 (수의 58) 박찬호 (농대 63) 박창선 (공대 55)* 박취서 (약대 60) 박태호 (치대 66) 박해란 (미대 70) 방명진 (공대 73) 방석훈 (농대 55) 방정자 (간호 61) 배동완 (공대 65) 배병욱 (음대 58) 배성진 (대원 79) 배옥례 (간호 55) 배운숙 (미대 65) 배효식 () 백만일 (공대 64) 백소진 (문리 55) 백옥자 (음대 71) 변영근 (수의 52)* 서동영 (사대 60) 서영석 (상대 61) 성주경 (상대 68)* 손기용 (의대 55) 손기용 (의대 55) 손선행 (간호 69) 손학식 (공대 61) 신동국 (수의 76) 신규식 (농대 61) 신상화 (공대 58)* 심상은 (상대 54) 신영찬 (의대 63)* 안병일 (의대 63) 안상금 (간호 70) 양광주 (문리 58) 양수진 (간호 80) 양승문 (공대 65) 양운택 (의대 58)	양은혁 (상대 56) 양창호 (상대 54) 오선웅 (의대 63) 오양숙 (간호 60)* 위종민 (공대 64) 유덕훈 (상대 48) 유석홍 (상대 61)* 유재환 (상대 67)* 유진형 (상대 47) 유희자 (음대 68) 윤경민 (법대 55) 윤용길 (공대 55) 윤희성 (치대 65) 이강일 (의대 62)* 이미정 (의대 78) 이경수 (수의 73) 이גיע (사대 52) 이기준 (법대 54) 이명선 (상대 58) 이문상 (공대 62) 이무성 (사회 77)* 박운수 (문리 48) 박인수 (농대 64) 박민창 (농대 65) 박임하 (치대 56) 박일우 (의대 70) 박범하 (의대 66) 박은주 (간호 70) 박중수 (수의 58) 박찬호 (농대 63) 박창선 (공대 55)* 박취서 (약대 60) 박태호 (치대 66) 박해란 (미대 70) 방명진 (공대 73) 방석훈 (농대 55) 방정자 (간호 61) 배동완 (공대 65) 배병욱 (음대 58) 배성진 (대원 79) 배옥례 (간호 55) 배운숙 (미대 65) 배효식 () 백만일 (공대 64) 백소진 (문리 55) 백옥자 (음대 71) 변영근 (수의 52)* 서동영 (사대 60) 서영석 (상대 61) 성주경 (상대 68)* 손기용 (의대 55) 손기용 (의대 55) 손선행 (간호 69) 손학식 (공대 61) 신동국 (수의 76) 신규식 (농대 61) 신상화 (공대 58)* 심상은 (상대 54) 신영찬 (의대 63)* 안병일 (의대 63) 안상금 (간호 70) 양광주 (문리 58) 양수진 (간호 80) 양승문 (공대 65) 양운택 (의대 58)	장인숙 (간호 70) 장칠봉 (수의 65) 전경철 (공대 55)* 전낙관 (사대 60) 전상욱 (사대 52)* 전성대 (사대 60) 전연근 (수의 52) 전희택 (의대 58) 정길택 (수의 54) 정동구 (공대 57)* 정동주 (가정 72)* 정상진 (상대 59) 정연웅 (상대 63) 정예진 (상대 63) 정영준 (상대 63) 정정우 (수의 74) 정재훈 (공대 64)* 정태무 (사대 44) 정현진 (간호 68) 정형민 (문리 71) 정 황성 (상대 64)* 제영혜 (가정 71) 조 경 () 조동준 (의대 59) 조만연 (상대 58) 조상철 () 이서희 (상대 64) 조순자 (치대 57)* 조정사 (공대 60) 조태준 (문리 59) 조임현 (간호 72) 조재길 (사대 61)* 주정태 (상대 65) 지인수 (상대 69)* 차민영 (의대 76)* 최경홍 (공대 60) 최동욱 (의대 59) 최 영 () 최영진 (사대 61) 최은관 (상대 64) 최재윤 (인문 54) 하기환 (공대 66)* 하선호 (치대 81) 한동수 (의대 60)* 한병웅 (문리 71)* 한은실 (음대 61) 한종철 (치대 62) 한홍택 (공대 60) 한효동 (공대 58) 허영진 (문리 61) 현기용 (문리 64) 홍동식 (법대 64) 홍석관 (사대 47) 홍선례 (음대 71)* 홍성선 (약대 73) 홍수웅 (의대 59)* 황선주 (약대 69)* 홍 진 (간호 56)* 북가주 SAN FRANCISCO	강재호 (상대 57) 강윤희 () 72) 권오형 (사대 61) 김명환 (문리 67) 김병덕 (법대 58) 김병호 (상대 57) 김윤범 (의대 54) 김옥경 (음대 69) 김완기 (사대 50) 김정복 (사대 55) 김정희 (음대 56) 김현황 (공대 64) 김형동 (법대 67) 김희봉 (공대 68) 남광순 (음대 64) 민병근 (공대 65) 박경복 (약대 63)* 박서규 (법대 56)* 박성수 (공대 59)* 박우성 (법대 53)* 박종영 (상대 52)* 부영무 (치대 72)* 손창순 (공대 69) 송영훈 (상대 57)* 안병철 (공대 58) 안호식 (문리 58) 온기철 (의대 65)* 유두영 (공대 55) 유승일 (의대 59) 이강우 (문리 59)* 이관모 (공대 55) 이성형 (공대 57)* 이흥기 (공대 62) 임정란 (음대 76) 전광신 (사대 64) 정규남 (공대 52) 정지선 (상대 58) 김광수 (상대 56) 정유석 (의대 58) 조태목 (사대 60) 최경선 (농대 65) 한상봉 (수의 67) 홍경삼 (문리 61) 홍병익 (공대 68) 황규혁 (공대 50) 황동화 (의대 65) 뉴욕 NJ/NY	김동환 (약대 56) 김명승 (상대 65)* 김명철 (공대 60) 김문경 (약대 61)* 김병권 (문리 63) 김병술 (보건 65)* 김병술 (약대 52)* 김봉현 (사대 54) 김상만 (법대 52) 김상준 (상대 57) 김석식 (의대 58) 김석자 (음대 61) 김성현 (약대 56) 김성호 (공대 71) 김세중 (공대 50) 김수산 (의대 52) 김수일 (약대 62) 김영무 (공대 75)* 김영애 (사대 56) 김영일 (약대 58) 김영철 (의대 55) 김영희 (간호 53)* 김예쁨 (의대 55) 김완주 (의대 54) 김용술 (상대 56) 김용연 (문리 63) 김우영 (상대 60) 김옥현 (의대 59) 김유순 (간호 64)* 김윤수 (상대 50) 김은섭 (의대 53) 김인형 (미대 59) 김정원 (약대 54) 김재경 (농대 58) 김종률 (사대 51) 김중현 (법대 57) 김진자 (간호 60) 김창수 (약대 64)* 이경림 (상대 64)* 이경태 (공대 63)* 이국진 (사대 51) 이대연 (약대 65) 이대영 (문리 64) 이명준 (공대 72) 김제성 (공대 87) 김제호 (상대 56) 김재관 (의대 62) 김중성 (상대 76)* 김 현 (의대 62) 박종진 (의대 56) 배지선 (수의 94)* 송미자 (농대 62) 윤상태 (수의 62) 윤영자 (미대 60) 윤용훈 (공대 67) 윤은상 (상대 66) 이강원 (공대 66) 이영인 (사대 74) 이의인 (공대 68) 이정수 (공대 71) 이재신 (공대 57)* 이희규 (공대 69) 장수인 (음대 76) 장용복 (공대 58)* 정인식 (상대 58)*	변건웅 (공대 65) 변해순 (간호 68) 변호현 (간호 63) 서병선 (음대 65) 서정웅 (약대 63) 석진경 (약대 96) 선종철 (의대 57) 성기로 (약대 57) 손갑수 (약대 59) 손경택 (농대 57) 송근숙 (간호 66) 송영순 (사대 60) 송용섭 (농대 63) 송용길 (대원 69)* 신달수 (공대 50) 신두식 (의대 58) 신용남 (농대 70) 신정윤 (공대 60)* 신정자 (간호 62) 안태홍 (상대 65)* 양거명 (약대 49) 양계영 () 양명자 (사대 63) 오민근 (약대 52)* 용하식 (법대 58) 우대식 (문리 57) 우상영 (상대 55) 유영호 (의대 52) 유재섭 (공대 65) 유택상 (문리 58) 육순재 (의대 63)* 윤봉균 (사대 54) 윤신원 (의대 50) 윤영섭 (의대 57) 윤인숙 (간호 63) 윤 철 (문리 54) 윤희정 (문리 59) 이강홍 (상대 60)* 이경림 (상대 64)* 이경태 (공대 63)* 이국진 (사대 51) 이대연 (약대 65) 이대영 (문리 64) 이명준 (공대 72) 김제성 (공대 87) 김제호 (상대 56) 김재관 (의대 62) 김중성 (상대 76)* 김 현 (의대 62) 박종진 (의대 56) 배지선 (수의 94)* 송미자 (농대 62) 윤상태 (수의 62) 윤영자 (미대 60) 윤용훈 (공대 67) 윤은상 (상대 66) 이강원 (공대 66) 이영인 (사대 74) 이의인 (공대 68) 이정수 (공대 71) 이재신 (공대 57)* 이희규 (공대 69) 장수인 (음대 76) 장용복 (공대 58)* 정인식 (상대 58)*	정태영 (문리 71) 주창준 (의대 50)* 조성호 (공대 85) 최선희 (문리 69) 최홍균 (공대 69) 한승원 (미대 60) 홍지복 (간호 70) 황보민영 (공대 03) 북텍사스 LA/DALLAS 김옥균 (공대 54) 김종원 (의대 60) 박영규 (사대 66) 박준섭 (약대 63) 유 황 (농대 56) 조진태 (문리 57) 최준권 (문리 59) 탁혜숙 (음대 67) 황영규 (공대 61)* 라스베가스 LV/NV 김영중 (치대 66)* 윤우용 (공대 63) 록키마운틴 MT/CO/WY/NM 송요준 (의대 64) 이경화 (공대 56) 뉴잉글랜드 MA/RI/NH/ME/VT 고일석 (보건 69) 곽세홍 (공대 75) 김광수 (자연 73) 김만욱 (약대 56) 김문소 (수의 61)* 김선혁 (약대 59) 김 영 () * 김정환 (공대 52) 김제성 (공대 87) 김제호 (상대 56) 김재관 (의대 62) 김중성 (상대 76)* 김 현 (의대 62) 박종진 (의대 56) 배지선 (수의 94)* 송미자 (농대 62) 윤상태 (수의 62) 윤영자 (미대 60) 윤용훈 (공대 67) 윤은상 (상대 66) 이강원 (공대 66) 이영인 (사대 74) 이의인 (공대 68) 이정수 (공대 71) 이재신 (공대 57)* 이희규 (공대 69) 장수인 (음대 76) 장용복 (공대 58)* 정정옥 (의대 60)
---------------	---	--	--	--	---	--	--	---

동창회비 (1차 회기: 2017. 7. 1 ~ 2018. 6. 30)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 표: 2차 회기까지 모두 내신 분

IL/IN/WI/MI	이승자 (사대 60) 이승훈 (공대 66) 이시영 (상대 46) 이영철 (공대 60) 이용락 (공대 48) 이용수 (약대 51) 이윤모 (농대 57) 이정일 (농대 57) 이정화 (음대 56) 이종일 (의대 65)* 임병훈 (의대 54) 임이섭 (미대 54) 임현재 (의대 59) 장시경 (약대 58) 장영희 (의대 57) 장윤일 (공대 60) 장 흥 (문리 61) 정승규 (공대 60)* 조대현 (공대 57) 조문희 (공대 56)* 조병근 (공대 64) 조희열 (의대 60)* 조희열 (의대 60)* 조형원 (약대 50) 천양곡 (의대 63)* 채우원 (의대 59) 최대한 (의대 53) 최혜숙 (의대 53) 최희수 (문리 67) 한의열 (공대 62) 한재은 (의대 59) 함성택 (문리 55) 황치룡 (문리 65) 하계원 (공대 64) 아리조나 ARIZONA 김영중 (치대 66)* 박양세 (약대 48) 지영환 (의대 59) 진명규 (공대 70) 신석균 (문리 55) 신석균 (문리 55) 오하이오 OHIO 김동광 (공대 62) 김용현 (경원 66) 김태웅 (의대 61) 명인재 (자연 75) 성홍환 (수의 75)* 이갑조 (간호 51) 여준구 (의대 64) 이덕수 (문리 58) 이동균 (공대 75) 이상일 (의대 54) 이성길 (의대 65)	이승자 (사대 60) 이승훈 (공대 66) 이시영 (상대 46) 이영철 (공대 60) 이용락 (공대 48) 이용수 (약대 51) 이윤모 (농대 57) 이정일 (농대 57) 이정화 (음대 56) 이종일 (의대 65)* 임병훈 (의대 54) 임이섭 (미대 54) 임현재 (의대 59) 장시경 (약대 58) 장영희 (의대 57) 장윤일 (공대 60) 장 흥 (문리 61) 정승규 (공대 60)* 조대현 (공대 57) 조문희 (공대 56)* 조병근 (공대 64) 조희열 (의대 60)* 조희열 (의대 60)* 조형원 (약대 50) 천양곡 (의대 63)* 채우원 (의대 59) 최대한 (의대 53) 최혜숙 (의대 53) 최희수 (문리 67) 한의열 (공대 62) 한재은 (의대 59) 함성택 (문리 55) 황치룡 (문리 65) 하계원 (공대 64) 아리조나 ARIZONA 김영중 (치대 66)* 박양세 (약대 48) 지영환 (의대 59) 진명규 (공대 70) 신석균 (문리 55) 신석균 (문리 55) 오하이오 OHIO 김동광 (공대 62) 김용현 (경원 66) 김태웅 (의대 61) 명인재 (자연 75) 성홍환 (수의 75)* 이갑조 (간호 51) 여준구 (의대 64) 이덕수 (문리 58) 이동균 (공대 75) 이상일 (의대 54) 이성길 (의대 65)	최인갑 (공대 57) 앨라스카 ALASKA 윤제중 (농대 54)* 하인환 (공대 56) 오레곤 OR/ID 김상만 (음대 46) 김상순 (상대 67) 성성모 (사대 67) 송재용 (의대 69) ShinJD (인문 58) 박희진 (농대 78) 전병택 (상대 65) 정성국 (인문 73) 한국남 (공대 57) 한영준 (사대 60) 워싱턴 DC DC/MD/VA/WV 강길중 (약대 69) 강연식 (사대 58) 계화자 (문리 61) 고무환 (법대 57) 공순옥 (간호 66)* 곽명수 (문리 65) 권오근 (상대 58) 김내도 (공대 62) 김동훈 (법대 56)* 김명자 (법대 52) 김병호 (의대 63) 김복순 (사대 55) 김안정 (문리 59) 김용덕 (의대 53) 김용한 (상대 50) 김진수 (의대 60) 김진은 (사대 55) 김 철 (의대 62) 남춘일 (사대 69) 도상철 (의대 63) 박 엽 (사회 80) 박용길 (약대 56)* 박인영 (의대 69) 송재용 (문리 59) 박은희 (미대 68) 박 철 (공대 57) 박홍후 (인문 61) 방정화 (의대 61) 백 순 (법대 58)	서기병 (상대 55) 서윤석 (의대 62) 서휘열 (의대 55) 석균범 (문리 61) 송병준 (약대 68) 송윤정 (인문 89) 신영철 (의대 53) 신용계 (의대 62) 신준보 (상대 55) 안선미 (농대 65) 안세현 (의대 62) 안승건 (문리 55) 양광수 (공대 73)* 우제형 (상대 54) 유덕영 (의대 57) 유영준 (의대 58)* 유정식 (수의 60) 류재풍 (법대 60)* 유홍열 (자연 74) 윤경의 (공대 57) 원종민 (약대 57) 오광동 (공대 52) 오인환 (문리 63) 이건형 (수의 54) 이경애 (문리) 이규양 (문리 62)* 이길승 () 57) 이내원 (사대 58) 이문향 (공대 46)* 이선구 (인문 65) 이연주 (치대 88) 이영수 (공대 59) 이유세 (사대 72) 이윤주 (상대 62)* 이인옥 () 68) 이재승 (의대 55) 이준영 (치대 74)* 이종두 (의대 57) 이중상 (문리 54) 이진호 (공대 46)* 임종식 (의대 51) 임창주 (공대 55) 임필순 (의대 54) 장운희 (사대 54) 전희순 (간호 76) 정계훈 (문리 55) 정원자 (농대 62) 정평희 (공대 71) 정희연 (의대 66)* 조영희 (문리 66) 조화영 (문리 61)* 차임경 (가정 77) 최경수 (문리 54) 최규식 (상대 64)* 최길찬 (사대 88) 최재규 (미대 63)	최준호 (공대 60) 한희생 (수의 60) 한인섭 (문리 55) 한정민 (농대 87) 함은선 (음대 77) 홍영석 (공대 58) 신용계 (의대 62) 신준보 (상대 55) 안선미 (농대 65) 김석희 (의대 52) 김재훈 (공대 72)* 김주용 (의대 56) 박진수 (의대 56) 박찬형 (의대 56) 최용진 (의대 63) 변종혜 (법대 58) 류성렬 (공대 72)* 안승적 (법대 59)* 양용관 (수의 62) 윤태근 (상대 69)* 이순모 (공대 56)* 이원섭 (농대 77)* 이희백 (의대 55) 최준환 (농대 58) 하주홍 (경영 77) 홍영옥 (음대 54) 고영자 (치대 63) 김경희 (가정 71) 김규화 (상대 63) 김순주 (치대 95) 김영남 (의대 61) 김용재 (의대 60) 김정현 (공대 68) 김재술 (약대 58) 김철우 (공대 79) 김한중 (공대 56) 김현영 (수의 58)* 노은숙 (약대 53)* 문대옥 (의대 67) 박영환 (약대 68) 박홍영 (공대 65) 배성호 (의대 65) 안창현 (의대 55) 이정필 (의대 58) 이재덕 (법대 60) 임필순 (의대 54) 전영자 (미대 58) 조동건 (공대 69) 신상재 (수의 59) 신선자 (사대 60) 신성식 (공대 56)* 신의석 (공대 53)* 심영석 (공대 76) 심완섭 (의대 67)*	정선휘 (공대 65)* 주종광 (약대 60) 최재학 (사대 56) 최충진 (의대 63) 한 호 (상대 62) 허지영 (문리 66) 이만택 (의대 52)* 이성숙 (가정 74)* 이수경 (자연 81) 이승훈 (의대 63) 전무식 (수의 61) 전방남 (상대 73)* 전희근 (의대 54) 정덕준 (상대 63) 정용남 (문리 60) 정정현 (의대 56) 정태광 (공대 74) 정홍택 (상대 61) 제갈은 (문리 59)* 조영호 (음대 56)* 조정현 (수의 58) 주기목 (수의 68) 조화연 (음대 64) 지재원 (사대 68) 지홍민 (수의 61) 진병학 (의대 57)* 차호순 (문리 60) 최종무 (상대 63) 최종문 (공대 61) 최현태 (문리 62) 한기빈 (공대 52) 한수웅 (의대 55)* 한용오 (보건 70) 한인섭 (의대 63) 황선희 (공대 74) 강영배 (수의 59) 강준철 (사대 59) 고영자 (치대 63) 김경희 (가정 71) 김규화 (상대 63) 김순주 (치대 95) 김영남 (의대 61) 김용재 (의대 60) 김정현 (공대 68) 김재술 (약대 58) 김철우 (공대 79) 김한중 (공대 56) 김현영 (수의 58)* 노은숙 (약대 53)* 문대옥 (의대 67) 박영환 (약대 68) 박홍영 (공대 65) 배성호 (의대 65) 안창현 (의대 55) 이정필 (의대 58) 이재덕 (법대 60) 임필순 (의대 54) 전영자 (미대 58) 조동건 (공대 69) 신상재 (수의 59) 신선자 (사대 60) 신성식 (공대 56)* 신의석 (공대 53)* 심영석 (공대 76) 심완섭 (의대 67)*	안세현 (의대 62) 엄종렬 (미대 61) 유기병 (문리 64)* 유영걸 (의대 70) 윤정나 (음대 57) 이규호 (공대 56) 이만택 (의대 52)* 이성숙 (가정 74)* 이수경 (자연 81) 이승훈 (의대 63) 전무식 (수의 61) 전방남 (상대 73)* 전희근 (의대 54) 정덕준 (상대 63) 정용남 (문리 60) 정정현 (의대 56) 정태광 (공대 74) 정홍택 (상대 61) 제갈은 (문리 59)* 조영호 (음대 56)* 조정현 (수의 58) 주기목 (수의 68) 조화연 (음대 64) 지재원 (사대 68) 지홍민 (수의 61) 진병학 (의대 57)* 차호순 (문리 60) 최종무 (상대 63) 최종문 (공대 61) 최현태 (문리 62) 한기빈 (공대 52) 한수웅 (의대 55)* 한용오 (보건 70) 한인섭 (의대 63) 황선희 (공대 74) 강영배 (수의 59) 강준철 (사대 59) 고영자 (치대 63) 김경희 (가정 71) 김규화 (상대 63) 김순주 (치대 95) 김영남 (의대 61) 김용재 (의대 60) 김정현 (공대 68) 김재술 (약대 58) 김철우 (공대 79) 김한중 (공대 56) 김현영 (수의 58)* 노은숙 (약대 53)* 문대옥 (의대 67) 박영환 (약대 68) 박홍영 (공대 65) 배성호 (의대 65) 안창현 (의대 55) 이정필 (의대 58) 이재덕 (법대 60) 임필순 (의대 54) 전영자 (미대 58) 조동건 (공대 69) 신상재 (수의 59) 신선자 (사대 60) 신성식 (공대 56)* 신의석 (공대 53)* 심영석 (공대 76) 심완섭 (의대 67)*	커네티컷 CT 김기훈 (상대 52) 라찬국 (의대 75) 유시영 (문리 68) 최수강 (의대) * 한일송 (의대 60) 홍성취 (공대 56) 전무식 (수의 61) 전방남 (상대 73)* 전희근 (의대 54) 정덕준 (상대 63) 정용남 (문리 60) 정정현 (의대 56) 정태광 (공대 74) 정홍택 (상대 61) 제갈은 (문리 59)* 조영호 (음대 56)* 조정현 (수의 58) 주기목 (수의 68) 조화연 (음대 64) 지재원 (사대 68) 지홍민 (수의 61) 진병학 (의대 57)* 차호순 (문리 60) 최종무 (상대 63) 최종문 (공대 61) 최현태 (문리 62) 한기빈 (공대 52) 한수웅 (의대 55)* 한용오 (보건 70) 한인섭 (의대 63) 황선희 (공대 74) 강영배 (수의 59) 강준철 (사대 59) 고영자 (치대 63) 김경희 (가정 71) 김규화 (상대 63) 김순주 (치대 95) 김영남 (의대 61) 김용재 (의대 60) 김정현 (공대 68) 김재술 (약대 58) 김철우 (공대 79) 김한중 (공대 56) 김현영 (수의 58)* 노은숙 (약대 53)* 문대옥 (의대 67) 박영환 (약대 68) 박홍영 (공대 65) 배성호 (의대 65) 안창현 (의대 55) 이정필 (의대 58) 이재덕 (법대 60) 임필순 (의대 54) 전영자 (미대 58) 조동건 (공대 69) 신상재 (수의 59) 신선자 (사대 60) 신성식 (공대 56)* 신의석 (공대 53)* 심영석 (공대 76) 심완섭 (의대 67)*	김승희 (법대 55) 김호원 (치대 52) 도태영 (사회 93) 백선숙 (문리 51) 성낙준 (사대 68)* 오명순 (가정 69) 임영신 (의대 54) 최은관 (상대 64) 차봉희 (의대 51) 휴스턴 HOUSTON 김기준 (공대 61)* 김태훈 (공대 57) 김한섭 (의대 53) 박민자 (사대 58) 박석규 (간호 59) 박유미 (약대 62) 박태우 (공대 64) 유한창 (공대 69) 이규진 (약대 60) 이길영 (문리 59) 이찬주 (문리 63) 이학호 (수의 59) 탁순덕 (사대 57) 진기주 (상대 60) 최관일 (공대 54) 최성호 (문리 58) 최영기 (공대 63) 최용천 (의대 53) (* 2017~2019) 김영주 (공대 53) 김현주 (문리 61)* 오선웅 (의대 63) 신승하 ()
-------------	--	--	--	---	---	--	--	---	---

미주 동문 업소록

CA 남가주
광고
Pancom 광고기획 김영민 (농대 72) Tel:(213)427-1377 / youngkim@pancom.com 3701 Wilshire Blvd. #800, LA, CA 90010
공인회계사
Kyung Moo Kim CPA & Accounting Coporation 김경무 공인회계사 (공대 69) Tel. (213) 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0 LA, CA 90010
AAMKO Consulting Co. (강신용 공인회계사) 강신용 (사대 73) Tel. (213) 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Tel. (213) 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4 LA, CA 90010
 GSK LLP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 Business Consultants 강호석(상대81), 김낙구(상대67), 강동순(법대59) Tel. (213) 380-5060(LA), (714) 530-3630(Garden Grove, CA)
STANLEY Cha, CPA 차기민 (공대 85) Tel. (213) 739-5700, (714) 525-1821 schacpa@gmail.com 3440 Wilshire Blvd. #807 LA, CA 90010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Jun Chang CPA & Associates, AC 장 준 (인문대 85) Tel. (818) 772-2811, (213) 272-2460 jun@junchangcpa.com 19520 Nordhoff St. Suite 16, Northridge, CA 91324 3580 Wilshire Blvd. Suite 900 Los Angeles, CA 90010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AXA Advisor Paramount Planning Group 조임현 (간호대 72) Tel. (213) 487-3253 3435 Wilshire Blvd. Ste.2500 LA, CA 90010 im.cho@axa-advisors.com
운송 / 유통 / 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유통 / 강관도매) 이병준 (상대 55) Tel. (949) 655-8000 2100 Main Street #100 Irvine, CA 92614
OR 오레곤
Flonomix Inc. 박희진 (농대 78) Tel. (503) 648-0775 5897 NE Alder St., Hillsboro, OR 97124

식품 / 음식점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 (상대 74) Tel. (562) 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해태 USA/Haitai Inc. 정정우 (수의 74) Tel. 323-890-0101 7227 Telegraph Rd., Montebello, CA 90640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 (농대 74) Tel. (714) 641-4730 1526 Brookhollow Dr, Santa Ana, CA 92705
의료 / 약국
실로암 병원 (Siloam Medical Clinic) 신경정신과 정균희 (의대 64) Christopher K.Chung MD. Tel. (213) 386-5002 2528 W.Olympic Blvd.#103 LA CA 90006 drcchung@yahoo.com
Beverly Cardiology Group Il Young Kim MD (의대 65) Diana Kim MD Tel. (323) 662-1175 3919 Beverly Blvd., #100 LA CA 90004 www.beverlycardiology.com
정수만 암내과.혈액내과 정수만 (의대 66) Tel. (714) 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KMAX 유창호(약대 74) Tel. 213-381-3200 814 S. Alvarado St. LA. CA 90057
Gilbert Pharmacy 최무식 (약대 66) Tel. (714) 638-8230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Seoul Medical Group ★ 차민영 (의대 76) Tel: 213-480-7770 (877) 764-1405 520 S. Virgil Ave.#103 LA, CA 9000
나성약국 ★ 임낙균 (약대 64) Tel: (213) 387-3030 3030 W. Olympic Bl. #118 LA. CA 90006
치과
오흥조(치대 56) Oh, Heung Jo 2860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213)382-8205
황준오 DDS 황준오 (치대 73) Tel. (408) 732-0493 877 W.Fremont Ave.#H3 Sunnyvale, CA 94087

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 (치대 81) Tel. (213) 365-1008 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 ddsshp@yahoo.com
우주개발 / 기술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 (공대 64) Tel. (714) 952-2240 10874 Hope St. PO Box 6034 Cyroress, CA 90630 jchung@taycoeng.com www.taycoeng.com
Link TV Media 김원탁(공대 65) 17607 Sherman Way #204 Van Nuys, CA 91406 (O) (818) 514-6780 (M) (818) 720-2373 linkboxusa@gmail.com www.linkboxusa.com
동물병원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 (수의대 76) Tel. (714) 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 (수의대 66) Tel. (909) 627-0951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 (수의대 67) Tel. (510) 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변호사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사대 81) Tel. (213) 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os Angeles, CA 90010
한태호 변호사 법률그룹 Kenneth T.HAAN & Associates, APLC 한태호 변호사 Tel. (213) 639-2900, Fax. (213) 639-2909 3699 Wilshire Blvd. Ste.860 LA,CA 90010 www.haanlaw.com
부동산
Team Spirit Realty Jennie Lee 이종묘 (간호대 69) Realtor Tel. (714) 396-0624 30 Corporate Park, Ste.207 Irvine, CA 92606 jenniecelee@gmail.com
마켓
Han Nam Chain Market 하기환 (공대 66) Tel. 213-381-3610 2740 W. Olympic Bl. Los Angeles, CA 9006
기타
Turbo Air, Inc. ★ 서치원 (공대 69) Tel: 310-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라 캐나다 한인교회 독고원 (공대 65) Tel. (818) 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클리닉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 (농대 80) Tel. (909) 882-3800(B), (714) 323-8612(C)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자동차 / 서비스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 (사대 60) Tel. (310) 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CA 북가주
두리 하나 결혼정보 정지선(상대 58) '높은 성혼율과 많은 초혼, 재혼자 데이트 중, 서울대 동문과 동문자녀 특별할인' Tel. (510) 224-0760 13766 Aurora Dr. San Leandro, CA 94577 www.2makes1.com / 1durihana@gmail.com
비영리법인 해양 극지에너지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Offshore and Polar Engineers Cupertino, California 95015-0189 P.O. Box 189, Jin S Chung 정진수 (공대 56) Ocean, Arctic, Energy www.isopec.org, jschung@isopec.org

GA 조지아
Auto Plaza Group, INC. 이영진 (공대 76) Tel. (404) 579-8282 4132 Bedford Hwy. Duluth, GA 30096
Wesley & Associates, CPA 윤태우 Tel. (770) 451-1850 3700 Crestwood Pkwy, Suite 380, Duluth, GA 30096

PA 필라델피아
음식점
이즈미 일식당 최종문 (공대 61) Tel. (267) 408-7342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ASSI Plaza)
동물병원 / 치과
Cottman Animal Hospital 주기목 (수의대 68) Tel. (215) 745-9030 1012 Cottman Ave. Philadelphia, PA 19111
Blue Bell Family Dentistry 김순주 (치대 95) Tel. (610) 278-1110 1732 Dekalb Pike, Blue Bell, PA 19422

건축
Timothy Haahs & Assoc. 손재옥 (생활과대 77) Tel. (484) 342-0200 550 Township Line Rd. Ste.100 Blue Bell, PA 19422

NY / NJ (뉴욕 / 뉴저지)
공인회계사
Changsoo Kim, CPA P.C. 김창수 (약대 64) Tel. (212) 760-1768, (917) 647-0606 38 W 32St Suite #900 New York NY 10001 changsookimcpa@hotmail.com
KL CPA & Associates LLC 이경림 (상대 64) Tel. (212) 768-9144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변호사
신응남 변호사 신응남(농대 70) Tel: (718)463-3131 / petershinesq@gmail.com 158-14 Northern Blvd. 2Fl. Flushing, NY 11358

부동산
Evergreen Realty 이재원 (법대 60) Tel. (201) 944-5353 242 Broad Ave.Palisades Park, NJ 07650

COSMO Realty 이재덕 (법대 60) Tel. (201) 944-4949 258 Broad Ave.Palisades Park, NJ 07650 www.cosmorealty.com
--

Promise Realty 김도명 (농대 70) 조민형 (음대 84) Tel. (201) 585-7766 240 Grand Ave Suite 2 Leonia NJ 07605 Email: Promise@DonaldRealty.com
--

리테일러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 (농대 60) Tel. (212) 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American Int'l Line, Inc. 윤병하 (농대 80) Tel. (718) 995-7060 147-38 182nd St.Jamaica, NY 11413

치과
김성래 치과 (Closter Dental) 김성래 (치대 76) Tel. (201) 666-2828 570 Piermont Rd., Closter Commons # C1, Closter, NJ 07624

내과
백승원 위장내과 ANDREW S. BAIK M.D. 백승원 (의대 73) Tel. (201) 302-9774, (732) 744-9090 1608 Lemoine Ave. #200 Fort Lee NJ 07024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석창호 위장내과 Chang Ho Suk, M.D. 석창호 (의대 66) Tel. (718) 461-6212 41-61 Kissena Blvd # 27, Flushing, NY 11355
--

심인보 심장내과 IN-BO SHIM, M.D. 심인보 (의대 77) Tel. (201) 569-1800, (718) 836-0009 700 Palisade Ave 1St Fl.Englewood Cliffs, NJ 07632 237 82nd St, Brooklyn, NY 11209
--

이창석 내과 Chang Suk Lee, M.D. 이창석 (의대 72) Tel. (718) 762-4400 40-5 Bowne St, Flushing, NY 11354

재활의학
김치갑 카이로프랙 COMPREHENSIVE PAIN THERAPHY CENTER 김치갑 (의대 73) Tel. (201) 541-1111 475 Grand Ave. Englewood NJ 07631

김승관통증 및 재활의학병원 Seung K. Kim, M.D. 김승관 (의대 70) Tel. (718) 321-2870 35-20 147th St #1D, Flushing, NY 11354

비뇨기과
윤세웅 비뇨기과 Richard Sei-Oung Yoon, M.D. Ph.D. D.D. 윤세웅 Tel. (718) 335-3333 75-21 Broadway #1, Elmhurst, NY 11373 100-25 Queens Blvd. #16C, Forest Hills, NY 11375

알러지
이혁엽 알러지 전문의 Hyok Yup Lee, MD. F.A. 이혁엽 (의대 73) Tel. (201) 568-3800, (718) 321-7366 385 Sylvan Ave. E.C., NJ 07632 144-24 37th Ave. Room#LD Flushing, NY 11354

소아과
박범열 소아과 Beum Yul Park, M.D. 박범열 (의대 75) Tel. (718) 229-1188, (718) 899-4600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40-10 70th St. Woodside, NY 11377

박종호 소아과 C. Thomas Park, M.D. 박종호 (의대 79) Tel. (201) 242-1002 4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한의원
이수호 한의원 이수호 (보건대 69) Tel. (718) 353-6207 36-32 Union St. #3F Flushing, NY 11354

동물병원
RIDGEFIELD PARK ANIMAL HOSPITAL 김기택 (수의 81) Tel 201-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MD-VA 워싱턴 DC
식품 / 음식점
우래옥 백행남 (문리 60) Tel. 703-827-7300 8240 Leesburg Pike, Vienna, VA 22182

MD-VA 워싱턴 DC
치과
이준영 치과 이준영 (치대 74) Tel. (301) 220-2828, (301) 926-9692 6201 Greenbelt Rd. SieU-10. College Park, MD 20740 8931 Shady Grove Ct. Gaithersburg, MD 20877

엔지니어링 컨설팅
Drivetechn, Inc 엄달용 (공대 69) Tel. (703) 489-2474 25492 Carrington Drive, South Riding, VA 20152 www.drivetechninc.com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C &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 정세근 (자연대 82) Tel. (703) 663-8400(O), (703) 785-8467(C) 7023 Little River Tpke, #403, Annandale, VA 22003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욱현 (경영대 84) Tel. (301) 279-6969 414 Hungerford Dr. #104 Rockville, MD 20850 www.faclan.com
--

부동산
BPS Appraisal Company 박평일 (농대 69) Tel. (703) 750-1707 7518 Evans Ford Rd. Clifton, VA 20124

내가 번 돈 내가 쓰자!
다리 떨리기 전에 세계일주!

당신이 꿈꾸는 모든 여행이 가능합니다!



5대양 6대주에 걸친 폭넓은 네트워크
전세계 파트너십으로 어느곳이든 아주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봉사직원과 현지가이드의 입체시스템. 믿음직한 동행과 함께하세요.



33년 이상 전문성과 노하우



어느곳이든 5스타급 서비스와 가이드

usajutour.com 213-388-4000

광고문의: 978-835-0100

원고를 모집합니다
주제: 독자들의 생각과 식견을 넓혀주는 각 분야의 다양한 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문학, 철학, 역사, 과학, 의학, 생명과 환경, 여행, 취미 등]
글의 양: 500 단어 (글자 수 2,000자) 내의 글, A4 용지 한장 반 이내 사진: 고화질로 찍은 필자의 프로필 사진
보내실 곳: 원고와 사진은 news@snuua.org 로 보내주십시오. <편집부>



kccnews.net

The Korean Christian Community News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현장과 크리스천 문화활동을 취재보도하는 **Internet Media.**
각 지역 서울대 동문들의 문화활동 정보 바랍니다.

남미, 아프리카등 8개국 선교지 11회 방문취재
권문웅(미대 61) moonk206@gmail.com T.973.600.0834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2018년 동창회비를 아직 납부하지시 못한 동문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속히 동창회비를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년: \$75, 2년: \$150 / payable to SNUAA-USA)

SNU Alumni Association USA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미주 동창회보는 미주 동문의 역사 기록입니다.

제14대 미주동창회

미주지역 동창회 회장단

역대회장
박윤수 (문) · 강수상 (의) · 이병준 (상) · 오인석 (법) · 이용락 (공) 오홍조 (치) · 이영목 (공) · 이진구 (농) · 송순영 (문) · 김은중 (상) 오인환 (문) 명예회장: 손재욱 (가정)
제14대 회장: 윤상래 (수)
차기회장: 신응남 (농) Brain Network 공동 부회장: 하용출 (문), 이강원 (공) Brain Network 공동 위원장: 강명구 (문), 김병국 (공) 고문: 고일석 (보), 김은한 (의), 정정욱 (의), 김문소 (수) Corporate Counselor: 신응남 (농)
집행부
본부 부회장: 장수인 (음) 사무총장: 이상운 (수) 재무 국장: 김제성 (공) 총무 국장: 이진희 (수) 총무: 배지선 (수), 총무보: 황보민영 (공), 강은주 IT Consulting Team 업무 국장: 정선주 (간) 섭외 국장: 윤용훈 (공) 홍보 국장: 이영인 (사) 조직 및 광고국장: 백옥자 (음) 문화 국장: 홍선례 (음) 특별 사업국장: 허유선 (가정)
회보 발행인: 윤상래 (수), 고문: 김은한 (의)
편집장: 김원영 (미), 편집 고문: 김정현 (공) 편집 위원: 이정수 (공), 이상운 (수), 이진희 (수), 김제성 (공), 배지선 (수), 장수인 (음), 정태영 (문), 이영인 (사), 윤용훈 (공), 허유선 (가정), 홍선례 (음), 한정민 (농) 지역 기자단: 홍선례 (LA), 허유선 (NY), 한정민 (DC)
IT위원장: 김정현 (공)
논설 위원장: 이항렬 (법) 논설 위원: 김 영 (수), 강영국 (수), 정태영 (문), 박평일 (농), 고병철 (법), 백 순 (법), 김용현 (경), 김창수 (약), 민경훈 (법), 유재풍 (법), 이석구 (문), 이원영 (사), 이재진 (문), 장석정 (법), 정홍택 (상), 조동준 (의), 차민영 (의), 최용완 (공), 하용출 (문),
회칙 위원회: 위원장 한재은 (의) 회칙위원: 김병연 (공), 김용현 (상), 서종민 (공), 이강원 (공), 이민연 (법), 함은선 (음)
SNUAUSA CENTURY FOUNDATION 위원회: 위원장 이상강 (의) 회관 건립 연구 위원회: 위원장 김병연 (공), 고문 박중수 (수) 회보 개선 위원회: 위원장 주기목 (수) 사회 봉사 위원회: 위원장 황선희 (수)
장학 위원회: 위원장 윤상래 (수), 공동 위원장: 김용구 (공)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욱 (직전회장), 이상강 (의), 이원섭 (농), 강창석 (의)
포상 위원회: 위원장 윤상래 (회장) 위원: 각 지부 회장
모교 발전기금 위원회: 위원장 윤상래 (회장)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욱 (직전회장), 이상강 (의), 이원섭 (농), 강창석 (의)
감사: 김명승 (상), 박영철 (농)

지역		이름	전화	Email	회계연도
남가주 S.CA/NV	회장	강신용 (사대 73)	213-380-1600	aamkocpa@gmail.com	Feb-Jan
	차기회장	한귀희 (미대 68)	805-300-7977	khahn@4apec.com	
북가주 SAN FRANCISCO	회장	곽준경 (법대 75)	650-656-7683	joon.kwag@gmail.com	Jan-Dec
	차기회장				
뉴욕 NY/NJ	회장	이대영 (문리 64)	516-770-0070	dyldyl88@hotmail.com	July-Jun
	차기회장	손대홍 (미대 79)	201-388-4700	sohn6305@gmail.com	
뉴잉글랜드 MA/RI/NH/ME/VT	회장	박영철 (농대 64)	781-674-2498	youngpark6@yahoo.com	Jul-Jun
	차기회장	윤은상 (상대 66)			
북텍사스 LA/DALLAS	회장	이석호 (농대 78)	214-244-3630	iseeko@gmail.com	Jan-Dec
룩키마운틴스 MT/CO/WY/NM	회장	최용문 (공대 77)	480-209-9992	ymcgreencorp@gmail.com	Jan-Dec
	차기회장				
미네소타 MINNESOTA	회장	황효숙 (사대 65)	651-308-0796	sook@nano-dyne.com	Jan-Dec
	차기회장	송세진 (치대 78)	612-423-1055	sejinsong@gmail.com	
샌디에고 SAN DIEGO	회장	이재봉 (인문 88)	760-585-8396	jebong20@yahoo.com	Nov-Oct
	차기회장				
시카고 IL/IN/WI/MI	회장	홍혜례 (사대 72)	773-896-7987	hyerye.hong@gmail.com	Jan-Dec
	차기회장	김승주 (간호 69)	630-341-1943	seungjoochang@gmail.com	
애리조나 ARIZONA	회장	오윤환 (공대 56)	520-271-2601	youn.oh@gmail.com	
	차기회장				
앨라스카 ALASKA	회장	윤재중 (농대 55)	907-223-0887	jaeyoon@hotmail.com	
오레곤 OR/ID	회장	김기린 (사대 75)	360-213-5476	blueberryfield@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오하이오 OHIO	회장	이성우 (상대 72)	614-370-5761	rimshake@ameritech.net	
	차기회장				
워싱턴 DC DC/MD/VA/WV	회장	안선미 (농대 65)	347-776-0304	sunmi_ahn@yahoo.com	Jul-Jun
	차기회장	정세근 (자연 82)	703-785-8467	saekewn@gmail.com	
워싱턴 주 WASHINGTON	회장	류성렬 (공대 72)	425-786-4766	stiinc94@gmail.com	Jan-Dec
	총무	임현민 (공대 84)	425-444-3899	heonmin.lim@microsoft.com	
유타 UTAH	회장	김한설 (공대 93)	734-904-9672	hanseup@ece.utah.edu	Jan-Dec
	차기회장				
조지아 GA/AL/MS	회장	주지영 (문리 66)	706-338-4520	jane.chu.ga@gmail.com	Jan-Dec
	차기회장	공영식 (사대 79)	770-880-5816	youngskong@yahoo.com	
중부텍사스 MID-TEXAS	회장				
필라델피아 PA/DE/S.NJ	회장	박혜란 (음대 84)	215-499-0320	helen4music@hotmail.com	Jul-Jun
	차기회장				
플로리다 FLORIDA	회장	정치영 (법대 76)	305-665-1961	cychyung@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캐롤라이나 SC/NC/KY	회장	지원식 (공대 85)	919-913-5570	wschee@gmail.com	
	차기회장				
커네티컷 CT	회장	유시영 (문리 68)	203-305-3910	t60syu@gmail.com	
	차기회장				
테네시 TENNESSEE	회장	김상호 (공대 86)	856-386-1094	kimsh@oral.gov	Jan-Dec
	부회장				
하와이 HAWAII	회장	성낙길 (문리 77)	808-956-2611	nsung@hawaii.edu	Jul-Jun
	총무	전수진 (식공 89)	808-956-8283	soojin@hawaii.edu	
하를랜드 IA/MO/KS/NE/AR/OK	회장	오명소 (가정 69)	913-709-2334	msoonbae@gmail.com	Sep-Aug
휴스턴 HOUSTON	회장	구자통 (상대 70)	713-206-1041	kykey2003@yahoo.com	Jan-Dec
	부회장				
캐나다 밴쿠버	회장	이명규 (농대 69)	778-378-7339	nycmikelee@gmail.com	Jan-Dec
	부회장	김종욱 (공대 70)	604-524-0101		
캐나다 앨버타	회장	정중기 (공대 70)	403-617-7585	movics@shaw.ca	Mar-Feb
	부회장				



제27차 평의원회의에는 모교 음대 국악과에서 5명의 동문이 방미하고 보스톤 NEC 출업을 앞둔 김도연 동문과 합동연주를 한다. 어린 동문들의 연주로 국악의 진수를 맛보는 기회가 될 것으로 큰기대가 되고 있다.

6월 16일 (토) 만찬 때에 연주하게 될 국악연주곡들은 민요, 산조, 판소리 등의 민속음악과 듣기편한 퓨전음악연주를 들려주게 된다.

연주자: 김도연(가야금10학번) 신지희(거문고13) 이현준(대금11) 윤하림(해금07) 김수연 (북, 장고14) 정세연(판소리05) 등

[제공: 장수인 부회장]

제27차 평의원회의 축하 모교 음대 국악과 합동 연주회 개최

Crowne Plaza Boston-Natick, 2018년 6월 16일 (토)





TimHaa^hs

PLANNING **PARKING** | CREATING **PLACES** | HELPING **PEOPLE**

www.timhaahs.com

손재옥 (가정대 77)

www.p31business.com

- Planning
- Parking
- Engineering
- Architecture
- Asset Management



Atlanta | Miami | New Brunswick | Philadelphia